

국립국어원 2008-01-13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252-000117-01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 미 혜



국립국어원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수행한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 이미혜 (이화여자대학교)

보조사업자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연구책임자	이미혜 (이화여대)
공동연구원	강현화 (경희대), 김현진 (이화여대) 방성원 (경희사이버대), 안경화 (서울대) 최주열 (선문대)
보조연구원	이수행 (이화여대)

차 례

I. 연구 개요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주요 내용	2
II.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	3
1. 다문화 가정의 형성 배경	3
1.1. 시대적 배경	3
1.2. 사회 문화적 배경	5
2. 다문화 가정의 실태	7
2.1. 다문화 가정의 일반 현황	7
2.2.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분포 현황	10
2.3.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 현황	12
2.4.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 분포 현황	17
3. 다문화 가정의 특성	23
3.1. 다문화 가정 구성의 특성	23
3.2. 생활 적응 방식의 특성	30
4. 요약	33
III.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방향 및 방송 매체의 활용	36
1.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36
1.1. 개인적 · 사회적 ·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의	36
1.2. 학계 차원에서의 의의	37
2.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38
2.1. 교재 및 기초 연구	39
2.2. 교사 자격 및 교육	41
2.3. 교육 실시	43

3.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향	50
3.1.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방안	50
3.2.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방안	52
4.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에서 방송 매체의 활용	53
4.1. 방송 매체 활용의 필요성	53
4.2. 방송 매체 활용의 기대 효과	54
 IV.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56
1. 방송 매체를 이용한 언어 교육 이론	56
1.1. 방송 매체를 이용한 언어 교육의 특성	56
1.2.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59
1.3.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61
2.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 및 시사점	67
2.1. 프로그램 개발 현황	67
2.2. 분석 틀	70
2.2.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71
2.2.2. 언어 교수 학습 자료 분석 틀	73
2.3. 분석 결과	75
2.3.1. EBS <한국말 쉬워요>	75
2.3.2. EBS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82
2.3.3. EBSPLUS 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90
3. 결론 및 시사점	96
 V.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요자 요구 분석	99
1. 요구 조사 방법 및 내용	99
1.1. 요구 조사 대상 및 방법	99
1.2. 요구 조사 내용	100
2. 요구 조사 결과 분석	100
2.1. 학습자의 요구 조사 결과	100

2.2. 교사의 요구 조사 결과	112
VI.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과정	115
1. 선행 연구 및 교재에 나타난 교육과정 분석	115
1.1. 선행 연구에 나타난 교육과정 분석	115
1.2. 교재에 나타난 교육과정 분석	119
1.3. 선행 연구 및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 교육과정의 시사점	131
2.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	133
2.1.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	133
2.2. 교육과정 개발 시의 주요 쟁점	133
3.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실제	139
3.1. 교육과정의 개요	139
3.2.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	141
3.3. 교육 내용	149
VII.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교수요목 개발	157
1. 교수요목의 유형과 특성	157
2. 상황(주제)-기능 중심의 교수요목 설계	160
3.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수요목의 실제	169
VIII. 결론	174
참고문헌	176
부 록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설문지	
[부록] 1. [학습자용] 한국어	181
[부록] 2. [학습자용] 영어	186
[부록] 3. [교사용]	192

표 차 례

<표 1> 성별-유형별 외국인주민	9
<표 2> 유형별 외국인주민 증가율	9
<표 3> 체류 외국인 국적별 분포	10
<표 4> 유형별-국적별 외국인주민 비교표	12
<표 5> 외국인 총 인구 연령별 현황	13
<표 6>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 급별 재학생 분포	14
<표 7>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 분포	14
<표 8>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자녀 현황	15
<표 9> 다문화 가정의 연령별-국적별 자녀현황	16
<표 10> 외국인주민 지자체별 분포 현황	17
<표 11> 외국인주민 시·군·구별 분포(2% 이상)	19
<표 12> 외국이주민 시·군·구별 분포(1% 내외)	19
<표 13> 외국이주민 시·군·구별 분포(0~1.5% 이내)	20
<표 14> 국제결혼 가정 자녀 지역별 분포 및 현황	21
<표 15>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지역별 분포 및 현황	22
<표 16> 외국인과의 혼인	25
<표 17>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26
<표 18>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 ...	26
<표 19>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27
<표 20>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27
<표 21>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혼인종류별 평균 혼인 연령	28
<표 22>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별 혼인	28
<표 23> 외국 남자와 혼인한 한국 여자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29
<표 24>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29
<표 25> 결혼 이주여성 교육 기관별 교사 현황	41
<표 26>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사 교육의 교과목 구성	43

<표 27>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현황	44
<표 28> 이주 노동자의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47
<표 29>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어교실 교육과정	48
<표 30> 국내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현황 (편성 시간, 방송 시간, 방송 기간)	67
<표 31> 국내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현황(진행자 특성, 학습자 출연)	69
<표 32>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 기준 사례	71
<표 33> 미디어교육 분석 틀(Bazalgette, C. 1989)	72
<표 34> 수정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73
<표 35> 교수-학습 상황 분석 기준	74
<표 36> 외적 분석 기준	74
<표 37> 내적 분석 기준	74
<표 38>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75
<표 39>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편 프로그램 구성	84
<표 40>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몽골어편 프로그램 구성	84
<표 41> 주당 한국어 학습 시간	101
<표 42> 교육 방송을 통해 학습을 희망하는 언어 기능	106
<표 43> 자주 접하는 대화 상대	107
<표 44> 자주 접하는 대화 상황	107
<표 45> 방송 시간대	110
<표 46> 방송 횟수	111
<표 47> 회당 방송 시간	111
<표 48>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초급)의 교재 구성표	120
<표 49>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의 교재 구성표	122
<표 50>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중급)의 교재 구성표	123
<표 51>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고급)의 교재 구성표	124
<표 5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중급)의 교재 구성표	126
<표 53>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의 교재 구성표 ..	129
<표 54> 1급의 듣기 목표	143
<표 55> 2급의 듣기 목표	143

<표 56> 3급의 듣기 목표	144
<표 57> 1급의 말하기 목표	144
<표 58> 2급의 말하기 목표	145
<표 59> 3급의 말하기 목표	145
<표 60> 1급의 읽기 목표	146
<표 61> 2급의 읽기 목표	146
<표 62> 3급의 읽기 목표	147
<표 63> 1급의 쓰기 목표	147
<표 64> 2급의 쓰기 목표	148
<표 65> 3급의 쓰기 목표	148
<표 66>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급 교재의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	162
<표 67> 어학 연수생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 ..	163
<표 68>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급 교재의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	164
<표 69> 어학 연수생을 위한 한국어 중급 교재의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 ..	164
<표 70>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급 교재의 기능 중복 출현 빈도수	165
<표 71> 어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초급 교재의 기능 중복 출현 빈도수	166
<표 72>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급 교재의 기능 중복 출현 빈도수	167
<표 73> 어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중급 교재의 기능 중복 출현 빈도수	168
<표 74> 초급 교수요목	170
<표 75> 중급 교수요목	171
<표 76> 고급 교수요목	173

그림 차례

<그림 1> 유형별 외국인주민	8
<그림 2> 체류 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8
<그림 3> 국적별 외국인주민	11
<그림 4> 유형별-국적별 외국인주민	11
<그림 5>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 현황	16
<그림 6> 광역도시 및 지자체별 거주 외국인 현황	18
<그림 7>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 시·군·구 현황	18
<그림 8>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25
<그림 9> 한국어 학습 이유	102
<그림 10>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 방법	102
<그림 11> 교육 방송 경험	103
<그림 12> 교육 방송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104
<그림 13> 교육 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4
<그림 14> 희망하는 한국어 교육 방송 진행 언어	108
<그림 15> 희망하는 한국어 교육 방송 진행 방식	108
<그림 16> 방송 매체의 접근 용이성	110
<그림 17> 한국어 교육 방송의 효과	113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7년 8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장기체류 외국인은 주민등록인구 4,913만 명의 1.5%를 차지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단일 민족임을 강조했던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다문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 합의점을 찾았다.

다문화 가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2005년 5월, 대통령 지시과제로 외국인 이주 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을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부터 정부는 지원 대책 마련 회의와 사회 통합 지원 대책을 다방면으로 간구해왔으며, 한국어 교육도 이에 포함되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를 통해 몇몇 프로그램이 시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최근에야 한국어 교육의 주된 학습자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연구 및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 국가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이 전국에 분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합 교육 방법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이에 방송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거주 지역, 개인 상황에 관계없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로써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문제점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민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며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아울러 후세대를 건전하게 양육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교육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합 교육의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은 전방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은 전국에 퍼져 생활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생활, 자유롭게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 등 다문화 가정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효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처한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현행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책으로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을 제안한다. 그리고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 파악
-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 검토
- 방송 매체를 이용한 언어 교육의 이론 연구
-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연구
-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
-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요구 조사 실시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수요목 개발
-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실시 방안 연구

II.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

1. 다문화 가정의 형성 배경

1.1. 시대적 배경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 근대화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에서 산업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산업 현장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청년들은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문화생활에 적응되면서 어렵고 힘든 농촌생활을 더욱 등지게 되었으며, 농촌에서는 대부분 도시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도시로 올 수 없었던 젊은이들과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서울에 올라온 농촌 여성들마저 농촌 총각들과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에서 생활하는 총각들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큰 문제로도 야기되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되었다. 초창기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말을 잘하고 생활력도 강하며 한국 사람이라는 점에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다. 언론에서도 국제결혼의 성공 사례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특히 노부모를 잘 모시는 효성스런 모습들이 TV에 소개되면서 한국 부모들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걱정스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족 나아가 중국여성까지 신부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은 생활이 어려운 중국 조선족 여성들에게는 가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¹⁾ 특히 한국의 신랑들이 조선족 부모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조선족 사이에서 커다란 인기가 되어 한국으로 시집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으로까지 여

1) 중국과 한국 사이의 국제적인 이주는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한중 수교를 거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류가 확대되고 두 국가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한국은 중국과 교류하면서, 특히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들에게 친척 방문이나 문화 교류 등의 형태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족은 한족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큰 이주자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보다 10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아 송금한 돈으로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귀환한 조선족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이주를 통한 경제력 향상은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되었다(설동훈, 2005).

기게 되고 이러한 붉은 결혼 브로커들을 양산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렇듯 국제결혼이 브로커들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상업화 현상으로 전락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여성들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하여 위장결혼까지 하는 사태가 생겼다.²⁾ 외국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이혼율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이 형성된 배경에는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빈곤 탈출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 바람은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한국의 TV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 매체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생활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갖게 되었다. 나아가 1995년 한국의 세계화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인들의 동남아 여행을 통해서 한국이 더욱 알려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잦은 해외여행을 통해 국제적인 의식이 고양되었으며, 국제화의 바람은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하였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제화에 진입한 시대적 변화는 국제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국제화 시대는 각국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시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경을 넘나들며 살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력 수출이 하나의 큰 국책사업으로까지 장려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1억 8천 5백 명 이상이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하게 되는데 이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이주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한 국제적 노동시장의 흐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이주가 날로 증가하면서 약 2,000만 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스리랑카가 85%, 인도네시아가 70%, 필리핀이 69% 등 이주 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주의 여성화”라고 한다(한국염, 2007).

2)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관계자들은 ‘비자의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비자를 받는 경우’, 즉 ‘결혼이 목적이 아닌 경우’를 위장결혼이라고 정의하면서, 실제 비자 신청자 중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이 가는 경우가 90%가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설동훈, 2005).

1.2. 사회 문화적 배경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8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한 것은 시대적인 배경과 더불어 국내·외의 사회 문화적 배경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고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게 마련이다.

오랜 역사 동안 한국은 단군신화를 중심한 단일민족 사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정착화된 농경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유교적 전통문화가 생활양식 전반에 자리 잡아 왔다. 특히 효사상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조상을 숭배하여 가문을 중시해 왔다. 따라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후손을 보아야 하고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이동이 잦아지고 사회 전반에 형성된 산업화 현상은 젊은 청년들의 사고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 동안의 전통적 가치관은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에 휘말려 실용주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서 결혼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들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위해 헌신을 해온 기존의 전통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성들은 결혼으로 가정생활에 구속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과 가치관을 성취하고자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기피하기도 했다.

한국염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국제결혼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한국염, 2004).

첫째는 한국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왜곡된 성비레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 : 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당연히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이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는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남성들 중에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이 제3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외국인 여성과는 값싸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데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들지만,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는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또한 길거리마다 공공연하게 “0000 나라 여성과 결혼알선” 등이 나붙어 있는데도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분명 돈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 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섯째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적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결혼관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보다 윤택한 삶을 추구하려는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의 풍조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기성세대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국내에서 체제하고 있는 많은 외국들은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 내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바뀌면서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큰 몫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강휘원, 2006). 첫째는 국가 목적으로서 다문화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으로 다문화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다원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 통합의 이데올로기이다.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와 관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다원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수단으로서의 다문화주의를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통치 형태를 요구하게 된다. 이 수단적

다문화주의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공식적 묘사와 국가 내의 문화적 차이점을 포용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의 변화에 대한 점진적 시도를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교육, 통역제도, 다문화방송, 이민자, 소수집단의 문화 보존을 위한 보조금제도,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취업 상의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 사회적 관용성을 증대시키고 차별의식을 타파하여 기회평등을 저해하는 인종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차원에서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와 같은 행정적 지원도 국제결혼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과 한국인들의 3D현상은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용을 증가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었다.

2. 다문화 가정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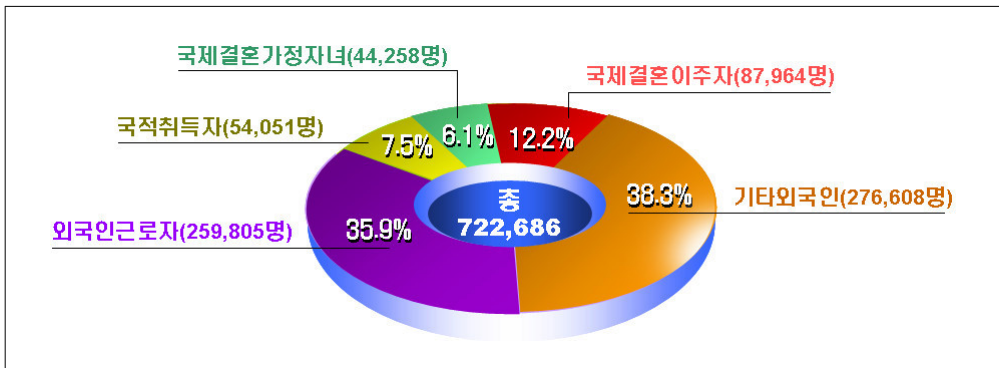
2.1. 다문화 가정의 일반 현황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722,686명(2007년 5월 현재)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536,627명)보다 34.7%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정부 최초의 공식통계를 표방한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35.9%(259,805명), 국제결혼 이주민이 12.2%(87,964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6.1%(44,258명)이고, 외국인 중 국적취득자는 7.5%(54,051명)였다.

3) 행자부(2007. 8. 2.),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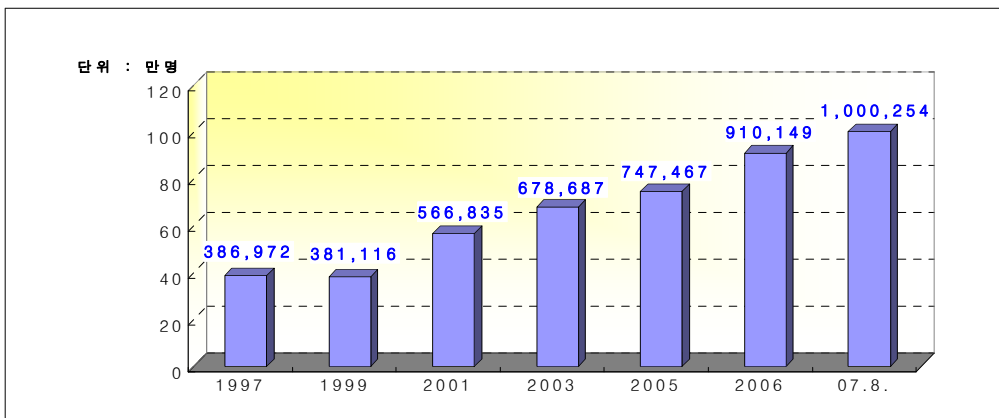
- 조사 기간 : 2007. 5. 14.~6. 1.(3주간)
- 조사 대상 : 90일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국적 취득자 및 자녀, 불법 체류자 등 포함)
- 조사 내용 : 조사총괄(시도 시군구). 한국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민, 기타(유학생, 주재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 귀화자, 국제결혼 가정 자녀 소계(남/여), 국제결혼 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 기타(혼인 귀화 이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소계(남/여)

〈그림 1〉 유형별 외국인주민



그러나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체류 외국인은 재한 외국인에 관한 법무부 관련 통계⁴⁾에 따르면 <그림 2>에서처럼, 연도별로 큰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2007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1,000,254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체류 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요인을, 행자부에서는 첫째, 지자체 국제결혼 비용지원 등으로 국제결혼 이주민 및 자녀가 46.1%(42,000명), 국적취득자가 36.8%(15,000명) 증가하였다는 점, 둘째,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외국인 (회화지도, 상사주재원 등)의 증가와 함께 2006년도 최초 조사 시 누락된 대상자가 새

4) 재한외국인 관련 통계 법무부 자료(2007. 8. 24.), 체류 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로이 포함됨에 따라 83.2%(126,000명) 증가한 것 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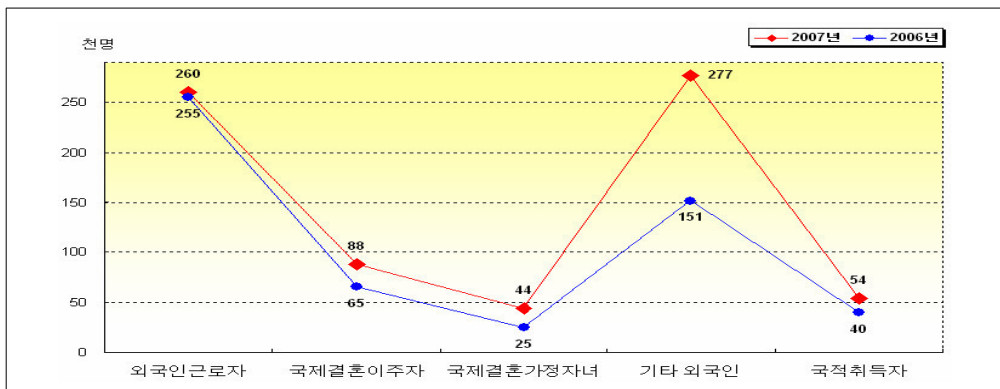
이들 가운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제결혼 이주민 및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은 431,01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9.6%나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다음 <표 1>에서처럼, 이를 단순히 성별로만 나누어 보면 남성비율이 여성비율보다 10%쯤 높았지만 근로자 및 국제결혼 이주민별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비율(70.7%)이 여성 비율(29%)보다 42%로 훨씬 많았으며, 국제결혼 이주민은 오히려 여성 비율(86%)이 남성 비율(14%)보다 무려 7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유형별 외국인주민

대비 항목 \ 성 별	남성	여성
성별 외국인주민	55%	45%
외국인 근로자	약 70.7%	약 29%
국제결혼 이주민	약 14%	약 86%

이는 남성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 취업목적이었다면, 여성 이주민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이주 목적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음 <표 2>에서처럼 2006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약 5,000천 명 증가에 그쳤지만, 국제결혼 이주민 및 자녀는 각각 23,000명과 19,000명으로 46.1%(42,000명)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유형별 외국인주민 증가율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는 다민족·다문화 사회 진전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 통합 정책 추진 못지않게 국제결혼 이주민 및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2.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분포 현황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거주 목적 및 체류 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등 2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무부 조사결과⁵⁾에 따르면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표 3>에서처럼, 중국 국적이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었다.

〈표 3〉 체류 외국인 국적별 분포

국적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기타
인구수(명)	4441,334	117,938	64,464	50,264	42,792	286,462
비율(%)	44	12	6	5	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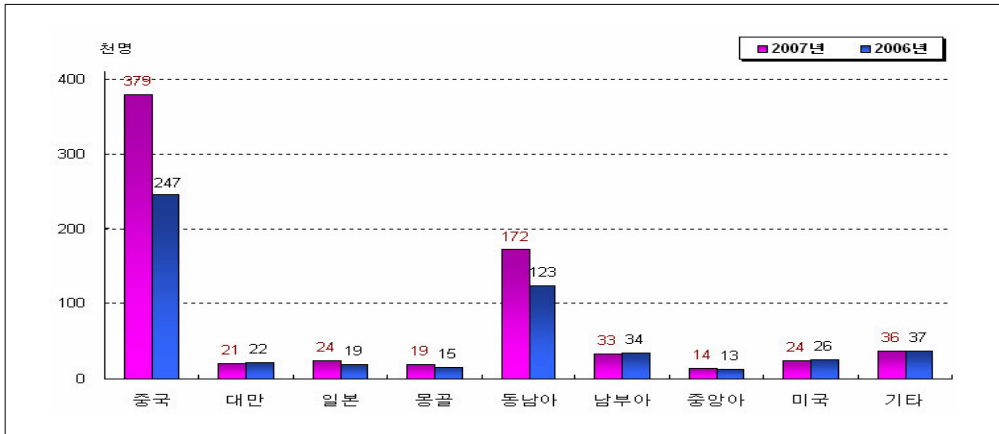
* 중국동포 : 266,764명

이 가운데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총 724,967명으로 주민등록인구 4,913만 명 가운데 1.5%를 차지한다.

이들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자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림 3>에서처럼, 국적별로 중국이 52.4%(379,000명)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시아 23.7%, 남부아시아 4.6%,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순이었다.

5) 재한외국인 관련 통계 법무부 자료(2007. 8. 24.), 체류 외국인 국적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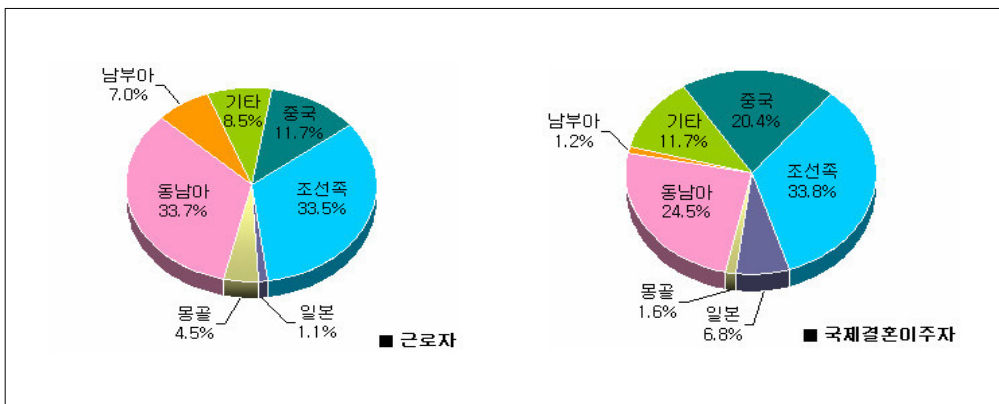
〈그림 3〉 국적별 외국인주민



중국(조선족 36.4% 포함)과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주민의 76.1%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대비 중국이 6.3%, 동남아시아는 0.7%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는 감소하는 등 특정국가 출신이 집중적으로 유입·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 출신자는 97.5%가 여성으로서 2006년 12,000명에서 2007년 22,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81.3%)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제결혼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대부분 동남아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국적별 외국인주민 가운데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국제결혼 이주민의 국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을 유형별-국적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유형별-국적별 외국인주민



<그림 4>에서처럼, 중국 국적 조선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의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이주민이 각각 8.7%와 5.7%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이주유형에 따른 국적별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표 4>와 같았다.

〈표 4〉 유형별-국적별 외국인주민 비교표

(단위 : %)

국적 유형	중국		아시아		몽골	일본	기타
	조선족	중국	동남아	남부아			
국제결혼 이주민	33.8	20.4	24.5	1.2	1.6	6.8	11.7
근로자	33.5	11.7	33.7	7.0	4.5	1.1	8.5

<표 4>에서 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언어문화 지원은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과 동남아시아 국적 이주민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이주민과 근로자 모두를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지만, 일본 국적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이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남부아시아 및 몽골 국적 이주민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3.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 현황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다양한 언어문화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부모의 국적 및 교육 정도, 나이가 직업 등에 따라 한국 사회 문화에의 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2006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외국인 총 인구 연령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외국인 총 인구 연령별 현황⁶⁾

연령/연도	2006		2005		2004		2003	
0-4	6,112	0.97%	6,053	1.25%	5,917	1.26%	5,861	1.31%
5-9	7,508	1.19%	7,328	1.51%	7,034	1.50%	7,674	1.72%
10-14	7,106	1.13%	7,144	1.47%	6,982	1.49%	7,654	1.71%
15-19	10,874	1.72%	8,785	1.81%	7,540	1.61%	7,417	1.66%
5~19 소계	25,488	4.04%	23,257	4.79%	21,556	4.59%	22,745	5.09%
20-24	73,858	11.71%	54,606	11.25%	43,610	9.29%	41,676	9.32%
25-29	109,019	17.29%	84,595	17.43%	85,285	18.18%	85,827	19.20%
30-34	103,062	16.34%	84,027	17.31%	89,731	19.12%	89,639	20.05%
35-39	100,800	15.98%	76,809	15.82%	76,615	16.33%	68,195	15.26%
40-44	69,401	11.01%	54,313	11.19%	53,391	11.38%	46,030	10.30%
45-49	50,598	8.02%	35,780	7.37%	35,250	7.51%	37,442	8.38%
50-54	40,929	6.49%	27,502	5.66%	23,461	5.00%	19,811	4.43%
55-59	27,743	4.40%	19,331	3.98%	18,788	4.00%	15,181	3.40%
60-64	11,400	1.81%	8,905	1.83%	7,819	1.67%	7,247	1.62%
65-69	6,098	0.97%	5,212	1.07%	4,118	0.88%	4,025	0.90%
70-74	3,155	0.50%	2,646	0.55%	1,916	0.41%	1,748	0.39%
75-79	1,601	0.25%	1,289	0.27%	914	0.19%	825	0.18%
80-84	859	0.14%	710	0.15%	475	0.10%	440	0.10%
85-89	349	0.06%	287	0.06%	217	0.05%	198	0.04%
90 이상	155	0.02%	155	0.03%	120	0.03%	124	0.03%
계	630,627	100%	485,477	100%	469,183	100%	447,014	100%

2003년~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5~19세까지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 총 인구 대비 4~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을 기준으로 5~19세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25,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 급별 재학생 분포를 살펴보면⁷⁾ <표 6>에서처럼, 초·중학생은 거의 7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도 48%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6) 통계청 홈페이지 및 16개 시·도청 홈페이지 자료(기준: 2006. 12. 31.).

7)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통계 자료(2007. 7. 20.), 국제결혼 가정 자녀.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 중에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8.0%(11,825명)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언어문화 습득 및 학업 성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 급별 재학생 분포

연 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한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 현황을 살펴보면 <표 7>에서처럼 2006년 대비 초 등학생은 32.3% 크게 감소한 반면, 중학생은 81.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 예고로 중국교포 등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⁸⁾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현황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 가족 형성에 미치는 변수가 많 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⁹⁾

〈표 7〉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취학 분포

연 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계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 외국인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 8,341명(2006. 12. 기준) 제외

8) Ibid, “2006년 외국인과의 혼인통계” 참조.

9)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통계 자료(2007. 7. 20.),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 육인적자원부 자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형성에는 개입되는 변수가 많아 현재로 서는 정확한 규모 파악에 한계(장혜경 외, 한국 여성개발원, 2003)”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행자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8>에서처럼, 외국인 이주민이 많았던 중국계와 베트남 및 필리핀 국적 등의 동남아계 자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타의 국적 출신 자녀도 상당수에 달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출신 국적에 관계없이 언어문화 습득에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사회 적응 대책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8〉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자녀 현황

(단위 : 명)

국적 총계	동북아						동남아						남 부 아 10)	중 앙 아 11)	미 국	러 시 아	기 타 12)
	소계	중국	중국 (조선 족)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 남	필리 핀	태국	인도 네시 아	기 타 13)					
44,258	29,216	7,716	14,201	878	6,016	405	12,437	5,062	6,013	799	202	361	288	550	852	263	652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적별 자녀 현황 자료는 행자부에서 부모의 국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결혼 이주민 및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등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모두 조사하여 외국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0~18세 이하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연령별-국적별 현황을 살펴본다면 <표 9>와 <그림 5>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언어문화 적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다음의 <표 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0~만6세 이하의 자녀는 26,445명, 만7세~만12세 이하의 자녀는 14,392명으로 다른 연령층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그림 5>에서처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0~만6세 이하가 59.8%, 만7세~만12세 이하가 32.5%로 전체의 92.3% 차지하고 있다. 대만 및 미국 국적의 자녀들이 연령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여타 국적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대부분 취학하기 전 언어습득 시기(6세 이하), 또는 취학 연령기에서부터 초등학교 시기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남부아 :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부탄, 몰디부 등

11) 중앙아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12) 기타 :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 중앙아, 미국, 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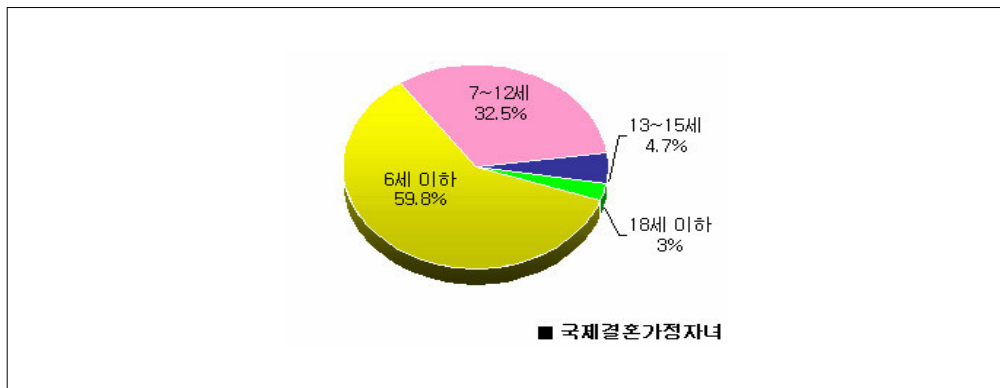
13) 동남아 기타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표 9〉 다문화 가정의 연령별-국적별 자녀현황

(단위 : 명)

구분		국적	동북아						동남아						남 부 아	중 앙 아	미 국	러 시 아	기 타
연령	총계	소계	중국	중국 (조선족)	대 만	일본	몽 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기타						
만6세 이하	26,445	15,180	4,453	7,629	264	2,537	297	9,823	4,451	4,401	625	111	235	167	423	345	160	347	
만7~ 12세 이하	14,392	11,543	2,732	5,617	287	2,837	70	2,144	430	1,415	147	69	83	90	77	275	60	203	
만13~ 15세 이하	2,080	1,535	306	544	177	481	27	287	100	132	22	9	24	18	24	133	26	57	
만16~ 18세 이하	1,341	953	241	395	155	149	13	180	64	82	8	8	18	11	24	109	15	49	

〈그림 5〉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 현황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지원은 취학하기 전 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부모 한국어 교육과 병행하여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연구 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외국인 부모들이 한국 언어문화 습득 및 생활 적응, 자녀 교육 등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모세대 못지않게 특정 연령층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4.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 분포 현황

(1) 외국인주민의 지자체별 일반적인 분포 현황

2007년 행자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실태 조사는 지자체별 16개 시도와 이에 따른 253군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광역시 및 도별 외국인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외국인주민 지자체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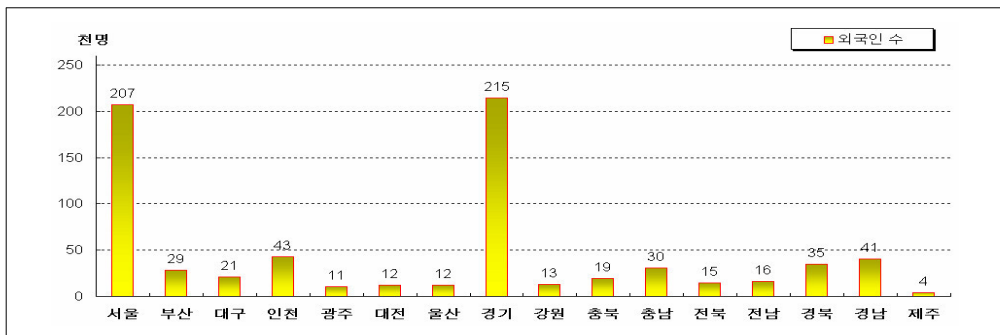
구분	총 계 (A)=(C+D+E)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C)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D)				국제결혼 가정자녀 (E)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민			기타 외국인	혼인 귀화자			기타 취득자	
	계(B)		계	계	남	여	계	계	남	여	계	계
합계	722,686	비율	259,805	87,964	12,497	75,467	276,608	38,991	2,624	36,367	15,060	44,258
서울	207,417	28.7%	34,288	23,413	5,141	18,272	122,223	12,484	1,322	11,162	9,704	5,305
부산	28,591	4.0%	5,842	4,416	535	3,881	13,924	1,926	67	1,859	214	2,269
대구	20,731	2.9%	2,569	2,756	260	2,496	12,163	1,053	31	1,022	171	2,019
인천	43,093	6.0%	18,913	4,927	939	3,988	13,808	2,562	239	2,323	570	2,313
광주	10,784	1.5%	2,169	1,823	162	1,661	4,836	674	19	655	51	1,231
대전	12,044	1.7%	4,091	1,909	296	1,613	4,499	633	15	618	88	824
울산	12,034	1.7%	5,292	1,477	97	1,380	3,675	576	6	570	130	884
경기	214,727	29.7%	116,794	22,340	3,639	18,701	55,855	9,647	723	8,924	3,474	6,617
강원	13,238	1.8%	2,686	2,257	134	2,123	4,829	993	24	969	107	2,366
충북	19,274	2.7%	8,102	2,640	382	2,258	5,003	1,147	47	1,100	94	2,288
충남	30,337	4.2%	17,465	3,817	196	3,621	4,089	1,504	37	1,467	30	3,432
전북	14,903	2.1%	2,726	3,122	171	2,951	4,423	1,268	18	1,250	89	3,275
전남	16,312	2.3%	4,158	3,817	88	3,729	2,895	1,263	17	1,246	26	4,153
경북	34,579	4.8%	12,794	3,973	138	3,835	12,938	1,443	31	1,412	142	3,289
경남	40,607	5.6%	20,729	4,511	240	4,271	9,978	1,636	23	1,613	154	3,599
제주	4,015	0.6%	1,187	766	79	687	1,470	182	5	177	16	394

이에 따르면 <표 10>에서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 외국인은 각각 28.7%와 29.7%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58.4%)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64.4%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광역도시 및 지자체별 평균 거주 외국인인 약 32,000여 명이었지만 <그림 6>에서처럼, 지역에 따라 1~2만 명 정도로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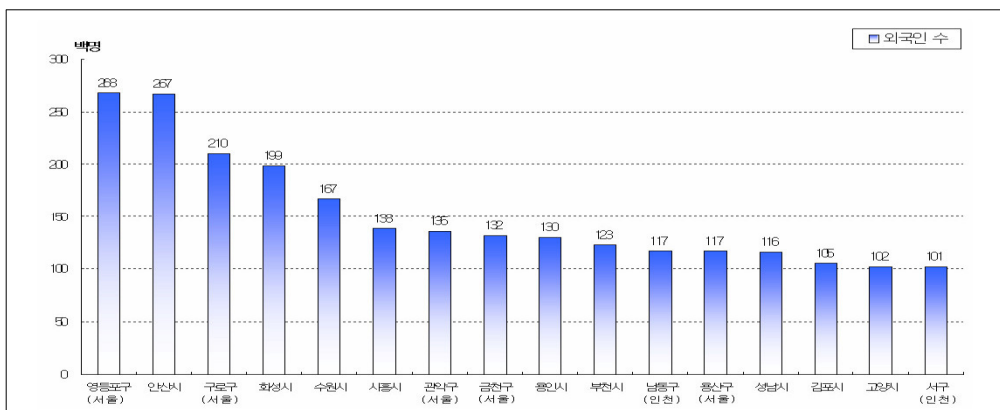
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4~5%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부산, 충남, 경남, 경북, 충남, 부산 순이었지만 수도권 지역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지역은 1~3%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수만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림 6〉 광역도시 및 지자체별 거주 외국인 현황



광역시도별 거주 외국인주민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살펴 보아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즉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역시 <그림 7>에서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5개소(용산,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인천 2개소(남동구, 서구), 경기도 9개소(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부천, 시흥, 화성, 김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7〉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 시·군·구 현황



따라서 외국인 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건립 등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 한다면,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만큼, 시·군·구 전체로 확대하여 살펴본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즉 전체 거주 외국인주민 대비 2% 이상 (15,000명) 되는 거주 지역만을 살펴 본 결과 <표 11>에서처럼 총 253개 시·군·구 가운데 2개 광역시도에 5개 시·군·구에 불과하였으며, 1.5~2% 거주 지역이라고 해도 <표 12>에서처럼 2개 광역시도 9개 시·군·구에 불과하였다.

〈표 11〉 외국인주민 시·군·구별 분포(2% 이상)

광역시도	시군구	거주민원	비율
서울	구로구	20,980	2.9%
	영등포구	26,807	3.7%
경기	수원시	16,667	2.3%
	화성시	19,853	2.7%
	안산시	26,715	3.7%

〈표 12〉 외국이주민 시·군·구별 분포(1% 내외)

광역시도	시군구	거주민원	비율
서울	관악구	13,515	1.9%
	금천구	13,174	1.8%
	용산구	11,667	1.6%
경기	성남시	11,563	1.6%
	고양시	10,177	1.4%
	부천시	12,268	1.7%
	용인시	12,975	1.8%
	시흥시	13,804	1.9%
	김포시	10,535	1.5%

위와 같은 14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239개 시·군·구 지역은 <표 13>에 서처럼, 0.0~1% 정도의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외국인주민 시·군·구별 분포(0~1.5% 이내)

지역	시군구	거주인원	비율	지역	시군구	거주인원	비율	지역	시군구	거주인원	비율	지역	시군구	거주인원	비율
서울	종로구	6,934	1.0%	광주	남구	1,017	0.1%	충북	제천시	1,199	0.2%	전남	무안군	780	0.1%
	중구	6,578	0.9%		북구	2,978	0.4%		청원군	2,773	0.4%		함평군	580	0.1%
	성동구	8,108	1.1%		광산구	4,794	0.7%		보은군	552	0.1%		영광군	336	0.0%
	광진구	8,791	1.2%	대전	동구	2,281	0.3%		옥천군	792	0.1%		장성군	809	0.1%
	동대문구	8,241	1.1%		중구	1,528	0.2%		영동군	537	0.1%	경북	완도군	426	0.1%
	종로구	4,632	0.6%		서구	3,241	0.4%		증평군	405	0.1%		진도군	291	0.0%
	성북구	4,606	0.6%	울산	유성구	3,062	0.4%		진천군	2,002	0.3%		산안군	216	0.0%
	강북구	3,246	0.4%		대덕구	1,932	0.3%	충남	괴산군	444	0.1%		포항시	3,525	0.5%
	도봉구	2,925	0.4%		중구	1,275	0.2%		음성군	3,409	0.5%	경북	경주시	4,374	0.6%
	노원구	3,170	0.4%	경기	남구	2,693	0.4%		단양군	308	0.0%		김천시	1,471	0.2%
	은평구	4,344	0.6%		동구	2,943	0.4%		천안시	8,839	1.2%		안동시	1,129	0.2%
	서대문구	8,713	1.2%		북구	1,526	0.2%		공주시	1,864	0.3%		구미시	5,365	0.7%
	마포구	7,686	1.1%	충남	울주군	3,597	0.5%		보령시	881	0.1%		영주시	981	0.1%
	양천구	4,739	0.7%		안양시	5,564	0.8%		아산시	5,917	0.8%		영천시	1,746	0.2%
	강서구	5,906	0.8%		의정부시	3,412	0.5%		서산시	1,860	0.3%		상주시	790	0.1%
	동작구	8,171	1.1%		남양주시	5,221	0.7%		논산시	1,682	0.2%		문경시	428	0.1%
	서초구	6,062	0.8%		평택시	7,593	1.1%		계룡시	349	0.0%		경산시	5,612	0.8%
	강남구	7,963	1.1%		광명시	3,202	0.4%		금산군	861	0.1%		군위군	447	0.1%
	송파구	5,993	0.8%		군포시	3,832	0.5%		연기군	1,470	0.2%		의성군	434	0.1%
	강동구	4,446	0.6%		과천시	8,076	1.1%		부여군	711	0.1%		청송군	176	0.0%
부산	중 구	850	0.1%		이천시	2,968	0.4%	전북	서천군	581	0.1%		영양군	119	0.0%
	서 구	968	0.1%	경기	구리시	1,485	0.2%		청양군	405	0.1%		영덕군	230	0.0%
	영 도 구	1,164	0.2%		포천시	7,632	1.1%		홍성군	717	0.1%		청도군	285	0.0%
	부산진구	2,004	0.3%		광주시	8,516	1.2%		예산군	1,047	0.1%		고령군	1,526	0.2%
	동 레 구	1,089	0.2%		안성시	3,704	0.5%		태안군	315	0.0%		성주군	1,184	0.2%
	남 구	2,279	0.3%		하남시	1,815	0.3%		당진군	2,838	0.4%		칠곡군	3,722	0.5%
	북 구	1,379	0.2%		의왕시	1,327	0.2%		전주시	2,900	0.4%		예천군	408	0.1%
	해운대구	2,629	0.4%		양주시	7,675	1.1%		군산시	2,167	0.3%		봉화군	248	0.0%
	사 하 구	3,947	0.5%		오산시	2,592	0.4%		익산시	3,309	0.5%		울진군	356	0.0%
	금 정 구	1,746	0.2%		여주군	1,573	0.2%		정읍시	1,158	0.2%		울릉군	23	0.0%
	강 서 구	2,989	0.4%		양평군	540	0.1%	전남	남원시	855	0.1%	경남	창원시	6,397	0.9%
	연 제 구	798	0.1%		동두천시	2,097	0.3%		김제시	763	0.1%		마산시	3,407	0.5%
	수 영 구	957	0.1%		과천시	336	0.0%		완주군	1,219	0.2%		진주시	2,369	0.3%
	사 상 구	3,521	0.5%		가평군	602	0.1%		진안군	335	0.0%		진해시	1,384	0.2%
	기 장 군	918	0.1%		연천군	408	0.1%		무주군	205	0.0%		통영시	1,402	0.2%
대구	중구	752	0.1%		춘천시	2,488	0.3%		장수군	331	0.0%		사천시	1,162	0.2%
	동구	1,609	0.2%		원주시	2,695	0.4%		임실군	344	0.0%		김해시	9,431	1.3%
	서구	2,384	0.3%		강릉시	1,450	0.2%		순창군	408	0.1%		밀양시	860	0.1%
	남구	878	0.1%		동해시	500	0.1%		고창군	560	0.1%		거제시	5,107	0.7%
	북구	3,656	0.5%		태백시	219	0.0%		부안군	349	0.0%		양산시	3,200	0.4%
	수성구	1,760	0.2%		속초시	672	0.1%		목포시	1,152	0.2%		의령군	386	0.1%
	달서구	7,047	1.0%		삼척시	493	0.1%		여주시	1,715	0.2%		함안군	1,774	0.2%
	달성군	2,645	0.4%		홍천군	760	0.1%		순천시	1,343	0.2%		창녕군	731	0.1%
인천	중구	1,285	0.2%		횡성군	848	0.1%		나주시	1,630	0.2%		고성군	734	0.1%
	동구	1,038	0.1%	강원	영월군	322	0.0%		광양시	817	0.1%		남해군	449	0.1%
	남구	5,679	0.8%		평창군	359	0.0%	전남	담양군	563	0.1%		하동군	354	0.0%
	연수구	2,476	0.3%		정선군	293	0.0%		곡성군	454	0.1%		산청군	283	0.0%
	부평구	6,561	0.9%		철원군	424	0.1%		구례군	323	0.0%		함양군	443	0.1%
	계양구	3,572	0.5%		화천군	226	0.0%		고흥군	499	0.1%		거창군	299	0.0%
	서구	10,131	1.4%		양구군	302	0.0%		보성군	291	0.0%		함천군	435	0.1%
	강화군	392	0.1%		인제군	278	0.0%		화순군	944	0.1%	제주	제주시	2,694	0.4%
	옹진군	266	0.0%		고성군	542	0.1%		장흥군	376	0.1%		서귀포시	1,321	0.2%
	동구	1,097	0.2%		양양군	367	0.1%		강진군	304	0.0%				
광주	서구	898	0.1%	충북	청주시	4,879	0.7%		해남군	743	0.1%				
					충주시	1,974	0.3%		영암군	1,720	0.2%				

따라서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 적응 및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마땅히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국인주민들의 특성상, 거주 지역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집중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분적·산발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방송통신망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역별 분포 현황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전국 시·군·구 전체에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지역별 현황을 시도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¹⁴⁾ <표 14>와 같다.

〈표 14〉 국제결혼 가정 자녀 지역별 분포 및 현황

구분 시도	시 지역 학생 수				읍면 지역 학생 수				합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1,040	234	73	1,347	0	0	0	0	1,347
부산	391	67	25	483	0	0	0	0	483
대구	241	29	6	276	42	4	2	48	324
인천	387	44	16	447	34	10	4	48	495
광주	279	32	11	322	0	0	0	0	322
대전	191	30	8	229	0	0	1	1	230
울산	105	12	4	121	72	10	0	82	203
경기	1,137	259	83	1,479	1,146	201	44	1,391	2,870
강원	224	37	2	263	505	30	9	544	807
충북	170	25	7	202	472	41	8	521	723
충남	202	72	23	297	748	59	12	819	1,116
전북	319	48	10	377	651	51	0	702	1,079
전남	342	19	3	364	1,019	82	14	1,115	1,479
경북	170	23	16	209	481	30	2	513	722
경남	335	78	20	433	633	47	7	687	1,120
제주	67	13	3	83	41	1	0	42	125
계	5,600	1,022	310	6,932	5,844	566	103	6,513	13,445
비율	49.0%	64.4%	75.1%	51.6%	51.0%	35.6%	24.9%	48.4%	

※ 비율은 국제결혼 가정 각 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임

14)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통계 자료(2007.7.20),

우선 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학교 급별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고교생의 경우에는 20% 이상 시·군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내국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습 환경이 보다 나은 지역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전체 비율을 보면 각각 51%와 48.4%로 거의 큰 차이가 없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점이다. 특히 광역시와 도별 지역의 비율은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집중되고 있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수도권 집중 분포도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광역시별로는 200~500명 정도, 도별로는 제주도(125)와 전남(1,479)을 제외한 지역이 700~1,100명 정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¹⁵⁾

〈표 15〉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지역별 분포 및 현황

시도 \ 구분	초	중	고	계
서울	199	233	36	468
부산	43	13	3	59
대구	28	1	0	29
인천	97	6	2	105
광주	7	1	0	8
대전	25	6	0	21
울산	2	0	0	2
경기	204	97	11	312
강원	28	4	4	36
충북	23	12	1	46
충남	17	1	1	19
전북	3	1	0	4
전남	1	0	0	1
경북	14	1	1	16
경남	64	15	4	83
제주	0	0	0	0
계	755	391	63	1,209
비율	62.44%	32.34%	5.21%	

15)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보다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표 15>에서처럼, 역시 초·중·고교생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 외 지역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비율보다도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산발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고교생의 경우 1명도 없는 지역이 있으며, 제주와 같은 지역은 초·중·고교생 모두 1명도 없었다. 이는 역시 부모로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학교 급별로는 역시 초·중학생이 전체 근로자 자녀 대비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한 후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한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은 부모 모두 외국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언어문화 습득, 나아가 학습 및 학교 적응 등에 있어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는 성격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므로 한국의 언어문화 및 학습 등을 지원하려 할 때,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마찬가지로 선상에서 마땅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문화 가정의 특성

3.1. 다문화 가정 구성의 특성

한국 다문화 가정의 구성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이성언외, 2006). 첫째, 1950년대에서 1970년대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여성이 국제결혼 한 가정. 둘째,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전문직업인과 한국 여성과 국제결혼 한 가정. 셋째,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한 가정. 넷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으로 인해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역사적 배경과 경제발달 및 사회문화 현상과 연계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수적으로도 많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셋째와 넷째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유입된 이들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노동 현장에서, 성매매 현장에서, 국제결혼 현장에서 단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3중의 차별을 받으며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으며,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여성들은 유입과정과 일의 성격을 기초

로 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⁶⁾

첫째, 산업연수나, 개인적 인맥 등을 통하여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둘째, 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 이주여성, 셋째, 연예인 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이다.

이처럼 다양한 통로와 배경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가정,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가정, 남자 여자 모두 외국인 가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통계청 자료¹⁷⁾를 참고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총 혼인건수는 2006년 한 해 동안 39.7천 건으로 2000년의 12.3천 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5년의 43.1천 건보다 3.4천 건(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은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 예고로 중국 교포들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결혼을 통한 한국입국보다는 정상적인 방문을 통한 취업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이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가족 구성원의 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일면을 볼 수 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006년 30.2천 건으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보다 3.1% 감소했으며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 역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9.5천 건으로 2005년보다 급속히 20.6% 감소한 것은 “방문취업제”시행 예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수는 2006년에 조금 감소하게 되었으나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가 2006년 급속히 감소하게 된 것도 외국 남자들이 결혼보다는 취업목적 위장결혼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의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난 자료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6)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정책과 김삼준이 2007년 8월 17일 한국어 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제3차 총회 및 하계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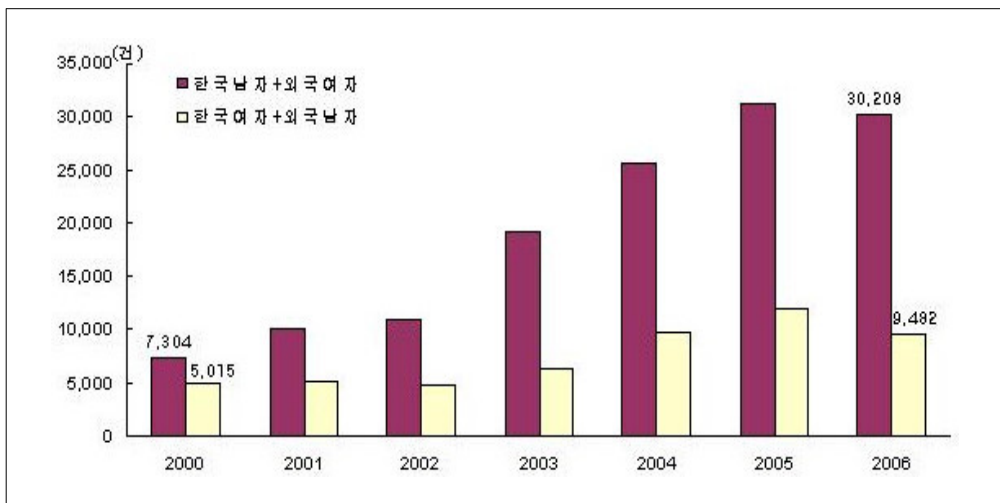
17) 2007년 3월 통계청 자료: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호적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2006.1.1.~12.31.) 전국의 읍·면사무소 및 시·구청(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의 인구동태 항목을 집계한 결과임.

〈표 16〉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3.7	4.8	5.2	8.4	11.4	13.6	11.9
증 감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3,431
증 감 률	16.5	23.7	4.5	61.2	38.2	21.6	-8.0
■ 한국 남자+외국 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증 감 률	26.5	37.0	10.1	74.4	33.2	21.8	-3.1
■ 한국 여자+외국 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증 감 률	4.6	4.2	-6.4	31.6	52.9	21.2	-20.6

〈그림 8〉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1)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2006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비율을 살펴보면 총 30,208건 중 중국 국적이 14,608건(48.4%)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10,131건(33.5%), 일본이 1,484건으로(4.9%) 중국, 베트남 여자가 8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조선족, 나아가 베트남의 참전을 통한 역사적 배경, 한류의 영향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여자와의 혼인은 2005년보다 6.0천 건 감소한 14.6천 건으로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도 높은 증가율(74.0%)을 보였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7〉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100.0	-3.1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48.4	-29.2
베 트 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33.5	74.0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4.9	18.2
필 리 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3.8	16.0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2.0	5.9
캄 보 디 아	*	*	*	19	72	157	394	1.3	151.0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1.1	17.2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314	1.0	-5.7
기 타	779	936	1,046	1,263	1,250	1,135	1,192	3.9	5.0

* 기타에 포함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와 혼인한 사람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2006년의 경우 41.0%(3,525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년보다 5.1%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되어있다. 전년에 비해 베트남은 56.0% 증가한 반면, 중국과 필리핀은 각각 -27.0%, -14.1%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8〉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

(단위 : 건)

	2005					2006				
국적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건수	2,885	1,535	984	198	168	3,525	2,394	718	170	243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초혼 구성비는 2000년 75.8%에서 2006년 64.0%로 11.8% 감소하여 재혼에 대한 초혼비는 3.1배에서 1.8배로 낮아졌다. 이것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혼이 줄어들고 재혼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9〉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위 : %)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초혼구성비(a)	75.8	67.4	66.8	59.0	54.1	56.2	64.0
재혼구성비(b)	24.2	32.6	33.2	41.0	45.9	43.8	36.0
비(a/b)	3.1	2.1	2.0	1.4	1.2	1.3	1.8

(2)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2006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5세로 2000년(6.7세)보다 4.8세 높아졌으며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2.4세)보다 약 4.8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동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 여자와 결혼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 20〉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남자+외국 여자	6.7	7.4	7.8	8.2	8.3	9.1	11.5
한국 남자+한국 여자	2.7	2.6	2.6	2.6	2.6	2.5	2.4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평균 혼인 연령은 초혼 남자가 37.1세, 재혼 남자 47.0세로 전년대 각각 0.5세 낮아졌으나 2000년 초혼 남자 34.0세, 재혼 남자 45.0세 보다는 각각 3.1세, 2.0세 높게 나타났다. 초혼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평균 혼인 연령은 26.0세로 2000년 27.8세부터 2004년 29.2세로 가장 높아졌다가 2006년에 이르러 가장 낮은 연령을 보이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외국 여성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초혼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연령차는 11.1세로 2000년 6.2세보다 4.9세 높으며, 재혼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연령차는 12.2세로 2000년 8.8세보다 3.4세 높아졌다. 이렇게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 나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록 높아지는 것은 외국인 여자는 초혼이나 재혼에서 연도별 나이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한국 남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혼인종류별 평균 혼인 연령

(단위 : 세)

한국 남자의 혼인종류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초 혼	한국 남자(a)	34.0	34.8	35.2	36.6	37.0	37.6	37.1
	외국 여자(b)	27.8	28.1	28.0	28.7	29.2	28.6	26.0
	차이(a-b)	6.2	6.7	7.2	7.9	7.8	9.0	11.1
재 혼	한국 남자(a)	45.0	46.0	46.0	47.3	47.6	47.5	47.0
	외국 여자(b)	36.2	37.2	36.9	38.2	38.8	38.3	34.8
	차이(a-b)	8.8	8.8	9.1	9.1	8.8	9.2	12.2

(3)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와의 혼인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은 총 9,5천 건으로 전년보다 20.6% 감소하였으며 외국 남자의 국적은 일본 3.8천 건(39.6%), 중국 2.6천 건(27.4%), 미국 1.5천 건(15.3%) 순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여 호주, 영국, 독일은 각각 3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05년에 크게 증가했던 중국과 파키스탄은 각각 48.5%, 30.6% 감소하였다.

〈표 22〉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100.0	-20.6
일 본	2,941	3,011	2,377	2,613	3,378	3,672	3,756	39.6	2.3
중 국	218	222	272	1,199	3,621	5,042	2,597	27.4	-48.5
미 국	1,095	1,132	1,210	1,237	1,348	1,413	1,455	15.3	3.0
캐 나 다	149	164	174	223	230	285	308	3.2	8.1
파키스탄	39	64	126	130	103	219	152	1.6	-30.6
호 주	74	79	89	108	136	102	139	1.5	36.3
영 국	66	70	87	88	120	106	138	1.5	30.2
독 일	85	97	84	93	110	85	129	1.4	51.8
기 타	348	389	477	753	807	1,017	808	8.5	-20.6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초혼 구성비는 2000년 63.4%에서 2005년까지 감소했다가 2006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혼 역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2006년에 감소하고 있다.

〈표 23〉 외국 남자와 혼인한 한국 여자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위 : %)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초혼구성비(a)	63.4	61.6	65.3	57.6	47.1	44.3	56.5
재혼구성비(b)	36.6	38.4	34.7	42.4	52.9	55.7	43.5
비(a/b)	1.7	1.6	1.9	1.4	0.9	0.8	1.3

(4)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2000년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6.5세로 높은 편이었으나 2005년까지 2.7세로 줄어들었다가 2006년 다시 4.1세로 높아졌다.

〈표 24〉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여자+외국 남자	6.5	6.5	5.2	4.1	3.1	2.7	4.1
한국 여자+한국 남자	2.7	2.6	2.6	2.6	2.6	2.5	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국적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는 30.2천 건,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는 9.5천 건으로 외국인 여자가 3배 정도 많은 주목할 만하다. 외국인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교육과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은 미래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혼의 연령을 보면 한국 남자의 연령은 초혼이 37세, 재혼이 47세로 외국 여자보다 11.1세, 12.2세 많은 편이다. 따라서 노후 문제나 한국 남자가 먼저 사망한 후의 가정문제는 외국인 여자가 관리해야 한다.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 확산되고 외국인 여자들이 가정과 사회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되면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서 다양한 사회구조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 구성의 특성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결혼 동기가 다양하고 당사자들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사회적응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 쉽게 붕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설동훈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혼인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8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3%, 사별이 2%, 별거나 이혼인 경우가 12%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별거나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해체된 가정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해체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3.2. 생활 적응 방식의 특성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극복해야 할 내용이 많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장벽부터 음식, 가족관계, 생활예절, 사회제도, 기후 등 생활전반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언어 적응 방식과 생활 적응 방식에 대한 특성을 현장 사례 보고서¹⁸⁾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언어 적응 방식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은 중국의 조선족을 제외하고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은 제2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처음에는 몸짓이나 수신호로 직접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은 사전을 사용하여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주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정규과정을 거쳐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은 거의 없다. 특히 남편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 외국인 아내의 한국어 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형편도 못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은 처음에는 몸짓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다가 생활 주변의 물건들에 대한 명칭부터 생활 어휘를 익히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가정에 있는 다양한 물건의 이름을 반복하며 따라하도록 하여 의미를 알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사전을 주로 사용하며 어휘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모르면서 서로 사전의 단어를 찾아 보여주는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5~6개월이 지나면서부

18) 왕한석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터는 어린이 책을 읽게 하고 텔레비전의 뉴스와 드라마를 보게 하고, 라디오 방송도 계속해서 들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은 어린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성인 학습자로서 사전에 사용하여 스스로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화 중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주변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사전에도 없어 생활 현장에서 의미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남편이 한국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주위에 한국어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외국인 화자가 비문법적 표현을 사용한다 해도 청자가 사회 언어적 감각적으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화자는 정확하게 교정이 되지 않은 비문법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외국인의 언어는 표준어 혹은 지방의 방언과도 다른 특수 언어로 구분된다고 해도 타당할 것이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은 그들 언어의 모국어 간섭 현상을 받아 한국어는 각 지방의 방언과 뒤섞여 어순이나 어휘 선택 등 표현방식에서 더욱 복잡한 한국어가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의 한국어 적응방식은 생활 현장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생활 적응 방식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크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생활 적응은 그 가정의 가풍과 직접 연결 되며 남편, 시어머니, 친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사회적응은 이웃과 인간관계, 시장에서 물건사기, 공공기관 활용, 은행 활용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들이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은 국적도 다양하고 결혼 동기도 다양하여 한국생활 적응 방식에서도 다양하다. 중국 조선족 여성 중에는 남편에게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녀평등 사상을 내세워 아내만 남편에게 존칭어를 사용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남녀평등 사상과 한국의 남편과 아내의 언어예절에 대한 왜곡된 문화이해에서 온 문화 충돌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 독특한 생활환경은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 생활적응 방식에도 차이를 갖게 한다.

농촌 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대부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경우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생활 방식을 따라서 하게 된다. 음식 요리나 가정생활 방식은 그 가정의 전통적 관습을 따르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남편이 요리하는 방법이나 가정 살림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주위의 또래 아주머니들에게서 가족관계나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기도 한다. 또한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되고 있다. 요즘은 농촌 상황도 바뀌어 또래 아주머니가 거의 없고 읍 지역에 나가도 친구나 친지를 만나기가 힘들어 거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혼 초기에는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의 한계도 있어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동안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국인 여성인 며느리가 한국어를 익히고 나면 국적을 취득해 가출할 것을 염려하여 한국어를 의도적으로 배우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도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정보 차단과 경계심 속에서 사회적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중에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보고 한국이 잘 살고 살기에 편한 곳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농촌생활 환경이나 결혼 중매업자의 이야기와는 달리 경제력이 없는 남편을 만나서 큰 실망과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자기 나라에서 대학 교육을 받거나 전문직에서 일을 하다 온 여성들에게는 농촌생활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외국 여성 모국의 음식문화에 따라 적응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 여성들은 김치의 매운 맛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 일본 여성들은 일본 음식에 비해 짠 한국음식 적응에 어려움을 표하기도 한다. 몽골 여성들은 해물요리에는 경험이 없어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태국여성은 매운 음식을 잘 먹고 볶음 요리도 잘 적응하고 있다. 각 지방과 가정마다 다른 한국의 음식 문화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적응과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의자생활을 해온 중국 여성들은 방바닥에 앉는 한국의 좌식 문화에 상당한 시일을 거쳐 적응하게 된다. 가족 및 친족들과의 생활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의 나이든 시어머니들은 외국인의 서투른 생활을 이해하기보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식으로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인의 가족관계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과 식구들이나 친척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나 실수를 자주 반복하거나 적응이 잘 안될 때는 부자연스럽게 된다. 특히 한국은 눈치문화가 있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방식은 현장에서 생활하며 적응해 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이 한국생활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과 외국인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웃 주민과 지역사회 사람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요약

-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 근대화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많은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고 농촌은 점점 어려워졌다. 특히 농촌에 남아 힘들게 일하는 농촌 총각들은 결혼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 80년대 이후 한류와 더불어 한국이 동남아 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1995년 한국의 세계화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하게 되면서 국내에 국제화의식이 확산되었다.
- 국내의 사회적인 배경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국가에서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벌일 정도로 적극적이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성행하게 되었다.
- 국제결혼이 성행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도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일반 현황을 보면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722,686명(2007년 5월 현재)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536,627명)보다 34.7%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35.9%(259,805명), 국제결혼 이주민이 12.2%(87,964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6.1%(44,258명)이고, 외국인 중 국적취득자는 7.5%(54,051명)였다.
-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분포 현황을 보면 중국 국적이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 현황은 2003년~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5~19세까지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 총 인구 대비 4~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6년을 기준으로 5~19세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25,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었다.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 급별 재학생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근래 초·중학생은 거의 7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도 48% 크게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 외국인은 각각 28.7%와 29.7%로 전체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58.4%)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64.4%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 서울·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광역도시 및 지자체별 평균 거주 외국인은 약 32,000여 명이었지만 지역에 따라 1~2만 명 정도로 수도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4~5%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부산, 충남, 경남, 경북, 충남, 부산 순이었지만 수도권 지역과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지역은 1~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수만이 거주하고 있었다.
- 다문화 가정 구성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첫째, 1950년대에서 1970년대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한 가정. 둘째,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전문직업인과 한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가정. 셋째,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한 가정. 넷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으로 인해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을 한 가정이었

다.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역사적 배경과 경제발달 및 사회문화 현상과 연계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총 혼인건수는 2006년 한 해 동안 39.7천 건으로 2000년의 12.3천 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2005년의 43.1천 건보다 3.4천 건(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006년 30.2천 건으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보다 3.1% 감소했으며,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 역시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9.5천 건으로 2005년보다 급속히 20.6% 감소하였다. 이것은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 예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 가정 외국 여성들의 한국어 적응은 처음에는 몸짓이나 수신호로 직접의사를 전달하다가 사전을 사용하여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주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정규과정을 거쳐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은 거의 없었다. 특히 남편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 외국인 아내의 한국어 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형편도 못 되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의 한국어 적응방식은 생활 현장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었다.
- 다문화 가정 외국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는 크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가정생활 적응은 그 가정의 가풍과 직접 연결 되며 남편, 시어머니, 친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사회적응은 이웃과 인간관계, 시장에서 물건사기, 공공기관 활용, 은행 활용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 적응하고 있었다.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은 국적도 다양하고 결혼 동기도 다양하여 한국 생활 적응 방식에서도 다양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독특한 생활환경은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 방식에도 차이를 갖게 하였다.

Ⅲ.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방향 및 방송 매체의 활용

1.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

1.1.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의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는 구성원 간의 사회 통합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켰다. 다문화 가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2005년 5월, 외국인 이주여성과 자녀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차별개선을 추진하도록 대통령 지시과제로 지시하였으며, 정부는 지원 대책 마련 회의와 사회 통합 지원 대책을 다방면으로 간구해왔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은 한국어 교육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인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및 이들의 자녀들에게 한국어 능력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본 요건이며 새로운 사회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기본 수단이기도 하다. 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가정생활(남편, 시부모와의 대화), 자녀 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이주 노동자는 직장생활(동료, 상사와의 대화, 작업 성취)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는 농촌 총각의 결혼 대상자로 그리고 3D 업종의 종사자로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국가, 사회는 이들 이주민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국민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국가는 공통의 언어(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로써 국민간의 표준화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단일한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정부가 중대 과제로 삼는 다문화 사회 통합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미래 사회에 다문화 구성원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혜동(200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결혼 이주민 문제는 언어의 문제, 문화적 갈등, 가정폭력, 빈곤의 문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갈등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이민자 초

기 정착 프로그램으로 거주국 오리엔테이션, 취업훈련과 함께 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과 방법이며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학계 차원에서의 의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50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한국어 교육계에 의미 있는 변화들을 수반하였다. 우선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한국어 교육 수요자의 수와 폭을 놀라울 정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대학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은 어학연수생과 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자나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도 NGO 단체 중심으로 전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규모와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체계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의 영역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 하에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 및 관리를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¹⁹⁾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이주민 자녀들을 한국어 교육의 적극적인 학습자 집단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며, 이로써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 집단은 명확하게 확대될 것이다.

둘째, 교육 대상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주체도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 학계의 역할도 변화하였다. 기존의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 교육은 대학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담당한 것과 달리,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정부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대학 교육기관 중 일부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직접적인 주체자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책 수립의 전문가로서 연구 프로젝트 수행자로서 위치하게 된다.²⁰⁾

셋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기존의 한국어 학습자와 학습 목적, 동기가 다르므로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은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었으나 결혼 이주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영원히 한국 사회에 거주하려는 자들로서 한국어를 모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학습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19) <그림 1> 유형별 외국인 주민 통계자료 참조.

20) 이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 교육 학계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야 하며 성인에서 청소년, 아동으로까지 연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 연구 영역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넷째,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증가하고 이들의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과 국내 한국어 교육이 연계선 상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해 주고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을 통해 국외에서 설립되는 세종학당은 국외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국내로 유입될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현지에서의 한국어 학습이 국내 유입 이후에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으로 작용하려면 우선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 한국어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 자료, 교육 내용, 평가 등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 교육 학계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해준다.

2.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지난 2005년~2007년에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교재 연구, 교사 교육, 학습자 교육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연령, 학습 목적, 한국어 사용 환경 등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다수의 결혼 이주여성은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며 한국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 있다. 이와 달리 이주 노동자는 주된 한국어 사용 환경이 직장이며, 한국어를 학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권익을 찾으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은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 자녀(2세)²¹⁾로 나누어서 교육이 실시된다.

21) 다문화 가정 자녀는 첫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이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외국인 근로자 부분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을 말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현황도 학습자 집단²²⁾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2.1. 교재 및 기초 연구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과 다른 생활환경, 언어 사용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습자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교재, 교수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어 교육계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교육 경험과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방면에서의 기초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기초 연구는 다음과 같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 전라북도 임실군(및 순창군, 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2005, 국립국어원)
-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실태 및 한국어 교육 요구 조사(2005, 한국어세계화재단)
-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2006, 교육인적자원부)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문제의 주요 원인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차원의 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조치 연구

22) 다문화 가정 구성원으로서 세 집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	특성
결혼 이주여성	·국적이 다양하며,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음 ·연령은 주로 20대~30대에 분포함 ·75%는 도시(동지역)에 거주하고, 25%는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함¹⁾ ·부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농림어업 종사자(남)의 경우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농어촌의 결혼 가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착함
결혼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가 40만 명에 이름 ·내국인 기피 업종인 단순노동에 종사함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의 국적 소유
자녀(2세)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총 13,445명(2007년 현재) ·국제결혼 자녀 중 초등학교생이 87.4%로 대부분을 차지함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8.0%(11,825명)를 차지함

·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2006, 교육인적자원부)

-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실태, 다문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과서 지도 보완 자료,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 참고자료(상담 기법, 상담 사례 등), 학교생활 안내 리플릿

교재 개발 연구는 기초 연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까지 본 연구를 포함하여 10편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현재 교재로 출판되어 활용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초급),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중급, 고급),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중급),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에 불과하다.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1, 2)(2003, 한국국제노동재단)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²³⁾(초급)(2005, 여성가족부)
-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2006, 교육인적자원부)
-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중급, 고급)(2006, 충청북도 교육청)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2007, 여성가족부)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중급)(2007, 여성가족부)
-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2007, 농림부)
-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재』(1, 2, 3)(2008 예정, 교육인적자원부)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1, 2)(2003, 한국국제노동재단)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재 중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교재 1종,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재²⁴⁾ 1종이 있다. 각각의 교재는 여성가족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등 다양한 부처 주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 교육기관에서 출판한 일반 어학연수생을 위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재의 부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3) 여성가족부 용역사업으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수행함.

24) 이주민 자녀를 위한 교재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재』는 취학전 아동용, 저학년용, 고학년용 3권이 2008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2.2. 교사 자격 및 교육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특히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이므로, 전문적으로 한국어 교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 현장의 교사에 대해 이순애(2007:30)에서 조사한 ‘결혼 이주여성 교육 기관별 교사 현황’을 참조로 살펴보겠다.

<표 25>에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파견한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므로 한국어 교육 전공자 또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자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3개 기관에서도 교사를 선발할 때 전공자와 교원양성과정 수료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절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내에서 기본 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 25〉 결혼 이주여성 교육 기관별 교사 현황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한국이주노동자 복지회
인원		4명	4명	7명	10명
선발기준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강사 중 여성 결 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강사 · 창의적인 교육내용으로 수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강사 · 한국어 수업 외에 생활 상담이 가능한 강사	· 경력자, 한국어 교육 전공자를 우선	· 한국어교원 양 성과정 수료자, 한국어 교육관 련 석사과정	·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 봉사와 여성 결혼 이 민자에 관심 있는 자
성비		여성 100%	여성 100%	여 100%	여성 9명, 남성 1명
직업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강사	사회복지사, 대학원생	직장인, 주부, 대학원생	교사 및 자원 봉사자
연령		20대~40대	평균 30대 초반	20대~50대	20대(1명), 30대(7명), 40대(2명)
교사 교육	기본 교육	없음	교육 목적 이해, 여성 결혼 이민자 이해 등	개강 전 교사 OT	자체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운영 -10주 강의 : 매주 금 요일(14:00~16:00) 진행 -3개월간 참관 수업
	재 교육	없음	평가회를 포함한 자체 보수교육	학기 중 전문성 강화 교육(강의)	없음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그 동안 관련 부처나 교육 실시 기관을 중심으로 교사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교사 교육을 지원해 왔다.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보급 사업을 2004년부터 진행해 왔는데, 그 사업의 일부로 결혼 이주여성, 이주 노동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사 교육도 담당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⁵⁾

- 연수 과정 시간: 30시간 과정(필수 교수 항목 10과목 × 3시간)
60시간 과정
- 교육 방법: 교과 교육과 교재 사용의 예시
- 연수 운영 사례²⁶⁾
 - 이주여성인권센터 자원봉사자 한국어 교사 교육 (2006년 2월)
 - 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한국어 교사 교육 (2006년 3월)
 - 중국 진출 예정인 직업 교육생 30명 교육 (2006년 3월)
 - 연동가나외국인학교 이주여성지원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2006년 4월)
 - 인천 시청 이주여성 센터 교사 20명 교육 (2006년 5월)
 - 이주민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한국어 교사 교육 실시 (서울, 경기, 영남, 충청, 부산, 경북) (2006년 10월)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사 교육은 30시간, 60시간으로 구성하여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달리 실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위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주민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대학에서 실시한 교육인데 <표 26>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알 수 있다.

<표 26>의 A는 30시간으로 구성한 기관의 예이며, B는 60시간으로 구성한 기관의 예이다. 교과목은 주로 한국어 이론, 한국어 교수 이론, 한국 문화, 이주여성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C는 A, B와 달리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제작한 예이다.

A와 B는 모두 이주민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대학으로서 교육을 담당하지만 60시간의 교육 내용이 30시간의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어떤 교과목이 심화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또한 전체 교육 시간 중 한국어 교수 이론, 한국 문화 등

25) 조선경(2006:55-65) 참조.

26) 사례 중 60시간으로 운영한 것은 이주민한국어교육 네트워크 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실시한 교육뿐이다. 그 밖의 교육은 3시간~30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표 26〉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사 교육의 교과목 구성

교 과 목		
A 기관(30시간)	B 기관(60시간)	C 기관(40시간)
한국 이민자 현황과 한국어 교육 한글 자모 교육 한국어 문법 교수법 한국어 말하기·듣기 교수법 한국어 읽기·쓰기 교수법 한국 문화 교육 이주민 상담 교육 이주민 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교재 구성 및 사용법	한국어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한국어 필수 어휘(1,000개) 한국어 필수 문형(10개) 문자와 발음 교육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듣기 교육론 읽기 교수법 문법 교수법 대화의 기법(비폭력대화) 한국의 사회의 이해 이주민과 다문화 사회의 이해 이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방안 이주민 한국어교실 운영 길라잡이 이주민 생활 정보 가이드 과제의 유형과 체크 교재 사용의 실례	문화의 충돌과 갈등의 이해(2) ²⁷⁾ 이주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2) 이주민의 현황과 대책(2) 이주민 교육을 위한 한국 사회의 이해 1(2) 이주민 교육을 위한 한국 사회의 이해 2(2)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교수법(2) 한국어 발음교육 1(2) 한국어 발음교육 2(2) 요소 교육론1(어휘)(2) 요소 교육론2(문법)(2) 기능 교육론 1(읽기, 쓰기)(2) 기능 교육론 2(말하기, 듣기)(2) 한국어 교육용 부교재 제작 및 활용법(2) 한국 문화 교육론(2) 대조언어학(2) 한국어수업의 실제1~5(10)

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도 파악하기도 어렵다. 물론 이와 다른 방법으로 구성한 C의 경우는 A, B와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 대상의 교육은 이 외에도 교육이 일회성 그치고 연속적으로 심화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교육용 교재가 개발되지 않아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따라 교육 내용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 일반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의 교육 내용과 유사하여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결국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이 실시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3. 교육 실시

(1) 결혼 이주여성 교육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공동 교육과정이나 공동 교재, 의무 교육이 없이 교육 실시 기관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된다. 교육 실시에는 문화관광부, 여성

27) 괄호 안의 수는 시간 수를 나타냄.

가족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등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종교단체도 위탁 형식, 또는 자체 운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교육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주관의 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21개의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인 운영기관(기초자치단체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방문화원, 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활동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확대하여 전국 40여개의 센터를 운영하였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²⁸⁾

- 사업 내용: 교육 사업은 한국어, 문화, 가족, 정보화, 직업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한국어 분야는 ‘한국어교실, 한국어 가정방문 교육, 한국어 모듬 교육, 한국어 초급, 한국어 중급’이 있다.
- 교육 형태: 방문 교육(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사, 보조교사, 자원봉사자 파견) 집합 교육(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나 국적별로 구분)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지역별 분포, 운영 방식 등은 <표 27>과 같다.

〈표 27〉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현황

번호	시/도	지역	센터구분 직영/위탁	개소일	모기관명
1	서울	성북구	위탁		결혼이민자지원연대서울센터
2		영등포구	위탁	2007.03.01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3		동대문구	위탁	2006.07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4	부산	남구	직영	2006.04.06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5		사상구	직영	2006.10.18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6	대구	대구시 (남구)	위탁	2006.06.09	불교사회복지회
7		달서구	위탁	2007.04.04	(학교법인)계명대학교
8	인천	인천시 (남구)	직영	2006.10.16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9		강화군	위탁	2007.04.05	(재)천주교 인천교구 유지재단

28) 여성가족부(2006b) 참조.

번호	시/도	지역	센터구분 직영/위탁	개소일	모기관명
10	광주	광주시 (서구)	직영	2006.04.17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11	대전	대전시 (중구)	위탁	2006.10.17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12	울산	울산시 (남구)	위탁	2006.03.28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3	경기	수원시	위탁	2007.01.01	(재)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14		부천시	위탁	2006.08.01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15		안성시	위탁	2007.01.01	안성종합사회복지관
16		남양주시	직영	2007.02.07	남양주시청
17	강원	원주시	위탁	2006	명륜종합사회복지관
18		춘천시	직영	2006.12.14	홀트아동복지회강원아동상담소
19		강릉시	위탁	2007.03.14	강릉문화원
20	충북	청주시	위탁	2006.03	(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21		옥천군	위탁	2007.02.26	옥천한국어학당
22	충남	아산시	직영	2007.7.20	아산시청
23		공주시	위탁	2007.04.03	공주시독교종합사회복지관
24		금산군	위탁	2007.01.25	금산문화원
25	전북	익산시	위탁	2006.05.25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6		장수군	위탁	2006.05.12	(사)호남사회연구회 논실마을사람들
27		김제시	위탁	2007.01.02	김제이주여성쉼터
28	전남	도	직영	2007.02	전라남도
29		순천시	위탁	2007.04.17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30		나주시	위탁	2007.02	(사)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전남센터
31		영암군	직영	2006.04	영암이주여성센터
32	경북	도	위탁	2007.5.16	건동대학교
33		구미시	위탁	2006.04.01	아름다운가정만들기
34		예천군	직영	2006.07	예천군청
35		포항시	직영	2007.04.02	포항 여성문화회관
36		문경시	직영	2007.04	문경시 여성회관
37		진주시	위탁	2006.09.13	진주 YWCA
38	경남	김해시	위탁	2006.05.24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39		도	위탁	2007	창원대학교
40	제주	제주시	위탁	2007.5.18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농림부도 요리강습, 문화교육, 생활예절 등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방문 교육 도우미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⁹⁾

- 실시 지역: 전국 30개의 시군(2007년 시범실시 지역)
- 지원 규모: 도우미 290명이 878가구를 방문함 (1인이 3가정을 담당함)
- 도우미 운영 횟수: 한 가정 당 66시간 지원(주 3회× 5개월)
 주 3회 중 2회는 방문 교육, 1회는 소그룹 교육
- 도우미 모집 및 교육: 지역 자원봉사자, 퇴직 교사, 공무원, 농협 직원 및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모집하여 한국어 교수법, 상담 및 면접 기법 등 기본 교육을 마친 후에 활동 시작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지역 사회단체의 한국어 교실을 지원하였다.³⁰⁾ 그리고 국립국어원은 2006년 5월 EBS와 MOU를 체결하고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송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6월에 EBS 플러스 2를 통해 16주 과정으로 한국어 기초회화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를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방송하였다. 이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25주간 한국어 중급과정을 방송한다. 한국어 중급과정은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의 3개 국어로 방송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2002년부터 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2005년부터 교실 한국어 교육(초급, 중급, 고급)을 실시하고 있다.

(2) 이주 노동자 교육³¹⁾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는 약 4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약 19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1년의 연수 기간을 거친

29) 2007년 10월에 제출한 국감 요구 자료를 참조했다. 2008년에는 농림부 한국어 방문 교육 도우미 지원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통합될 계획이다.

30) 조선경(2006: 57)에 의하면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서울, 인천, 부평, 남양주, 부산, 대구, 인천, 부천 등의 지역 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 강사를 파견하였다.

31) 이주 노동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항록(2007, 53~55)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후 연수 취업자격을 획득하여 2년 동안 노동자로 체류하는 경우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로 들어와 체류하는 경우로 나뉜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든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든 이주 노동자는 입국 전과 입국 후에 총 3번의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첫 번째는 현지에서 받는 한국어 교육이다.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연수 자격을 취득한 후, 취업 전 연수과정을 현지에서 받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경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한국어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 두 번째는 국내 적응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그 과정에 포함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예에 해당하는 입국 전후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이주 노동자의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구분	산업연수생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노동자
입국 전 현지 한국어 교육	사전 취업교육(150시간) 중 80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음 -한글입문(10시간) -하루생활(물건 사기, 식당, 은행과 우체국, 전화, 교통, 병원과 약국 등)(60시간) -인사와 자기소개(10시간)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사설 교육기관 또는 대학 부설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한국어를 학습함 · 사전 취업 교육에 약 15시간의 한국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입국 후 취업교육	2박 3일의 국내 취업 교육 과정 중 3-4시간 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음	산업연수생과 유사함

세 번째 예에 해당하는 국내 입국 후의 개별적인 한국어 학습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정부기관으로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이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해 경기도 시흥, 안산,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강사를 파견하여 지역 단체의 한국어교실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로서는 최초의 기관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이주 노동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의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²⁾

〈표 29〉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어교실 교육과정

항목	내용
교육기간	2학기제(1학기는 22주)
수업 시간	매주 일요일 2시간씩
단계/과정	기초반 - 태국반, 몽골반, 인도네시아반, 베트남반, 영어권반, 미얀마반 초급반 - 초급 1/ 초급 2 중급반 - 중급 1/ 중급 2 고급반 - 고급 1/ 고급 2 특별반 / 시험대비반
교재	자체 개발 교재(기초반), 『말이 트이는 한국어』
학급 인원	6 ~ 30명
기타	270여 명 수강(2006년 현재)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 한국어교육 전공자를 중심으로 교사 채용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중 2005년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기간: 1차 - 16주, 12개 반 운영
2차 - 16주 12개 반 운영
- 교육 지역: 서울 5곳, 경기 3곳, 인천 2곳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교육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용 교실이 없어 식당이나 기타 장소를 교실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모국어 설명이 첨가된 맞춤 교재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전문 교사가 있고, 교사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교재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겠지만 교사도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주 1-2회 근무처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32) 김혜원(2006:69-75)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3) 다문화 가정 2세 교육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언어 발달이 미숙하여 독해력, 어휘력, 작문 능력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어 습득이 늦어지면서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편견과 차별,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2006)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에는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아이들이 17.6%라고 한다. 따돌림을 당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34.1%),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20.7%), ‘특별한 이유 없이’(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13.4%) 등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13,445명의 자녀 중 00%인 11,444명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이들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2세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다음과 같이 펼쳐지고 있다.

- 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KSL), 방과후학교 운영
 - 한국문화 이해 체험활동 운영
 -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 교원 연수에 다문화 이해 교육, 따돌림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권장함
 -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 참고 자료 제작 및 배포
 - 교사 대상 한국어(KSL) 및 한국문화 교육 연수 활성화
 - ‘다문화 교육 교사 연수센터’ 설치, 운영
- 기타
 -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다언어로 제작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 지원

이상의 내용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하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 부모 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권장하기 위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거나 다문화교육 센터 설립을 통해 자녀 교육 연구 및 교사 연수의 체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 연구센터’를 중앙 다문화교육 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교육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2007년 6월) 또한 시도 다문화교육 센터들로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교육 사업은 자원봉사자 교육, 취학전 유아 어학교육,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자국어 습득 교육, 저개발국 외국인의 자국민 언어교육 등이다.³³⁾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들이 단체 또는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통합, 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한국어반(KSL) 운영 등이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대 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체계 정립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덧붙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이주 여성이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출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등학교 취학 이전부터 취학 이후, 대학 졸업 이후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개선 방향

3.1.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방안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짧은 기간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 내용, 교육 자료, 교육 방법 등 교육의 내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해 볼 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33) 교육인적자원부(2007) 참조.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표준 교육과정의 수립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은 기본이 되는 표준 교육과정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습자의 환경, 학습 목적 등이 다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으나 결혼 이주여성 등의 학습자에게 권장하는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필수 학습 단계는 무엇이며, 정부는 어느 단계까지의 학습을 권장하고 의무화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채외동포신문 2008년 1월 3일자에 의하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는 국제 결혼 이주민의 국적 취득 방법을 포함한 사회 통합 정책을 2009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이주민의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 통합 교육 이수제를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적으로 30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는 사회 통합 교육 이수제는 한국어 교육 600시간, 한국 문화 이해 교육 30시간 등 총 630시간을 교육 받은 후 수수료증을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 통합 교육 이수제는 표준 교육과정이 정비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교육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정례이나, 현 상황에서는 사회 통합 이수제가 실시됨으로써 거꾸로 표준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표준 교육 자료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람직한 표준교육과정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문 연구기관이 교육 연구, 교육 자료 개발, 교사 교육 등을 담당

다문화 가정의 정책 추진이 범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와 교육도 여성가족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관여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기초 연구, 교재 개발 등) 및 교육 실시, 교사 양성이 일관성을 갖고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립국어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사 교육 등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자료 개발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문 연구 기관은 연구를 총괄하고, 결과물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3) 전문 교사 양성 및 활용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현재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해결책으로 각 단체에서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교육과정, 교육 자료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종합적·장기적인 대책을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사 교육은 인증, 채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2.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방안

(1) 장기적, 체계적인 정책 수립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 직면한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역할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서간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연구, 정책 수행을 정부의 각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함께 관여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 과제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5~2007년까지 매우 짧은 기간에 정부가 거시적인 계획이나 부처별 역할 분담이 없이 부처,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한 데서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업무 분담을 이루어져야 하며,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³⁴⁾

(2)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설계되었다고 해도 학습자가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교육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교육 이후에 이주여성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가족들의 거부감이 크므로 이탈 가능성이 최소화 되어야 가족의 협조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부

34) 부처 간의 사업 중복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며, 점차 분담되고 있다. 한 예로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국감요구(결혼 이민자) 자료 '국제결혼 관련 통계 및 사업 추진 현황'에 의하면 여성부와 농림부의 중복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조정방안(2007년 3월)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담하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송 매체 이용 방법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교육 및 지원은 언어와 문화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도 국내에 유입 전, 유입 초기(정착 초기), 유입 후의 장기간으로 분리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혼 이주여성, 근로자 이외에도 학교 교육을 통해 2세 교육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국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효율적, 체계적인 교육 실시 시스템 구축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서 장기체류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수십 년을 생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학습을 단순히 사회 적응을 위한 수단이나 문화 학습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연속적인 교육, 교수법이 부재한 교육과정, 원리와 원칙이 부재한 언어문화 통합교육 등의 접근은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집합 교육, 방송 교육,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등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시스템을 점검,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에서 방송 매체의 활용

4.1. 방송 매체 활용의 필요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집합 교육, 방송 교육, 온라인 교육, 방문 교육 등으로 실시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은 대부분 집합 교육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도시와 농촌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생활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집합 교육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농림부 등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방문 교육은

학습자의 상황, 한국어 능력에 맞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므로 정해진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며 시간과 공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컴퓨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 활용 방법에 미숙하여 컴퓨터 사용 방법을 먼저 학습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므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부담 없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또한 집합 교육이나 방문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닌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대다수는 한 가지 교육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고 자유롭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는 주 1~2회 집합 교육에 참여하면서 교육 방송으로 독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여 정기적인 교육이 어려운 학습자는 교육 방송으로 독습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주 1회 정도 집합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양화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사가 다양한 학습자 모국어를 구사하기는 쉽지 않으며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비전문 교사이므로 한국어 설명만으로 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 모국어를 고려하여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학습자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2. 방송 매체 활용의 기대 효과

구체적으로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므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부담 없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그 결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참여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교육 방송 자료는 DVD 형태로 집합 교육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 교육과 집합 교육이 교육 내용, 교수법 등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육 방송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현장 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수 방법을 안내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초기 한국어 학습의 지루함을 덜어주며, 학습 동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언어권 별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는 쉽고 정확하게 한국어를 학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Ⅳ.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1. 방송 매체를 이용한 언어 교육 이론

1.1. 방송 매체를 이용한 언어 교육의 특성

교육 방송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교육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⁵⁾ 최근 교육의 중요한 형태로 부상한 원격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 매체는 대중화된 원격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 매체가 가진 대량성, 동시성, 공공성 등의 특징이 교육 인구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³⁶⁾

시청각 매체인 텔레비전을 통해 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방송 매체가 갖는 교육적 특성 중에서도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과 관계없이 대량의 교육이 가능하다. TV 수상기의 보급으로 도시, 시골, 산간오지까지 시청이 가능하며 누구나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직접 가서 배우기 힘든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텔레비전은 매우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이다. 이는 인쇄 매체가 가진 지면의 한정, 구입의 한계 등을 극복하게 해 주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야 하는 집합 교육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텔레비전 방송은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현실감 있는 내용을 동영상,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 자료로 제작하여 전달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 영상 화면에 정확하게 발화하는 한국어

35) 유태영 외(1988:15)에서는 교육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교육 방송이란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통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6) 일반적인 방송 매체의 특성으로 대량성, 속보성, 동시성, 비문자성, 시간성, 공공성의 특징과 정시성, 획일성, 일방 통신, 순간성, 기계적 장애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유태영 외 1988: 24-26). 정인성 외(2004:197-205)에서는 방송 매체의 특성으로 대량성, 속보성, 동시성, 비문자성, 공공성, 시간성의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화자가 등장할 경우, 학습자가 발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비언어적 행위까지 볼 수 있어 들은 말의 적절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쉬워진다.

셋째,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제공하기 용이하다.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이란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공간, 시간의 흐름, 맥락 등이 전제되는 것인데, 인쇄 매체를 통해 그러한 담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TV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근 언어 교육에서 강조되는 실제적(Authentic) 자료의 사용이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지식,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에 따라 실제 언어 교실과 유사한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언어 교사가 주 진행자가 되고, 외국인 학습자가 보조 진행자로 출연하는 경우, 시청자가 출연한 외국인 학습자에 대해 동질감을 느껴 동료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주 진행자인 교사와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실 상황과 유사한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시청자가 교실 학습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³⁷⁾

다섯째, 방송의 오락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방송에 TV 고유의 오락적 기능인 노래, 춤, 연기 등을 가미한다면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며 주의를 집중해 공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 중에도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방송의 오락 기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언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중파 텔레비전은 일방향 통신 수단이므로 학습자를 소극적,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언어 교실에서는 가능한 한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격려하지만, 방송의 일방향성은 학습자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학습자가 가만히 앉아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 받고, 학습의 선택권 또는 통제권을 가질 수 없어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되거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가

37) 한편으로는 교실 수업에서 느끼게 되는 실수에 대한 부담, 동료와의 경쟁으로 인한 압박 등을 피할 수 있어 실수를 두려워하는 학습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능성이 있다.

둘째, 방송 매체는 대량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청자들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언어 교육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 목표를 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데,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의 교육이라는 취지만을 고려하여 내용을 설계할 경우 학습의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셋째,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국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에만 방영된다. 따라서 편성 시간대가 학습자가 시청하기에 불편한 경우, 정해진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시청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방영 시간 안내, 비디오테이프 판매, VOD 제공 등의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방송 프로그램은 입말의 제약인 순간성을 갖는다. 인쇄 매체는 독해하는 데 시간에 따른 제약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전체 맥락을 보거나 관련 부분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간성을 갖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쇄된 방송 교재의 제작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도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학습자의 정서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같은 내용을 시청하는 같은 수준의 학습자 간에도 인간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습자의 반응과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반응,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방송을 통한 언어 교육은 대량의 교육이 가능하고,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제공하며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교실과 유사한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고 방송의 오락적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방향 통신 수단으로 획일적 전달만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일정한 시간에만 반영되며 입말의 제약인 순간성을 갖는다는 점,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언어 교육에서는 방송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2.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대중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은 원격교육에서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매체로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매체의 유형 면에서, 프로그램 제작의 방식 면에서 크게 변화해 왔다. 여기에서는 현재 원격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의 형태,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크게 공중파, 케이블 텔레비전, VOD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중파는 주 텔레비전 방송국에 송출된 신호를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수신한 후 다시 가정의 개별 안테나에 송출하는 형태를 취하는 전형적인 텔레비전 방송 형태이다. 케이블 텔레비전은 컴퓨터와 결합하거나 디지털 케이블 기능으로 변환될 경우 쌍방향의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교육의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임철일 2003:84~87). 교육 방송의 홈페이지를 통해 VOD(Video on Demand)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방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방영되는 방송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점차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우선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 갖는 교수 학습의 역할과 관련하여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유태영 외 1988:33~34). 첫째, 방송 프로그램이 학습 시간 전체 구조 속의 일부로서 교사의 설명을 보충하거나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 둘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학급 교사에게 새로운 교재와 풍부한 실례,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 셋째, 일정 시간 수업의 전부를 방송에 의존하여 시청자가 다른 도움 없이 방송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하는 직접 교수, 넷째,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맡아 재조직하여 그 교과목의 학습을 전적으로 구성하는 일관된 전체 수업이다. 이 중에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은 시청자가 방송을 중심으로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 교수 유형, 교육과정 전체를 조직하여 일관된 전체 수업을 구성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본 연구의 주제인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만으로 독자적인 학습이 가능해야 하며, 기초 단계에서 최종 목표 단계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해 일관된 전체 수업의 구조를 갖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³⁸⁾ 하지만 그러한

유형으로 개발된 방송 프로그램이면서도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집합 교육을 보조하는 수단,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부대 효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방식 면에서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I.K.Tyler(1965)는 프로그램 제공 방식으로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과정을 제공하면서 직접 교육하는 형인 BP(basic presentation)와 교사들이 구하기 어려운 풍부하고 신선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EP(enrich program)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천병기 1993:20 재인용). 일반적으로 전문 교사가 부족한 교육 환경, 학문적 진보나 교수법의 진보가 빠른 분야에서는 EP보다 BP의 유형의 효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성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모두 교육 방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이다(이화여대 교육공학과 2001:172~173). 지금까지 교육 방송은 대부분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접근 방식 면에서 내국인 대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방송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형태에 따라서도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천병기(1993:18~21)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형태를 크게 문제 제시형, 문제 해결형, 내용 해설형, 사례 소개형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문제 제시형은 주로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므로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있다. 둘째, 문제 해결형은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순서에 맞게 영상을 제시한 후 이를 종합, 체계화하여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까지를 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언어 교수법 중에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task)를 수행하게 하는 과제 기반 교수법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내용 해설형은 어떤 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 영상을 제시하면서 해설하는 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동영상상을 기반으로 한 교과 수업에서 활용하는 전형적인 강의식 유형이지만, 언

38)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교육 목표의 명세화,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므로 대상 학습자의 요구와 목표를 반영하여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목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넷째, 사례 소개 형은 어떤 대상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구성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식 구성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은 학습의 역할, 교육과정의 제공 방식, 교육 대상, 프로그램의 활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좋은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대상과 학습 기능, 부대 효과를 고려하여 몇 가지 유형의 유연한 선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된 프로그램 유형은 학습자에게 접근 용이한 다양한 원격 교육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1.3.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방송을 통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육 방송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방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언어 교육 방송의 특징,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를 교육 대상, 교육과정, 교수법, 프로그램 구성, 쌍방향 학습, 학습 지원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 대상

교육 방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명확한 학습자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맞게 조직화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언어 학습에서는 명확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 목표 설정 및 교육 내용의 조직화가 어려워 실제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대상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경계가 뚜렷한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역과 관계없이 대량의 교육이 가능한 방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학습자 집단 간의 변인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 일률적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권, 도시와 농촌 거주, 연령, 학력 등 다양한 변인을 가

지고 있어 모든 변인을 고려하여 제작하게 되면 다양한 특정 학습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혼 이주여성 집단을 모두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방송을 제작할 경우에는 학습자의 주요한 변인 차를 무시하게 되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주요한 변인, 즉 학습자 집단 간의 경계가 뚜렷한 변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결혼 이주여성 집단의 변인 중에서 집단 간의 경계를 가장 뚜렷하게 구별 짓는 변인은 학습자의 모어와 숙달도이므로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대상을 한정하고 한국어 숙달도를 고려하여 등급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모어가 아닌 한국어나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학습의 내용보다 진행 언어가 더 어려워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므로 학습자 언어권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력해진다. 제작의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인구 비중이 높고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한 다수의 학습자 언어권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교육과정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여성 집단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 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 시리즈의 누적 학습이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효과를 갖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전체를 마치 일관된 전체 수업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전에 대상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맞도록 교육 목표를 명세화하고 교수요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결혼 이주여성 초급 학습자가 교육 대상이라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사소통 상황,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언어 기능을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하여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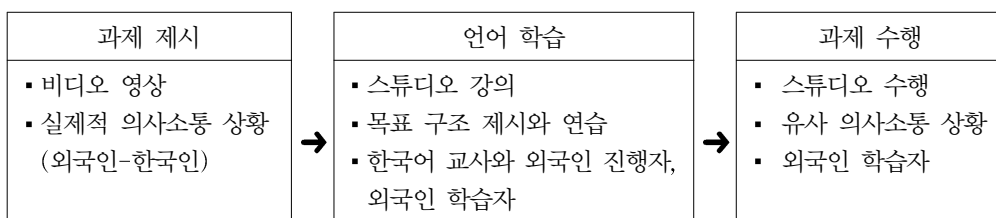
다만 학습자가 방송 프로그램만으로도 독자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면 상당한 분량의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기본 과정을 제공하면서 직접 교육하는 BP(basic presentation) 형의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 교수법

최근 언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교수법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

상에 초점을 맞추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목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구조 중심으로 설정된 목표 예문을 듣고 따라하게 하는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 진행자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주로 해당 외국어 사용자 또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많은 목표 문법과 어휘를 학습자의 모어로 번역하여 교수하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청각 구두식 교수법과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무조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습자의 요구, 학습의 목표가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실제적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방송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결혼 이주여성이 부딪히기 쉬운 초급의 의사소통 상황 과제를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 주고, 스튜디오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과 목표 언어를 학습한 후, 외국인 학습자가 직접 유사한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해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문법 등의 언어 학습을 고려하면서도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단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한국어로 의사소통 상황 과제를 설명하거나 목표 언어를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의 팀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학습자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출연시켜 언어를 학습하고 과제를 수행해 보게 함으로써 교실 수업과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접 교수 학습은 시청을 하는

39)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 예문과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절차에서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교실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고, 한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교수 학습의 모델을 제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송 프로그램 구성

방송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시리즈의 누적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교육과정인 것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편의 구성이 형식적 완결성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모든 프로그램은 <도입-전개-마무리>의 기본 구조를 지켜야 하며, 전개 과정에 목표 교수 학습 내용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학습 목표 중심의 수업 진행과 아울러 관련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습 내용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비디오 클립 형식으로 추가한다면, 현실감 있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 구성 시 시청자의 관점에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단순히 제한된 시간 동안 학습 내용을 따라 하는 수동적인 역할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휴지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의 길이, 방영 시간도 시청자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격 교육에서 전형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30분 정도의 길이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며(김재웅 외 2002:114), 그 이상의 주의 집중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쌍방향 학습

언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방송 매체가 갖는 일방향성은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데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쌍방향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쌍방향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우선 고려할 사항은 학습자의 선택권, 학습에 대한 통제권을 존중하는 일이다. 공중파 방송은 일정한 시간에만 방영되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본방송 외에 정기적인 재방영 시간을 미리

계획하여 안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VOD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최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참여하기, 전화 연결하기 코너 등을 두는 것은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방송의 일방향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의 웹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청자 게시판이나 학습 내용 문의 게시판을 마련하여 학습자가 방송 내용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청자가 외국인 초급 학습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설계해야만 학습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한다.

(6) 학습 지원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려면 방송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방송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제약을 받는 순간성을 가지고 있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청자에게 학습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습을 소홀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쇄된 방송 교재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방송 교재를 가지고 예습 또는 복습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스스로 학습의 준비를 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다양한 학습 관리와 지원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 의도, 방영 내용의 요약, 다시 보기, 시청자 게시판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 VOD를 통해 학습자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다면,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학습자의 진도 관리, 질의응답 게시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습 지원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방송 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수의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권, 숙달도를 고려해야 한다.
- 대상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전체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기본 과정을 제공하면서 직접 교육하는 형태로 개발한다.
-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반영한다. 교실 수업과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직접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한 편의 프로그램이 <도입-전개-마무리>의 기본 구조를 가지며, 전개 과정에서 효율적인 교수 학습 모형이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시청자의 주의 집중을 고려하여 30분 정도의 길이로 구성한다.
- 학습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습 내용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쌍방향 학습이 구현 되도록 한다.
- 방송 교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학습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외에 방송 프로그램을 교실 교육의 일부로 활용하려 한다면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⁰⁾ 또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형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있어야 개발된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장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송 형태를 활용하고 학습 관리 시스템 등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관심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언어 전문 교육 이론에 근거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작 과정에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⁴¹⁾

40) 방송 프로그램을 이주 외국인을 위한 언어 수업의 일부로 활용한 효과적인 사례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영어 수업을 참조할 수 있다(박경자 2004:277-278). 주 4일의 Extended Education Distance Learning Program(DLP)가 그것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 중심의 텔레비전 교육을 받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텔레비전 교육을 뒷받침해 주는 교실 수업이 교사에 의해 진행되어 학습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한다.

41) 유태영 외(1988:19)에서도 교육 방송이 효과적인 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교육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계획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2.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 및 시사점

2.1. 프로그램 개발 현황

국내의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은 1995년 EBS TV의 <Let's learn Korean>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EBS PSUS 2의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까지 총 7편이 개발되었다. 해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는 1984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는 일본 NHK의 <한글 강좌 안녕하세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노마 히데키·김진아 2006:97). 그러나 NHK의 <한글 강좌>는 일본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국내의 한국어 교육용 TV 방송 프로그램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의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현황을 각각 최초 방송이 시작된 연도 기준 순으로 편성 시간대, 1회분 방송 시간, 정규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⁴²⁾

〈표 30〉 국내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현황(편성 시간, 방송 시간, 방송 기간)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진행 언어	편성 시간대	1회분	방송 기간 ⁴³⁾
EBS	Let's learn Korean				1995.9.~1996.3.
아리랑 TV	Let's speak Korean	영어 영어 영어	월~금 07:20/11:50/ 14:20/20:50	10분	1999.4.~1999.9. 2004.1.~2004.7. 2004.7.~2007.10.
KBS WORLD	한국어로 말합시다.	한국어 한국어	월~금 11:45 토~일 21:50	10분	2003.6.~2003.12. 2004.1.~2004.5.
EBS	Hello! 안녕하세요.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월~금 06:00 (PLUS2) 월~금 04:00	10분	2004.8.~2005.2. 2005.2.~2005.4. 2005.4.~2005.8.

42) 2005년 이전의 방송 프로그램은 최은규 외(2005)를 참조하고 현재 웹을 통해 서비스되는 프로그램은 일일이 확인 과정을 거쳤다. 단 EBS의 Let's learn Korean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어 최은규 외(2005)에서 언급된 정보만 제시하였다.

43) 방송 기간은 본 방송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BS <한국말 쉬워요.>는 2007년 9월부터,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는 2007년 11월부터 재방영하였으나, 위의 표에 재방영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다.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진행 언어	편성 시간대	1회분	방송 기간
EBS	한국말 쉬워요.	한국어 한국어	토 06:40	20분	2006.9.~2006.12. 2007.3.~2007.8.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월 06:00 화 06:00 수 06:00 목 06:00 금 06:00	30분	2007.6.~2007.10.
EBS PLUS 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월 06:00 화 06:00 수 06:00	30분	2007.11.~2008.5.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교육 방송인 EBS가 가장 여러 차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편성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방송 기간은 5개월, 6개월, 7개월이 많아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국 전체의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신설, 종영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편성 시간 역시 방송국의 시청률 중심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KBS WORLD의 <한국어로 말합시다>와 아리랑 TV의 <Let's speak Korean>를 제외한 EBS의 모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편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벽 시간대의 편성은 외국인 시청자들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게시판에서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회분의 방송 시간은 매일 방영된 아리랑 TV의 <Let's speak Korean>, KBS WORLD의 <한국어로 말합시다>, EBS의 <Hello! 안녕하세요>는 10분씩이고, 주 1회 편성된 EBS의 <한국말 쉬워요>는 20분, EBS PLUS2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는 각각 30분이 소요된다. EBS PLUS 2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는 학습자 언어권별로 요일을 달리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언어권 학습자 입장에게는 주 1회 편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30분간 방영되지만, 학습 시간 자체는 10분씩 5일 간 진행된 프로그램들에 비해 더 적어지게 된다.

각 프로그램을 이끄는 진행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출연 여부에 대해서도 각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아나운

서, 개그맨, 한국어 교육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에 외국인 학습자가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진행자 한 명 또는 두 명이 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진행자의 특성을 방송인(아나운서, 연예인 등의 전문 방송인 포함), 한국어 교육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해당 언어학 및 외국어 교육 전공자 포함), 외국인으로 나누고, 출연한 학습자의 언어권과 함께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1〉 국내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현황(진행자 특성, 학습자 출연)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진행 언어	진행자 특성	학습자 출연
EBS	Let's learn Korean			
아리랑 TV	Let's speak Korean	영어 영어 영어	방송인(안착희, 지승현) 방송인(Lisa Kelly, Sthphen Revere) 방송인(Lisa Kelly, 김영)	영어권
KBS WORLD	한국어로 말합시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교육(한송화), 방송인(김기만) 한국어 교육(장은아), 방송인(김기만)	영어권, 일본어권
EBS	Hello! 안녕하세요.	한국어, 영어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교육(장은아), 외국인(Richard Harris) 외국인(Beau Jackson), 방송인(최현정) 한국어 교육(장은아), 외국인(Richard Harris)	없음
EBS	한국말 쉬워요.	한국어 한국어	방송인(전양혜), 한국어 교육(이미혜) 외 방송인(이동우)	일본어권, 러시아어권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외국인(호티롱안) 외국어전문가(정환승) 외국어전문가(고영훈) 외국인(자르갈마) 외국어전문가(이성민)	없음
EBS PLUS 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외국인(왕단) 외국인(호티롱안) 외국인(타찌야나 리)	없음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진행을 원만하게 이끄는 역할을 하는 한편, 시청하는 학습자에게 언어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진행자가 더 효과적인지 사전 요구 조사 및 사후 평가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습자의 출연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역할 모델이 되면서 동료 의식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분석 틀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분석 기준 및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분석 기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자체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어에 비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훨씬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영어 교육 분야에서도 방송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한 분석 틀에 의해 분석한 사례가 많지 않다. 관련 연구로서 분석 기준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지선(2002)에서는 TV 교육 방송 모니터 점검표로 다섯 가지 영역-시간 측면, 외형 측면, 내용 측면, 쌍방향 측면, 출연 교사 진행 측면-에 대해 분석 항목을 제시한 바 있고,⁴⁴⁾ TV 방송 영어 프로그램의 분석 척도 개발을 목표로 한李建亥(2001)에서는 교육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척도와 언어 교수 자료 평가 척도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한 최은규 외(2005)에서도 방송적 측면과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분석에 대한 연구로서 방송적 측면과 언어 교육적 측면을 나누어 분석한李建亥(2001), 최은규 외(2005)의 분석 틀을 상위 기준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4) 정지선(2002:42)에서는 TV 교육 방송 교재에 대한 점검표도 제시한 바 있다. 방송 교재 점검표는 여섯 가지 영역, 즉 구입 시 측면, 디자인 측면, 내용 측면, 방송 측면, 영어 교과 측면, 교사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32〉 언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 기준 사례

	李建亥(2001)	최은규 외(2005)
방송적 측면	1. 프로그램의 목표 2. 시청각 매체로서의 일반 사항 3. 방송 매체로서의 일반 사항 4. 프로그램 자료 5. 프로그램 조직과 내용	1. 프로그램의 목표 2. 프로그램의 편성 3. 프로그램의 안내 4.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5. 프로그램의 관리
언어 교육적 측면	1. 교재에 관한 일반적 정보 2. 소재 3. 문화 4. 언어 내용 5. 교수요목 6. 언어 기능 7. 발음	1. 교수요목 및 교수법 2. 언어 기능 3. 언어 내용 4. 진행자 및 교수 언어 5. 문화

위와 같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을 방송적 측면과 언어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게 구분할 경우 정작 두 측면의 결합체인 ‘방송을 통한 교육’에 대해 타당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주제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대상 학습자의 상황, 변인을 고려하였는지, 교육이 쌍방향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분석 기준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점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적 측면’보다는 ‘방송을 통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기준을 활용하고, ‘언어 교육적 측면’보다는 ‘언어 교수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언어 교수 학습 자료의 분석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 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2.2.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미디어 교육의 분석 틀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Bazalgette, C.(1989)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권성호·서윤경 2005:217 재인용).

〈표 33〉 미디어교육 분석 틀(Bazalgette, C. 1989)

분석 기준	분석 내용
미디어 제작자	누가 텍스트를 만드는가? 미디어 제작자는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사상적으로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가? 미디어 제작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미디어 제작자는 어떻게 텍스트를 통제하고 있는가?
미디어 카테고리	미디어(TV, 라디오 등), 표현 방식(다큐멘터리, 광고 등), 장르(과학소설, 드라마 등), 어떤 형식의 텍스트인가? 카테고리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이용 가능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테크놀로지의 차이는 텍스트의 의미에 어떠한 특색을 가져오는가?
미디어의 언어	텍스트가 가진 의미는 대상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음성이나 시각 효과, 어떠한 장면이 설정되어 있는가?
미디어의 대상	누구를 향해 텍스트를 보내고 있는가? 대상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미디어의 현실 구성	미디어 텍스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본 연구 대상에서 미디어는 TV 방송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의 분석 기준 중 일부는 그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두 번째 항목인 ‘미디어 카테고리’는 본 연구 주제의 한정으로 이미 TV 매체, 언어교육용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성을 가지며, 언어 교육용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내부 구성 면에서 장르 및 텍스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각 프로그램의 내부 구성, 즉 ‘미디어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분석 기준을 수정하고 세부 분석 내용 중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내용인 미디어 제작자의 사상, 역할, 텍스트 통제 등에 대한 분석 항목을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제작 의도에 대한 분석 항목을 추가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이 사용된다.

〈표 34〉 수정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분석 기준	분석 내용
미디어 제작자	누가 텍스트를 만드는가? 미디어 제작자는 어떠한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미디어의 구성	어떤 형식의 텍스트(스튜디오 강의, 애니메이션, 비디오클립 등)가 사용되는가? 프로그램은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이용 가능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테크놀로지의 차이는 텍스트의 의미에 어떠한 특색을 가져오는가?
미디어의 언어	텍스트가 가진 의미는 대상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음성이나 시각 효과, 어떠한 장면이 설정되어 있는가?
미디어의 대상	누구를 향해 텍스트를 보내고 있는가? 대상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미디어의 현실 구성	미디어 텍스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2.2.2. 언어 교수 학습 자료 분석 틀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은 언어 교수와 학습을 제공하는 매체로서 일종의 언어 교수 학습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 자료의 분석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상황 분석’, ‘외적 분석’, ‘내적 분석’의 범주를 바탕으로 한 이해영(2001), 황인교(2003) 등의 큰 틀을 활용하되 세부적인 분석 내용 설정에서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분석과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배제하고, 방송용 한국어 교육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항목을 작성하였다.⁴⁵⁾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언어 교수 학습 자료로서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45) 교육 자료, 교재의 분석 기준과 관련하여 분석 범주를 거시적 평가(Macro Evaluation)-외부적 평가(External Evaluation), 미시적 평가(Micro-Evaluation)-내부적 평가(Internal Evaluation)로 나누어 상위 범주를 설정한 McDonough & Show(1993/2003)의 분석 틀도 참조하였다.

〈표 35〉 교수-학습 상황 분석 기준

분석 기준	분석 내용
교사	한국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학습자	학습자의 언어권, 숙달도는 어떠한가? 학습자의 학습 목적은 무엇인가? 학습자가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주요 상황은 어디인가?

〈표 36〉 외적 분석 기준

분석 기준	분석 내용
접근성	학습자가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다른 매체(비디오테이프, 인터넷 VOD 등)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한가?
학습 지원	학습 내용과 관련된 방송 교재 또는 연습 자료를 제공하는가? 학습 관리 체계를 제공하는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있는가?

〈표 37〉 내적 분석 기준

분석 기준	분석 내용
교육 목표	교육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가? 교육 대상이 설정되어 있으며 교육 목표에 대상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가?
교육 원리	교수 학습 설계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어떤 언어 교수법을 바탕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학습 내용	주제 및 소재가 적절한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문법·어휘·발음·화용 등 언어 내용이 적절한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문화 학습 내용이 적절한가? 성·인종·계층에 대한 편견은 없는가?
학습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학습이 고르게 이루어지는가? 특정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었는가?
학습 평가 및 피드백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연습 및 평가가 제공되는가?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이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는가?

2.3.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2.2에서 제시한 분석 틀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EBS의 <한국말 쉬워요>, EBS PLUS 2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총 세 편이다.

〈표 38〉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진행 언어	편성 시간대	1회분	방송 기간
EBS	한국말 쉬워요. ⁴⁶⁾	한국어 한국어	토 06:40	20분	2006.9.~2006.12. 2007.3.~2007.8.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월 06:00 화 06:00 수 06:00 목 06:00 금 06:00	30분	2007.6.~2007.10.
EBS PLUS 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월 06:00 화 06:00 수 06:00	30분	2007.11.~2008.5.

2.3.1. EBS <한국말 쉬워요>

국립국어원과 EBS가 공동 제작한 <한국말 쉬워요>는 국내 최초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전에 개발된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외국인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방송 프

46) EBS <한국말 쉬워요> 2006년 9월~12월 방영분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형식보다는 결혼 이주여성, 연예인 패널 등이 등장한 토크쇼 형식을 띠고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로그그램의 개발은 한국어 교육 방송 역사에서 최초로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1) 미디어 제작자

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방송 프로그램의 끝에 제시된 제작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제작자 및 제작 의도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기획 : EBS
- 제작 : 주몽 (제작지원 :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 제작진
 - 책임 프로듀서 : 김현
 - 진행 : 이동우
- 제작 방향
 -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아시아의 각국에서 이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격 한국어회화 교육 프로그램.
 -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어휘와 용법을 중심으로 방송.
 - 이주여성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거의 구사할 수 없는 인구학적 조사에 의거, 초보적인 단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독특한 문화와 어법을 쉽게 풀이.

이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용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텍스트 개발자에 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제작진으로 명기된 진행자는 코미디언으로서 재치 있는 진행 능력을 발휘하지만, 학습자의 수준과 목표로 설정한 학습 내용의 수준과 관계없이 일반 한국인과 대화하듯이 빠른 속도로 발화하여 초보적인 단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다는 제작 방향과 잘 맞지 않는다. 외국인 학습자로 출연한 일본인 학습자(한국 거주 12년), 러시아인 학습자(한국 거주 3년, 1~10회 출연), 루마니아인 학습자(한국 거주 13년, 11회부터 출연)는 중급 또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이다.



(2) 미디어의 구성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텍스트 형식으로는 크게 스튜디오 강의, 비디오 클립, 자막이 사용된다. 주로 스튜디오 진행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도입 단계에서 목표 상황을 제시하는 비디오클립, 제시와 연습 단계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비디오 클립, 후반부에서 궁금증 사연이라는 비디오 클립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전반에 걸쳐 진행자의 발화, 목표 문장, 외국인의 발화를 시각화하기 위한 자막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 표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구성 단계로 정리하고 단계별 내용을 사용된 텍스트 형식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⁴⁷⁾

47) 프로그램 구성을 자세히 제시하기 위해 2007년 4월 15일에 본 방송이 방영된 '제7회 검은색 바지를 사고 싶어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성	내용
도입	진행자가 인사한 후 학습자를 소개한다.
제시	‘비디오 클립’으로 성우의 설명과 함께 목표 의사소통 상황을 보여준다. 진행자가 목표 상황에 적절한 문장을 알려 주고 학습자들에게 따라하게 한다.
연습	‘비디오 클립’으로 목표 문장을 결혼 이주여성이 잘못 쓴 것을 제시, 수정해 준 후 따라하게 한다. 진행자가 목표 문법의 의미를 설명한 후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법을 사용한 발화를 유도한다. 진행자가 목표 상황과 관련하여 어휘를 확장한다. 응용 표현을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대답 후 따라하게 한다. 진행자가 여러 응용 표현에 대해 학습자 두 사람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한다.
궁금증 사연	‘비디오 클립’으로 결혼 이주여성이 출연하여 궁금한 관용 표현을 읽는다. 스튜디오의 학습자가 의미를 설명한 후 진행자가 부연 설명을 한다.
마무리	화면에 목표 문장, 응용 문장이 제시되며 성우가 읽어 준다. 진행자가 그날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학습 목표와 관련된 게임을 제안한다. 진행자가 그날 배운 문장들을 말하고, 학습자가 따라하며 마무리한다.

(3)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기, 공지사항, 시청자 게시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지사항에서는 주요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 알게 해 준다. 시청자 게시판은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지만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그나마도 대부분 한국인들이 글을 남기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실제 대상인 결혼 이주여성의 참여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VOD 다시 보기 동영상은 5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학습자가 속도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학습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4) 미디어의 언어

목표 언어에 대한 설명은 한국어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수준이 초급인 데 비해 진행자의 발화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발화라고 보기 어렵다. 목표 문법의 형태, 목표

문장 및 응용 문장, 그리고 의미 설명은 자막으로 모두 제공되어 학습자가 들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5) 미디어의 대상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이주여성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거의 구사할 수 없는 인구학적 조사에 의거하여 초보적인 단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초급 수준의 결혼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목표 문법 및 표현을 초급 수준으로 설정한 것에 비해 진행자와 출연한 외국인 학습자의 발화 수준은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상 시청자와 진행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6) 미디어의 현실 구성

도입부의 비디오 클립을 통해 학습 목표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 수 있게 하고, 후반부의 궁금중 사연에서도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을 가족의 상황에서 제시하고 있어, 결혼 이주여성의 현실에 토대를 두고 실제적인 상황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튜디오에서 한국인 진행자가 일본인 학습자, 러시아인 학습자(후반부 루마니아인 학습자)에게 학습자의 나라에 관련된 개별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다문화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만 학습자의 국적이 일본, 러시아, 루마니아 등으로 한정되어 실제로 인구 비중이 증가해 온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결혼 이주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2) 언어 교수 학습 자료 분석 틀

(1) 교수-학습 상황 분석

① 교사

진행자는 한국어가 모어인 방송인(코미디언)으로서 한국어에는 능숙하나 교사의 자격을 갖추지는 않았다. 목표 수준이 초급 단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어휘 선택이나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등 수업을 시청하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학습자

다문화 가정의 초급 결혼 이주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거주지, 언어권 등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한국어 표현 교육을 목표로 하며, 가정, 쇼핑, 교통, 관공서 등 학습자가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2) 외적 분석

① 접근성

방송 편성 시간이 토요일 오전 새벽 6시 40분에 시작되기 때문에 방송을 시청하기 용이하지 않다. 실제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방송 시간의 조정을 원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어 시청자들이 편성 시간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BS 홈페이지(<http://www.ebs.co.kr>)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VOD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 가입 후 무료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송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② 학습 지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방송 교재, 연습 자료 등의 학습 자료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⁴⁸⁾ 또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접속 회원의 진도 관리, 학습 독려 등이 가능한 별도의 학습관리시스템은 없으며,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 홈페이지에 시청자 게시판을 마련해 놓았으나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내적 분석

① 교육 목표

홈페이지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어휘와 용법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48) 아리랑 TV의 <Let's speak korean>의 경우에는 방송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 교재를 출판한 바 있다.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의 설정은 결혼 이주여성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교육 원리

교수 학습 설계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각 강의 도입부에서 목표 상황을 제시한 후 목표 문법을 제시하여 연습하는 진행 방식을 볼 때 주로 상황 중심 교수요목과 문법 중심 교수요목을 위주로 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 학습 진행의 주요 방식은 목표 문장 및 응용 문장을 교사가 먼저 읽고 학습자에게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각 구두식 교수법에 기반을 둔 수업 진행으로 판단된다.

③ 학습 내용

총 26회로 구성된 강의의 목차를 바탕으로 다루어진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초급 학습자가 요구하는 일상생활 중심, 상황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격, 시간, 위치, 일과’와 같은 개념, ‘증상 표현하기, 약속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것도 나타난다.

언어	주제
한국어	가격, 시간, 음식, 위치, 생일, 전화, 쇼핑, 증상, 교통, 날씨, 일과, 계획, 약속, 가족, 운동, 관공서 이용

문법 학습은 주로 초급 수준의 목표 문법을 사용한 문장 단위의 학습을 위주로 하며, 목표 문장에서 사용한 어휘와 관련된 확장을 통해 목표 문장의 응용 표현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의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 진행자가 발음을 지적하여 다시 따라하게 하지만, 체계적인 발음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용 교육이나 문화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궁금증 사연’이라는 비디오클립을 통해 관용 표현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진행자가 외국인 학습자와 나누는 대화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획된 문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학습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활동이 따로 제시되지 않으며, 목표 문장 읽기, 따라하기,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주로 학습자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비디오 클립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이 잘못 쓴 목표 문장을 교정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형태의 정확성에 중점을 둔 활동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쓰기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진행자와 학습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학습 평가 및 피드백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연습은 진행 과정에서 간단히 이루어지지만, 별도의 연습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학습자의 발화가 잘못되었을 경우, 주로 부정확한 발음을 보이는 경우에 진행자가 수정 발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제공된다.

2.3.2.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EBS <한국말 쉬워요>가 최초의 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는 국내 최초로 언어권별로 제작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해 총 다섯 개의 언어권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 기존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1) 미디어 제작자

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방송 프로그램의 끝에 제시된 제작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제작자 및 제작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기획, 제작 : EBS

○ 제작진

- 진행

베트남어편 : 호티롱안 (한국외국어대 한국학 박사과정 재학)

태국어편 : 정환승 (한국외국어대 태국어과 교수)

말레이-인도네시아어편 : 고영훈 (한국외국어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

몽골어편 : 자르갈마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졸업)

러시아어편 :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 노어학 박사)

○ 제작 배경

- 다문화 가정, 한국 체류 국제 노동자 등 한국 사회의 외국인 구성원들이 한국 생활에 하루 빨리 그리고 쉽게 적응하여 조화로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 개 언어권별로 제작된 위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강의, 애니메이션 사용, 칠판 사용 등 기술적인 면에서 유사하지만, 정작 강의의 내용과 진행 방식이 상이하여 각 진행자가 강의 원고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진행자의 유형은 크게 한국학을 전공하였거나 한국어 사용에 능숙한 외국인(몽골어편, 베트남어편)과 학습자의 모어를 외국어로 전공한 교수(태국어편, 말레이·인도네시아어편, 러시아어편)로 구분된다.

(2) 미디어의 구성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텍스트 형식은 주로 스튜디오 강의, 애니메이션(모범 대화), 자막, 판서, 문법 예문 궤도이다. 강의의 구성 방식이 언어권별로 상이하므로 외국어 전문가인 한국인 교수가 진행하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편⁴⁹⁾, 몽골인이 진행하는 몽골어편⁵⁰⁾을 중심으로 각각 프로그램 구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49) EBS PLUS 2에서 2007년 8월 22일에 방영된 말레이-인도네시아어편 '제10강 생일 선물입니다'

50) EBS PLUS 2에서 2007년 8월 29일에 방영된 몽골어편 '제10강 날씨가 좋아요'

〈표 39〉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편 프로그램 구성

구성	내용
도입	강사가 인사한 후 지난 강의 목표 문장을 복습하고 본 강의 목표 문장을 제시한다. 음악과 함께 화면이 전환된다.
회화	남녀가 대화하는 장면을 만화 한 컷을 활용해 제시한다(한글 자막 제공). 대화 문장의 뜻을 해석해 준다(한글 자막 제공). 강사가 판서를 활용해 문장의 어휘를 설명한다. 대화 (1)을 다시 보여 준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음악과 함께 화면이 전환된다.
문법	모국어 기술이 제시된 궤도를 사용해 목표 문장 및 문법과 해당 예문을 설명한다. 음악과 함께 화면이 전환된다.
확인학습	목표 문법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빈칸 채우기 연습을 한다. (외국인 화자가 정답을 발화하는 화면 삽입)
마무리	강사가 강의 내용을 마무리한다.

〈표 40〉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몽골어편 프로그램 구성

구성	내용
도입	강사가 인사한 후 목표 문장을 제시한다(자막 제공). 음악과 함께 화면이 전환된다.
대화 (1)	남녀가 대화하는 장면을 만화 한 컷을 활용해 제시한다(한글 자막 제공).
설명	대화 문장의 뜻풀이 후 사용된 어휘, 문법에 대해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한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대화 (1)을 다시 보여 준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대화 (2)	동일한 남녀가 새로운 대화를 하는 장면의 만화를 제시한다(한글 자막 제공).
설명	대화 문장의 뜻풀이 후 사용된 어휘,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문을 제시한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대화 (2)를 다시 보여 준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대화 (3)	동일한 남녀가 새로운 대화를 하는 장면의 만화를 제시한다(한글 자막 제공).
설명	대화 문장의 뜻풀이 후 사용된 어휘,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문을 제시한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대화 (3)을 다시 보여 준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대화 (4)	동일한 남녀가 새로운 대화를 하는 장면의 만화를 제시한다(한글 자막 제공).
설명	대화 문장의 뜻풀이 후 사용된 어휘,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문을 제시한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대화 (4)를 다시 보여 준다(한글, 몽골어 자막 제공). 음악과 함께 화면이 전환된다.
마무리	강사가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를 안내한다.

(3)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EBS 홈페이지에서 VOD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EBS가 운영하는 외국어 학습사이트 EBSlang(www.ebslang.co.kr)을 통해 언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VOD 다시 보기 동영상은 5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학습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EBSlang의 맛보기 강의(영어, 중국어, 일본어 포함 8개 언어)는 별도의 웹 콘텐츠 디자인과 함께 게시판, 진도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2007년 8월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게시판 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웹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학습 메뉴, 조절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학습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미디어의 언어

한국어 강의를 위해 요일별로 각각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표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목표 언어를 설명하는 언어는 학습자의 모어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각 강의는 한국어 모범 대화문을 바탕으로 번역을 제공하며, 목표 어휘와 문법을 추출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표 대화문 도입 시에 한 컷 삽화와 음성, 자막이 활용되고 있다.

(5) 미디어의 대상

제작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 및 한국 체류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한 것이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요일별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각각 초급 수준의 베트남어권, 태국어권, 말레이-인도네시아어권, 몽골어권, 러시아어권 외국인이다.

(6) 미디어의 현실 구성

이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따로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어 현실 구성에 대한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 강사가 진행하는 경우와 외국인 강사가 진행하는 경우에 문화적 소재를 활용하는 차이가 나타나, 진행자의 현실 인식이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⁵¹⁾

2) 언어 교수 학습 자료 분석 틀

(1) 교수-학습 상황 분석

① 교사

몽골어,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한국어에 능숙하거나 한국학을 전공한 몽골인, 베트남인이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어가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발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전문가로서의 자격,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국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경우는 해당 언어를 전공한 한국인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언어 전문가, 교수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외국어 전공자로서 한국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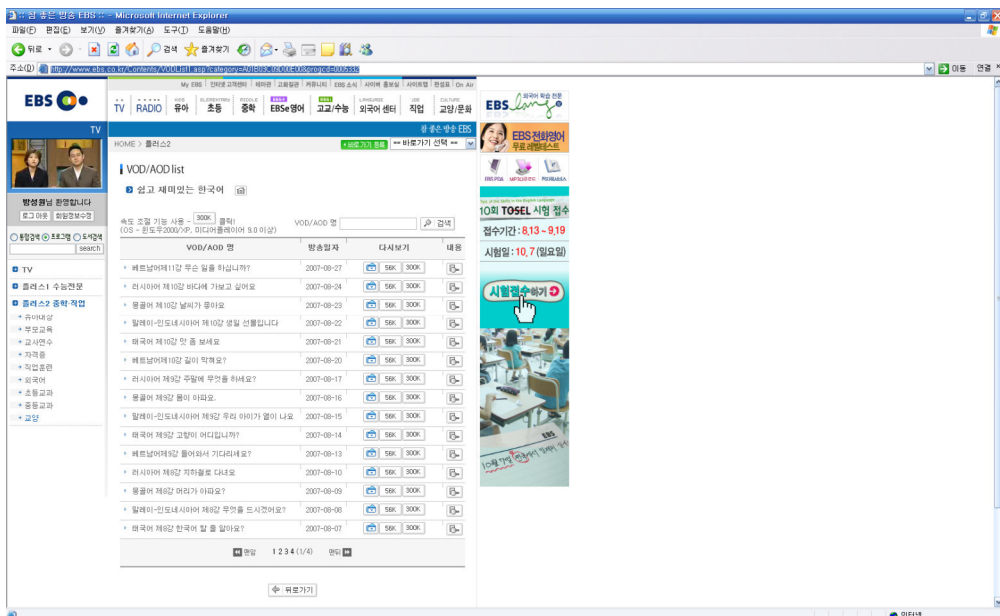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러시아어권 초급 학습자로서, 국내 거주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요 학습자이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학습 목적, 한국어가 필요한 주요 상황이 특별히 교육 내용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외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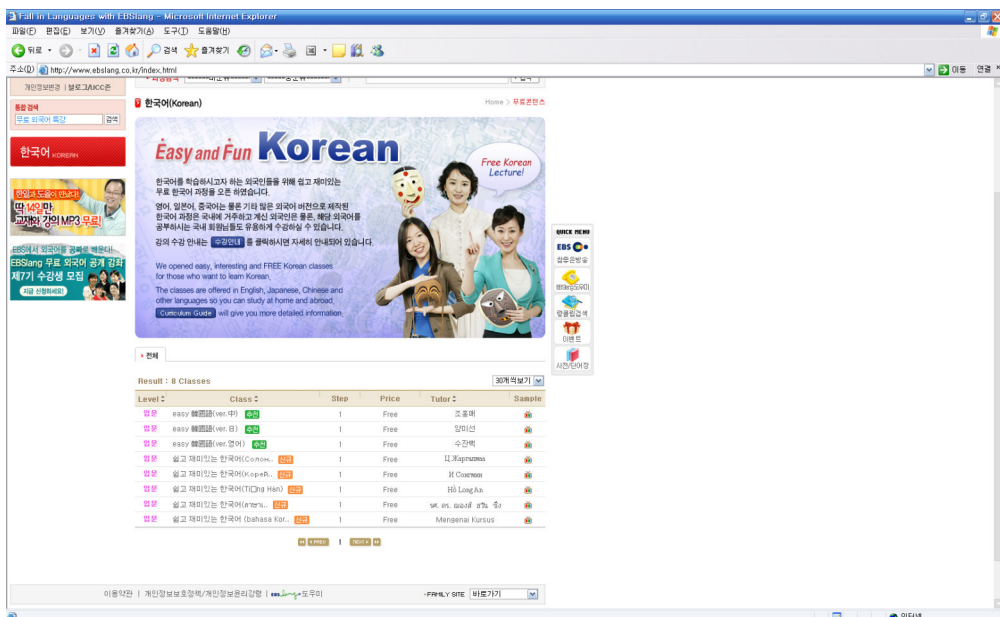
① 접근성

방송의 경우, 방송 채널이 케이블 방송인 EBS PLUS 2로 한정되어 있고, 편성 시간이 새벽 6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EBS 홈페이지(<http://www.ebs.co.kr>)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VOD를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 있으며, 회원 가입 후 무료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있다.

51) 예를 들어 문법이나 어휘에 관한 예문을 제시할 때 한국인 강사가 ‘만두를 만들 줄 알아요.’와 같이 한국 소재를 많이 활용한다면, 몽골인 강사의 경우 ‘몽골에는 나담 축제가 있어요.’와 같이 학습자 나라의 문화 소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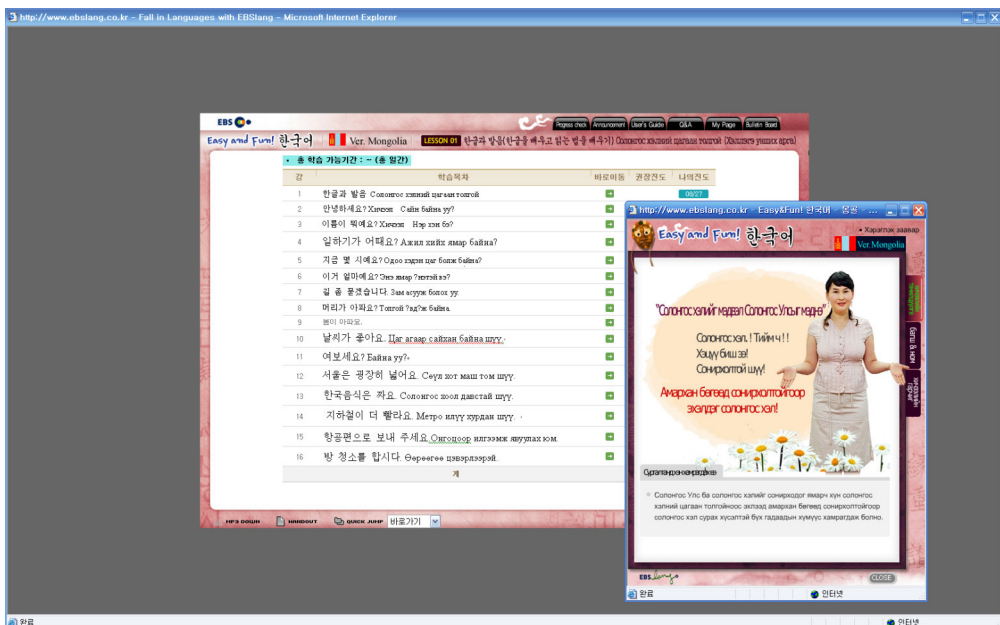


또한 EBS lang(www.ebslang.co.kr)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도 제공하고 있다(영어, 중국어, 일본어 포함 8개 언어). 그러나 맛보기 강의만 제공하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실제적인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학습 지원

학습 내용과 관련된 교재나 연습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EBS lang(www.ebslang.co.kr)의 온라인 콘텐츠에서는 수강 안내, 학습 관리(자기 진도 확인 등), Q&A, 게시판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의 참여를 돕는 지원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강 안내가 학습자 언어로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학습 관리 기능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며 게시판도 이용이 저조하여 실제적인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 지원 기능을 마련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내적 분석

① 교육 목표

제작 배경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듯이 이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그리고 쉽게 적응하여 조화로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실제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요구를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

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 학습자들의 강한 요구를 교육 목표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⁵²⁾.

② 교육 원리

교수 학습 설계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습자의 모국어로 목표 대화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대화문에서 사용된 어휘, 문법의 의미를 제시한 후 예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주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기반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학습 내용

각각 16강으로 구성된 언어권별 강의 목차를 바탕으로 하여 다루어진 주제, 소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초급 학습자가 요구하는 일상생활 관련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사소통 기능 중심으로 설계되어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언어	주제
베트남어	인사, 한국어, 주말, 요일, 물건 구입, 좋아하는 것, 증상, 모임, 만남, 교통, 직업, 음식, 날씨, 한복
태국어	한글, 문장 구조, 인사, 찬성, 반대, 감사, 사과, 한국어, 고향, 음식, 날씨, 요일, 자기소개, 권유, 전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	한글, 인사, 자기소개, 질문, 전화, 시간, 식사, 증상, 생일, 물건구입, 은행, 조언, 취미, 이유, 김치
몽골어	한글, 인사, 자기소개, 공부, 음식, 가격, 교통, 방문, 영화, 날씨, 전화, 위치, 이유, 관광, 음식
러시아어	인사, 사람, 사물, 좋아하는 것, 시간, 질문, 시장, 교통, 주말, 여행, 전화, 증상, 음식, 쇼핑, 명절

프로그램마다 전반적으로 어휘와 문법 학습이 강조되고 있고 발음과 담화 층위의 연

52) 김일란(2007:56)의 요구 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한국생활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50.4%)이다.

어 학습은 매우 부족하다.⁵³⁾ 또한 문화 학습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④ 학습 활동

대화문을 바탕으로 한 어휘와 문법 학습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네 가지 언어기능 향상을 위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기 능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⁵⁴⁾

⑤ 학습 평가 및 피드백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간단한 연습이 제공되는 강의도 있으나, 연습을 제공할 때 학습자가 답할 만한 휴지 시간을 갖지 않아 진정한 연습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강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도 나타나지 않고 피드백도 제공되지 않는다.

2.3.3. EBS PLUS 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이 프로그램은 앞에서 살펴본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세 개의 언어권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국내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 중 처음으로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하여 기획되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틀

(1) 미디어 제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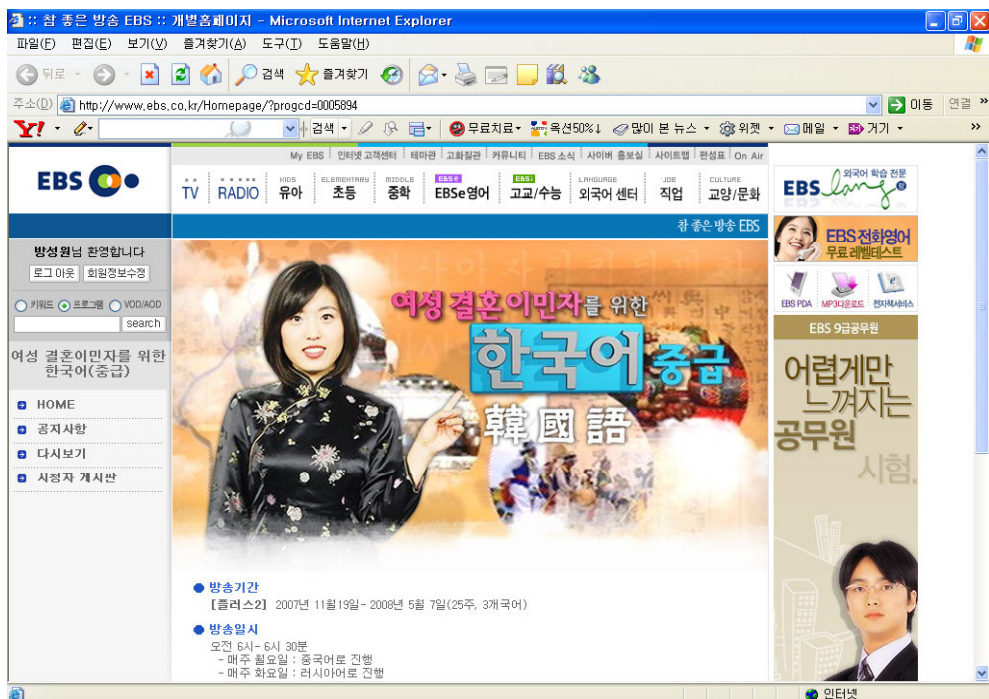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방송 프로그램의 끝에 제시된 제작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제작자 및 제작 방향은 다음과 같다.

53) 기존 연구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 내용 학습 중 발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란(2007:59)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이 필요로 하는 언어 내용 학습의 순위가 ‘발음>문법>어휘’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54) 설동훈 외(2005:109)에서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듣기>말하기, 읽기>쓰기’의 순으로 듣기를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쓰기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란(2007:58)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기술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말하기>쓰기>듣기>읽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말하기’에 대한 요구가 70.8%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나타났다.

- 기획, 제작 : EBS
- 제작진
 - 진행
 - 중국어편 : 왕단
 - 베트남어편 : 호티롱안
 - 러시아어편 : 타찌아나 리
- 기획 의도
 -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여성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을 도와서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 개 언어권별로 제작된 위 프로그램은 외국인 강사 1인이 스튜디오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앞서 살펴본 EBS PLU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의 진행 방식과 유사하다. 외국인 강사는 한국어에 능숙한 중국어 화자, 러시아어 화자, 베트남어 화자이다.



(2) 미디어의 구성

이 프로그램에 사용된 텍스트 형식은 주로 스튜디오 강의, 애니메이션(모범 대화), 자막, 판서, 연습문제가 제시된 궤도이다. 여기에서는 중국인이 진행하는 중국어편의 한 회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제시하기로 한다.⁵⁵⁾

구성	내용
도입	강사가 인사한 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한다. 본 수업에서 배울 목표를 제시한다(자막 제공).
회화	남녀가 대화하는 장면을 만화 네 컷을 활용해 제시한다(녹음된 대화 제공).
어휘	대화 속에 사용된 새로운 어휘 목록을 제시한다(한글, 중국어 자막 제공). 성우의 음성으로 어휘를 한 번씩 듣고 난 후, 강사는 각 단어의 의미, 관련 어휘 확장, 간단한 예문을 중국어로 설명한다(한글, 중국어 자막 제공). 개별 단어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단어 목록을 듣는다.
회화 설명	대화문을 한 문장씩 끊어 중국어로 해석하고, 관련 어휘와 문법에 대해 설명한다 (한글 자막, 판서 활용). 동일한 전체 대화 장면(만화 네 컷)을 다시 한 번 들려준다(한글 자막 제공).
문법	목표 문법 항목에 대한 형태, 의미를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한다.
연습문제	목표 문법 관련 교체 연습, 목표 기능 관련 대화 완성 연습을 한다. (강사가 설명하면서 직접 답을 쓴다.)
마무리	강사가 강의 내용을 마무리한다.

(3) 미디어의 테크놀로지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에게 EBS 홈페이지에서 VOD를 통해 다시 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의 기본 메뉴로서 공지사항, 시청자 게시판도 제공하고 있으나, 공지사항 게시판은 2007년 11월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 VOD로 제공되는 다시 보기 동영상의 지원 방식은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와 동일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EBSlang에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았다.

55) EBS PLUS2에서 2007년 11월 26일에 방영된 중국어편 ‘제2강 물 좀 주실래요?’

(4) 미디어의 언어

한국어 강의를 위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각각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진행되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목표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목표 언어를 설명하는 언어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각 강의는 목표 대화문을 바탕으로 번역을 제공하며, 목표 어휘와 문법을 추출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표 대화문 도입 시에 두 컷 이상의 삽화, 음성 녹음, 자막이 활용되고 있다.

(5) 미디어의 대상

기획 의도에서 보여 주듯이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에 비해 더 분명하게 결혼 이주여성이 대상 학습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요일별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각각 중급 수준의 중국어권, 러시아어권, 베트남어권 학습자이다.

(6) 미디어의 현실 구성

이 프로그램 역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따로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 강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어 현실 구성에 대한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가족, 임신, 여행, 쇼핑’ 등 결혼 이주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 결혼 이주여성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2) 언어 교수 학습 자료 분석 틀

(1) 교수-학습 상황 분석

① 교사

교사는 모두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이다. 한국어 학습을 경험해 본 외국인으로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주로 강의한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외국인으로서 발음이 부정확한 면이 간혹 발견되며, 대부분의 수업을 문장, 어휘, 문법에 대해 학습자의 모국어로 설명하는 번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② 학습자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권 학습자로서, 결혼 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급 학습자가 주요 대상이다. 중급 학습자의 특성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대해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결혼 이주여성이 가족 중심 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낄 만한 주제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나, 중급 학습자의 기본적인 사회생활 요구에 대한 반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외적 분석

① 접근성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방송 채널이 케이블 방송인 EBS PLUS2로 한정되어 있고, 편성 시간이 새벽 6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EBS 홈페이지(<http://www.ebs.co.kr>)에서 회원 가입 후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VOD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있다.

② 학습 지원

강의 내용 요약 자료, 학습 내용과 관련된 교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게시판이 있으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학습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은 없다.

(3) 내적 분석

① 교육 목표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기획 의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을 도와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② 교육 원리

교수 학습 설계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습자의 모국어로 의미를 설명하고 주어진 대화문의 각 문장을 문법 설명과 함께 한 줄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기반한 수업을 제

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학습 내용

총 25주로 계획된 강의 내용은 언어권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12월 둘째 주까지 방영된 언어권 강의별 주제, 소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	주제
중국어	주말 계획, 식당, 임신, 집
러시아어	통화, 물건 사기, 옷, 생신
베트남어	책, 공부, 만남, 여행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어휘 학습과 문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발화와 화용 관련 학습은 이루어지 않는다. 또한 문화 학습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④ 학습 활동

언어권별 프로그램 모두 대화문을 바탕으로 한 어휘와 문법 학습을 기본으로 진행하므로,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습 문제에 대한 답을 강사가 직접 쓰는 활동이 있으나 이는 주로 교체 연습, 완성 연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의미의 쓰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세 개의 언어권 프로그램 중에서 베트남어권 프로그램에는 후반부에 읽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⑤ 학습 평가 및 피드백

문법 학습을 기본으로 한 교체 연습, 완성 연습, 빈칸 채우기 연습 등이 제공되지만, 교사가 직접 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참여가 없어 학습 평가나 피드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제작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인 EBS의 <한국말 쉬워요>, EBS PLUS 2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세 편을 각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언어 교수 학습 자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방송 최초로 결혼 이주여성라는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방영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분석 결과 여러 기준 항목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결혼 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특정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결혼 이주여성은 언어권별 차이, 도시/농촌 거주지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단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처럼 언어권별 차이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해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생활 특성,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⁵⁶⁾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요구에 맞는 학습 내용과 학습 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학습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언어 교수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언어 교수법의 주요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분석한 세 편의 방송 프로그램은 대체로 전통적인 교수 방식인 청각구두식 교수법,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기본으로 하며, 문법 설명 중심, 교제 연습 등 단순하고 기계적인 연습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하고 평면적인 교수 방식은 최근 한국어 교육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서 교육의 전문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이 된다. 앞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기계적인 문법

56) 기존 요구 분석 연구들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말하기, 듣기 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읽기와 쓰기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발음과 담화 층위의 언어 학습에 대한 요구와 한국의 실생활 문화 학습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난다.

연습 위주의 교수 방식에서 벗어나, 결혼 이주여성들이 부딪히기 쉬운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한 문법과 표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텍스트 개발 및 강의 진행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들이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이나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발된 것과 달리, 이번에 분석된 세 편의 결혼 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연계 없이 제작되었다.⁵⁷⁾ 교육과정 설계, 교수 내용 개발, 교수 학습 진행 등은 모두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프로그램 구성을 직접 교수 형식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언어 사용, 실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된 수업 진행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언어권별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외국인이 공동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쌍방향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분석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강의 진행자의 일방적인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상호작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프로그램 내부에 시청자의 역할 모델이 되는 외국인 학습자를 출연시키거나,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쌍방향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방송 프로그램이 갖는 편성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학습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향후 개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방송 중에 VOD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고, 각 홈페이지의 메뉴를 대상 학습자의 언어권에 맞게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 시간에 시청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이 다시

57) 아리랑 TV의 <Let's speak Korean>은 고려대학교(1999), 서울대학교(2004~2007)가 내용 원고를 개발하였고, KBS WORLD의 <한국어로 말합시다>는 연세대학교(2003), 서울대학교(2004), EBS TV의 <Hello! 안녕하세요>는 서울대학교가 내용 개발에 관여하였다.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쇄 교재로도 발간한다면, 학습자들이 방송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진도를 관리하고 학습을 독려하며, 학습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 학습자간 상호작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면, 개발한 방송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요자 요구 분석

1. 요구 조사 방법 및 내용

1.1. 요구 조사 대상 및 방법

방송 매체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처한 상황은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의 일반 수요자였던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과는 다른 특수 환경이므로 요구 조사에 근거하여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을 계획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중 방송 매체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포천 지역의 이주여성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포천 지역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는 또는 일하고자 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요구 조사도 실시하였다.⁵⁸⁾ 조사는 설문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학습자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작성하였다.⁵⁹⁾

- 조사 대상: 포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국어 학습자 56명
(중국 15명, 베트남 18명, 러시아 13명, 필리핀 10명)
포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강생 19명
- 조사 시기: 2007년 11월
- 조사 방법: 설문 조사 (학습자용 설문지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로 번역하여 조사를 실시함)⁶⁰⁾

58) 조사 대상의 수가 적고, 조사 대상자 중에는 교사 희망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교사의 요구를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59) 일본어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아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60) 설문지는 별첨으로 첨부함.

1.2. 요구 조사 내용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는데 세부 항목은 ① 개인 정보, ② 한국어 학습 정보, ③ 한국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④ 한국어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 ⑤ 한국어 교육 방송 실시에 대한 것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크게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는데 세부 항목은 ① 교육 현장 정보, ② 교사 개인 정보, ③ 현재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평가, ④ 현재 방영되는 한국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의 효과, ⑥ 한국어 교육 방송의 내용, ⑦ 한국어 교육 방송의 구성, ⑧ 한국어 교육 방송 편성 및 부가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2. 요구 조사 결과 분석

2.1. 학습자의 요구 조사 결과

(1) 한국어 학습 정보

①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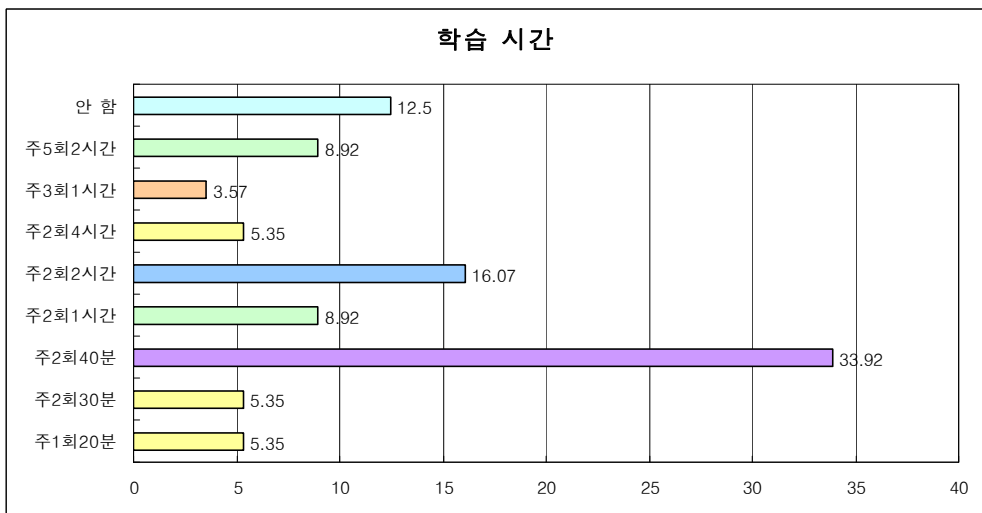
1. 한국어 학습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 ()회 ()시간
2. 한국어를 배우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② 취직하기 위해서
③ 직장에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④ 가족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⑤ 한국생활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⑥ 기타 ()
3. 한국어를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① 집에서 가족에게 배우고 싶다
② 집에서 컴퓨터의 인터넷으로 배우고 싶다
③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배우고 싶다
④ 집에 한국어 선생님이 방문해서 가르쳐 주면 좋다
⑤ 집밖의 기관이나 학교에서 배우고 싶다
⑥ 기타 ()

② 결과 분석

조사 대상인 결혼 이주여성의 주당 한국어 학습 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 41>과 같이 주 2회 40분씩 한국어를 학습자는 사람이 34%를 차지했다. 그리고 주 2회 2시간씩 학습하는 사람이 16%였으며, 주 2회 1시간씩 학습하는 사람이 9%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참여하지만 한국어는 학습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13%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 시간이 여건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 2회 40분~2시간 정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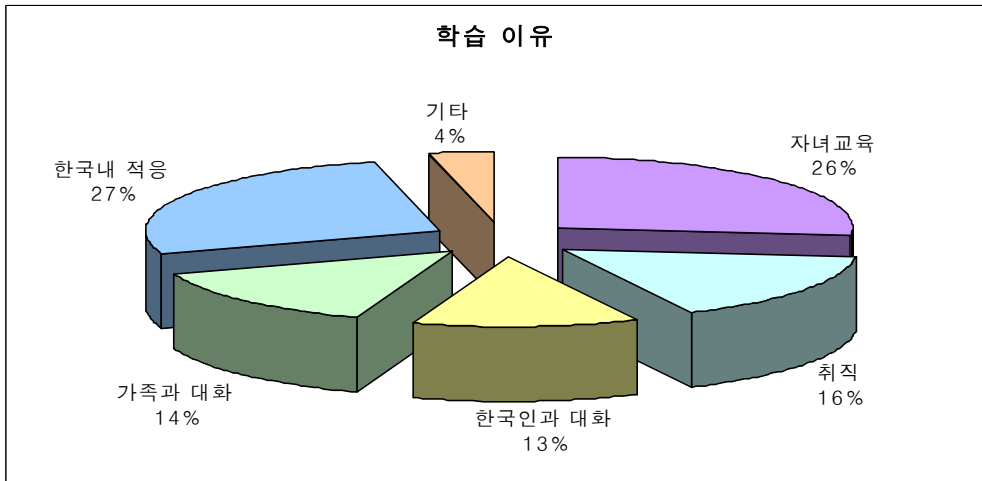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고르라는 문항에 대해 <그림 9>와 같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26%)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27%)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취직하기 위해서(16%), 가족과 대화하기 위해서(13%), 한국인과 대화하기 위해서(13%)라도 답하였다.⁶¹⁾

〈표 41〉 주당 한국어 학습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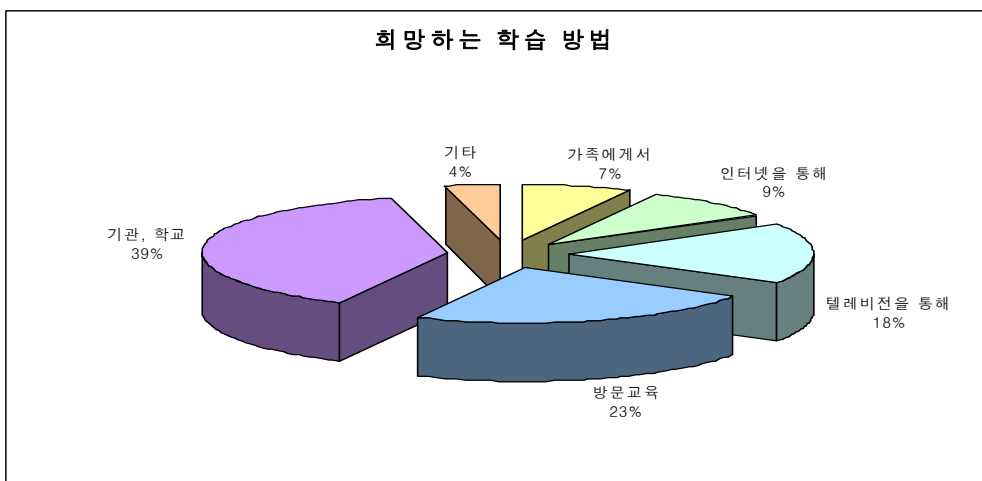
61) 이 문항은 복수 선택 문항이었으므로 이 수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시한다.

〈그림 9〉 한국어 학습 이유



조사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 방법은 <그림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관이나 학교에서 집합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3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방문 교육은 23%, 텔레비전 방송은 18%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들은 가능하면 집합 교육에 참여하려는 요구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교육 방법만으로는 다수의 결혼 이주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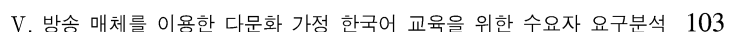
〈그림 10〉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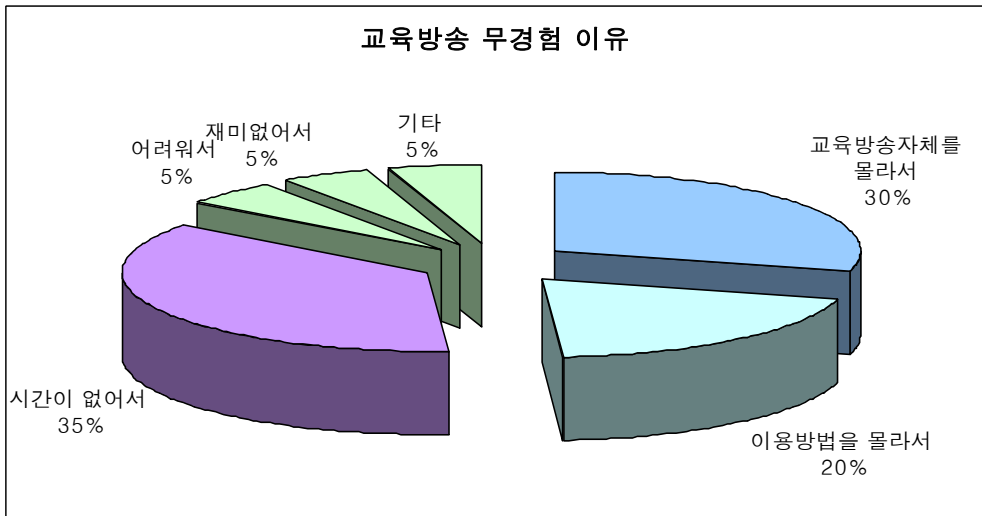
① 조사 문항

- ## ② 결과 분석

〈그림 11〉 교육 방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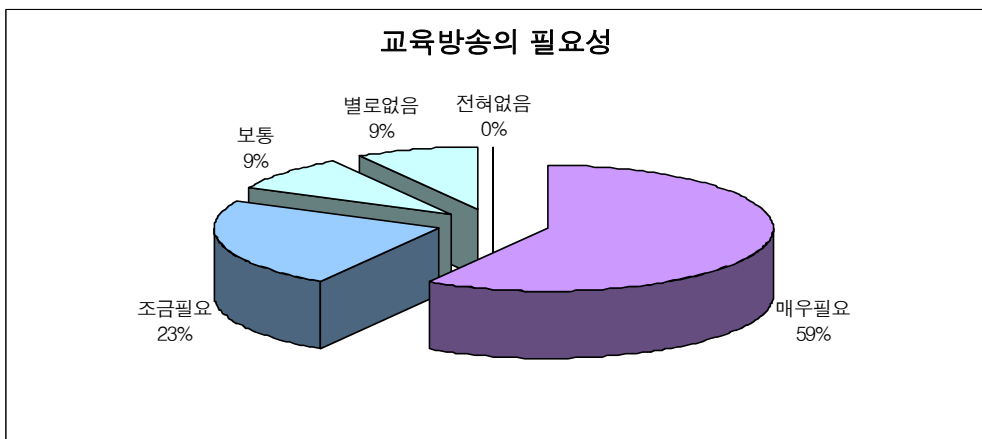


〈그림 12〉 교육 방송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또한 한국어 교육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림 13>과 같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59%, 조금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23%로 80%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3〉 교육 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 한국어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

① 조사 문항

1. 한국어 TV 교육 방송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부터 번호를 쓰십시오.

- ① 말하기, 듣기 연습 () ② 읽기, 쓰기 연습 ()
 ③ 한국어 문화 이해 () ④ 발음 연습 ()
 ⑤ 문법 및 표현 학습 () ⑥ 어휘 학습 ()

2. 다음은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아래의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정도를 “5~1”의 숫자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표시하십시오.

남편	5	4	3	2	1
시아버지	5	4	3	2	1
시어머니	5	4	3	2	1
자녀	5	4	3	2	1
남편의 남자 형제 또는 여자 형제	5	4	3	2	1
남편의 친척	5	4	3	2	1
이웃 주민	5	4	3	2	1
친구(다른 나라 외국인)	5	4	3	2	1
한국어 선생님, 센터의 상담원	5	4	3	2	1
자녀의 학교 선생님	5	4	3	2	1
기타 ()					

3. 초급 교재를 구성할 때 포함될 수 있는 장소(상황)입니다. 아래의 장소에서 여러분이 한국어로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5~1”의 숫자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표시를 하십시오.

집	5	4	3	2	1
가게, 시장	5	4	3	2	1
식당	5	4	3	2	1
미용실	5	4	3	2	1
은행	5	4	3	2	1
우체국	5	4	3	2	1
약국, 병원	5	4	3	2	1
교통시설(버스/택시/지하철)	5	4	3	2	1
복지센터/동사무소/종교단체	5	4	3	2	1
자녀의 학교	5	4	3	2	1
기타 ()					

4. TV 교육 방송은 어떤 언어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 ① 한국어 ② 영어 ③ 모국어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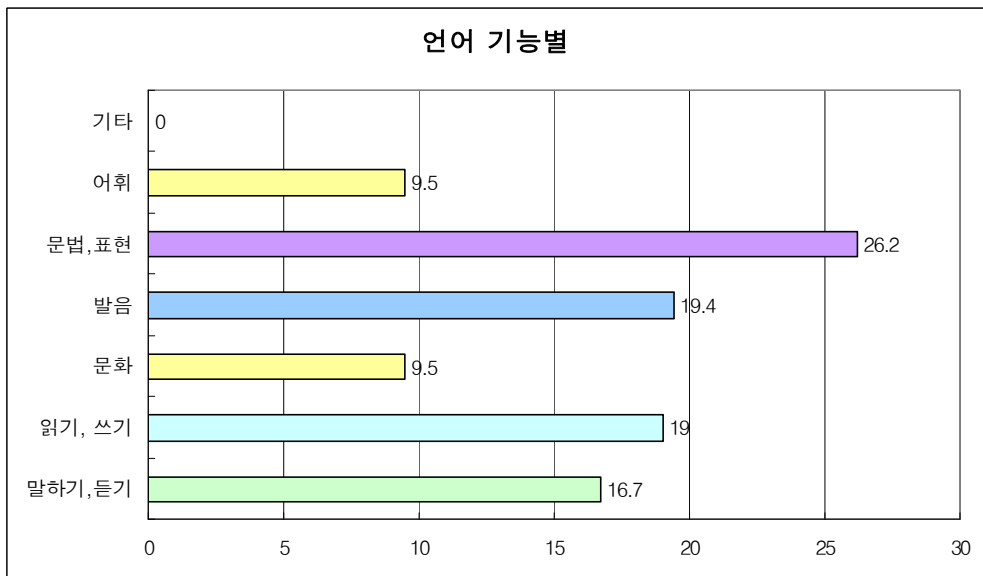
5. TV 교육 방송의 진행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진행함 (교사, 학생 출현)
 ② 다양한 장면 상황으로 연출함 (실제적인 상황으로 제시)
 ③ 설명 형식으로 진행함(학생, 외국인 등이 출현하지 않음) ④ 기타

② 결과 분석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교육 방송을 통해 학습을 희망하는 언어 기능, 언어 범주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서 <표 42>와 같이 문법과 표현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발음 19%, 읽기와 쓰기 19%, 말하기와 듣기 17%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체계적인 문법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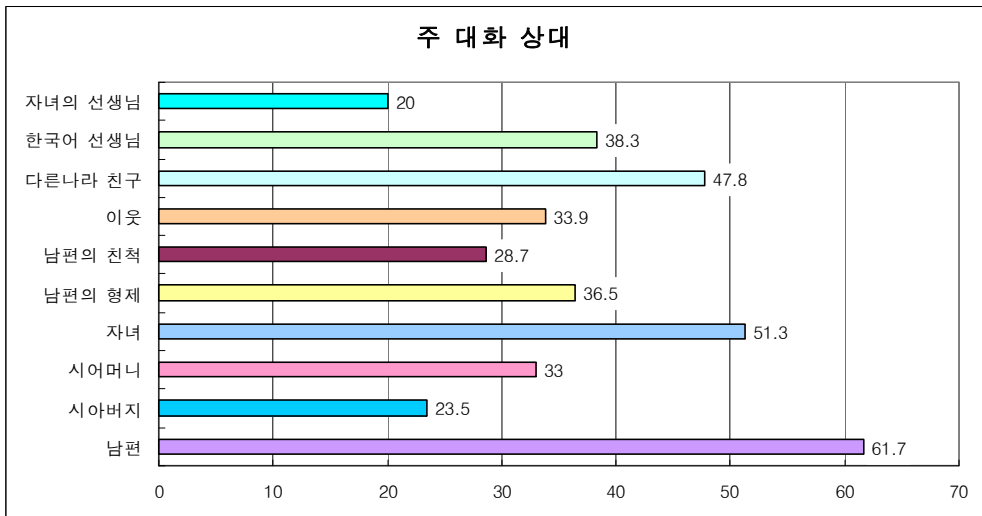
〈표 42〉 교육 방송을 통해 학습을 희망하는 언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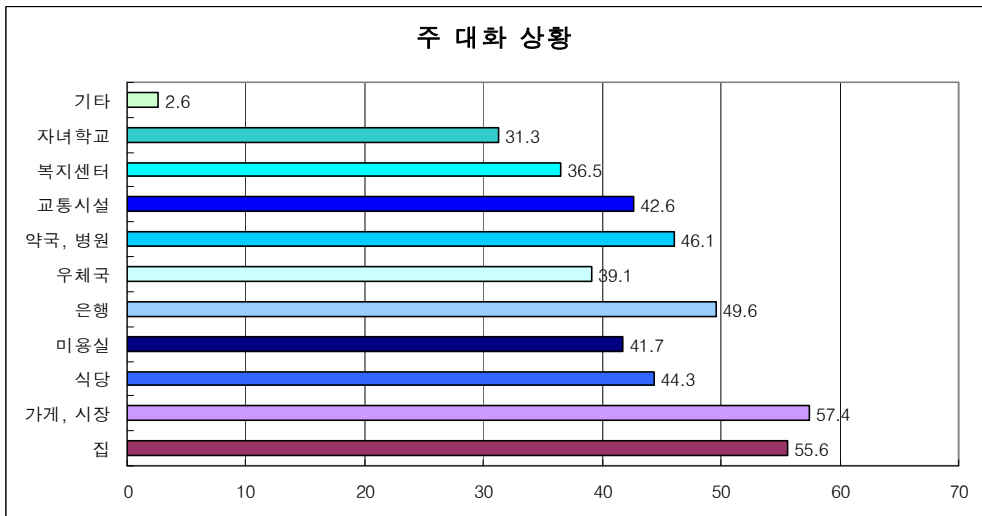
교육 방송의 교육 내용이 실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학습자들의 주 대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표 43>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이주여성은 남편을 제1 대화 상대자로 꼽았으며(62%), 그 다음으로는 자녀(51%), 다른 나라 친구(48%)의 순서로 대화가 빈번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주 대화 상황은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게와 시장(57%), 집(56%), 은행(50%), 약국과 병원(46%), 식당(44%)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방송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표 43〉 자주 접하는 대화 상대



〈표 44〉 자주 접하는 대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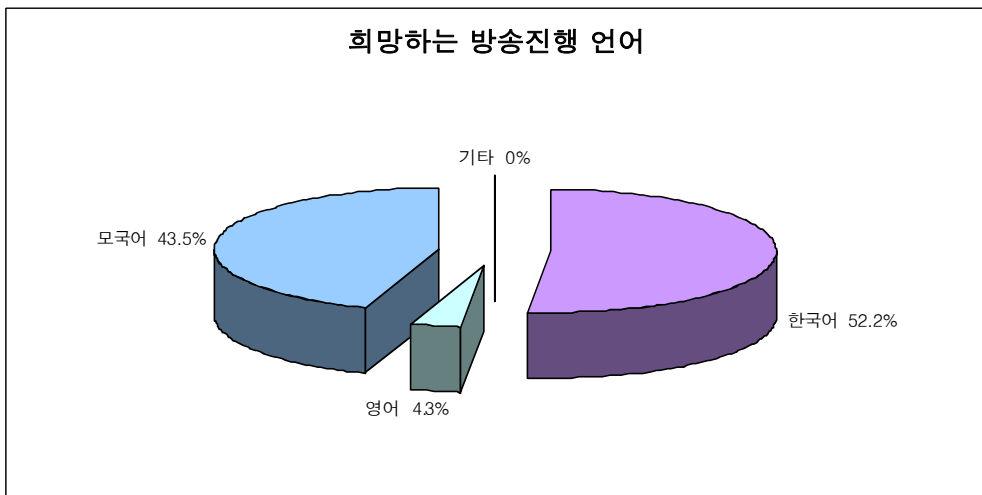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한국어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 언어는 <그림 14>와 같이 한국어가 52%, 모국어가 44%로 나타났다. 수치에 있어서는 한국어가 조금 높지만 두 언어에 대한 요구가 모두 40%를 넘는 높은 수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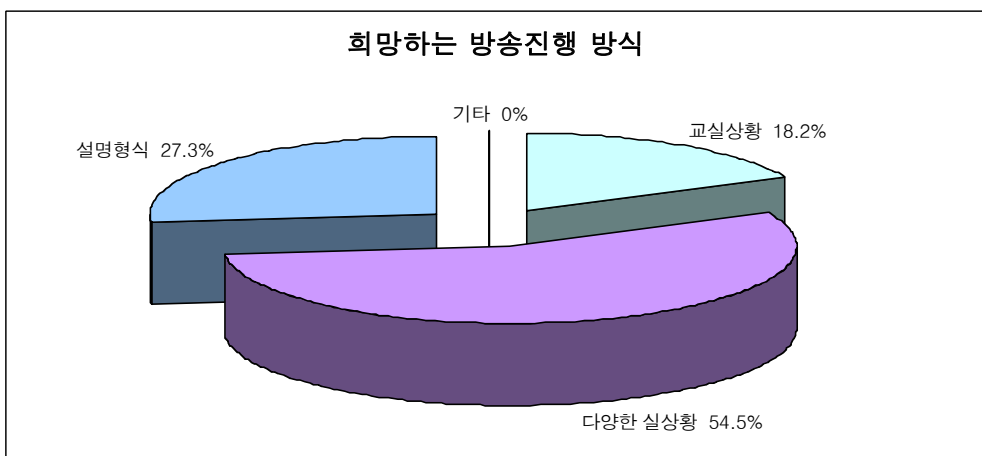
를 모두 고려하여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방송 진행 방식은 <그림 15>와 같이 다양한 실제 상황을 연출하는 것 55%, 설명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27%, 교실 상황을 연출하는 것 18%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교육 방송이라고 해도 딱딱한 설명이나 교실 상황의 구현 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하여 흥미롭고 생생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그림 14〉 희망하는 한국어 교육 방송 진행 언어



〈그림 15〉 희망하는 한국어 교육 방송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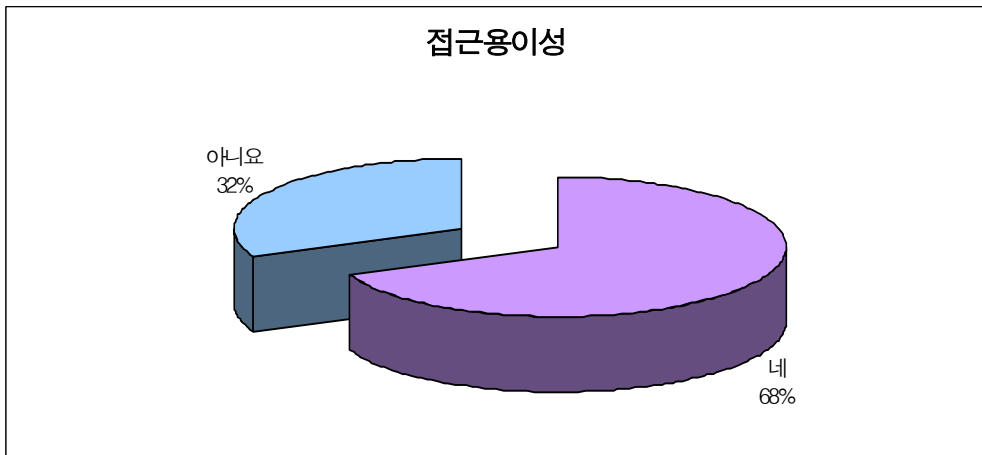


①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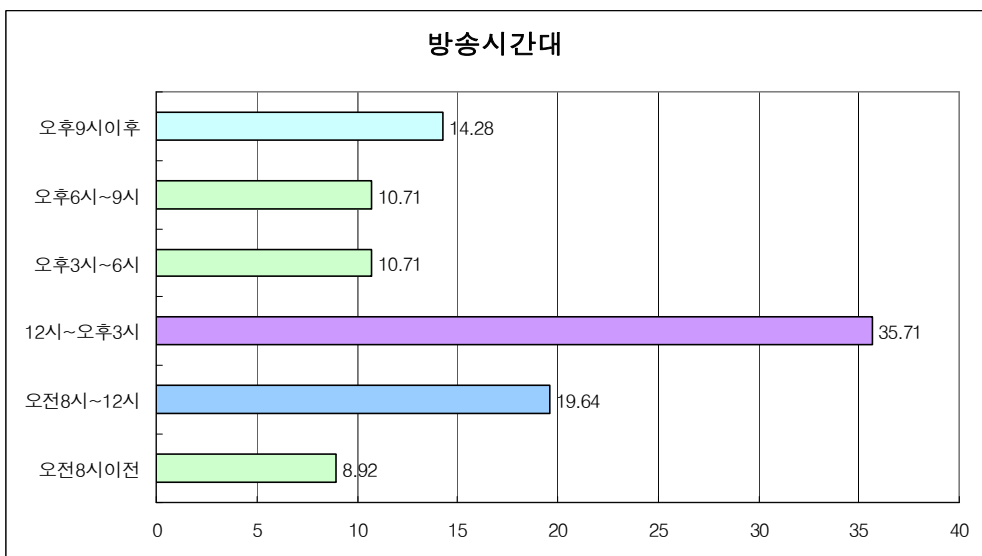
- ## ② 결과 분석

한국어 교육 방송이 어떤 시간에 실시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45>와 같이 12시~오후 3시, 오전 8시~12시, 오후 9시 이후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그림 16〉 방송 매체의 접근 용이성



〈표 45〉 방송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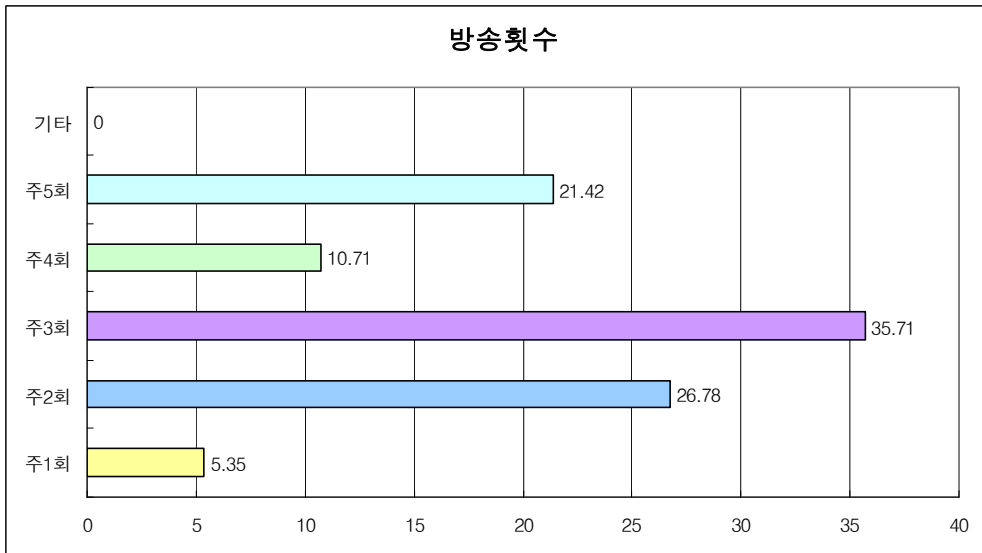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방송 횟수는 <표 46>과 같이 주 3회에 대한 대답이 가장 높았으며, 주 2회, 주 5회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주 2회 이상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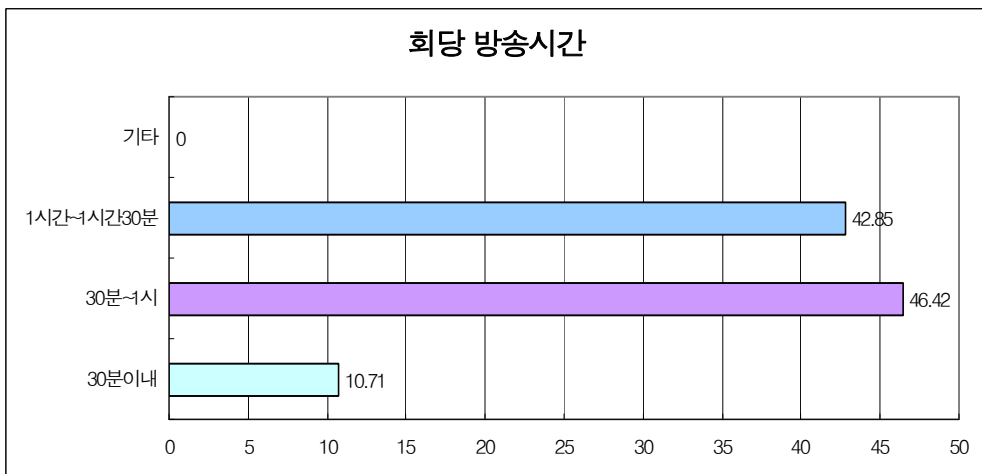
회당 방송 시간에 대한 요구는 <표 47>과 같이 30분~1시간, 1시간~1시간 30분,

30분 이내의 순서로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방송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장 시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석된다.

〈표 46〉 방송 횟수



〈표 47〉 회당 방송 시간



2.2. 교사의 요구 조사 결과⁶²⁾

(1) 현재 방영되는 한국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① 조사 문항

1. 다음 중 학습자에게 소개해 주거나 수업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 EBS 한국말 쉬워요
② EB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초급)
③ EBS 2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④ 기타 ()
⑤ 본 경험이 전혀 없음
2. 학습자에게 소개해 주거나 수업에 활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결과 분석

조사 대상인 교사들은 현재 방영되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방송을 대부분 알지 못했으며 접해본 경험도 없었다. 각 1명씩만이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현재 프로그램이 이른 아침에 방영되거나 방송 횟수가 주 1회 그치는 점 등은 결혼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2) 한국어 교육 방송의 효과

① 조사 문항

1. 다문화 가정 여성에게 TV 교육 방송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2. 한국어 TV 교육 방송의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① 한국어 사용 능력 향상 ② 한국어 문화 이해 ③ 학습의 편의성 제공
④ 발음 능력 향상 ⑤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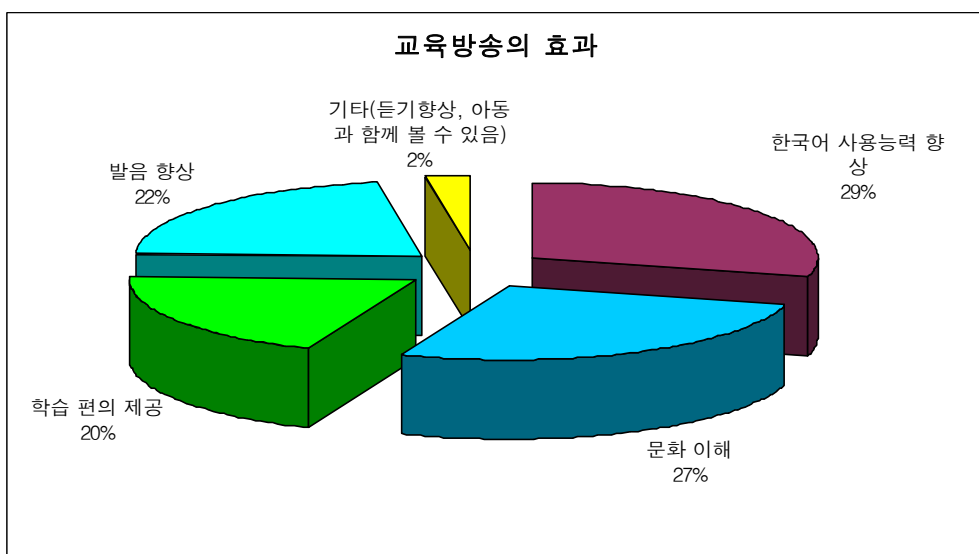
62) 조사에 응한 교사의 수가 적어 교사들의 절대적인 요구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교사들의 요구는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자의 요구조사와 같은 항목으로 실시한 것은 학습자의 요구를 주로 정리하였으며, 교사의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② 결과 분석

조사 대상인 교사들은 교육 방송을 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송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인 19명 중 14명(73%)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어 교육 방송이 학습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복수로 답하게 한 결과 <그림 17>과 같이 한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27%를 차지했다. 그리고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나 학습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22%, 20%를 차지했다. 즉 한국어 교육 방송은 언어와 문화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림 17〉 한국어 교육 방송의 효과



(3) 한국어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

① 조사 문항

1. 한국어 TV 교육 방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되는 언어 기능은 무엇입니까?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2. TV 교육 방송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① 상황-기능 중심으로 ② 문법 중심으로
③ 연습 활동 중심으로 ④ 기타()
3. 프로그램 진행자로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나운서 ② 한국어 전문 강사 ③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연예인 포함)
④ 한국어 교수법을 전공한 외국인 ⑤ 기타()
4. TV 교육 방송은 어떤 언어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① 한국어 ② 영어
③ 학습자 모국어 ④ 기타()
5. TV 교육 방송의 진행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진행함 (교사, 학생 출현)
② 다양한 장면 상황으로 연출함 (실제적인 상황으로 제시)
③ 설명 형식으로 진행함(학생, 외국인 등이 출현하지 않음)
④ 기타()

② 결과 분석

교사들은 교육 방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되는 언어 기능은 듣기(52%)라고 보았으며, 그 다음에 말하기(42%)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당 교육 방송의 내용은 상황 기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84%(16명)를 차지하여 절대적이었으며, 연습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10%(2명)를 차지했다.

한국어 교육 방송의 진행자로는 전문 강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73%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아나운서, 한국어 전공 외국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10%씩을 차지했다.

방송 진행 언어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달리 한국어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하여 절대적이었다. 이외에도 교육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실생활 연출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94%를 차지하였다.

VI.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넓은 의미로 학교나 교육 체계 내에서 실현되는 의도된 전 교과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은 하나의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 순서와 절차, 교육 방법, 평가’ 등을 구조화한 언어 교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계획 및 운영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개발은 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돕기 때문에 교육을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설계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개별 교수 활동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전체적인 시각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은 방송 매체라는 특수한 교수·학습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면대면 교육과정과는 구별되며, 국내에 영구 거주할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다는 점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문식성(family literacy) 제고를 목표로 삼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요구한다.

이 장에서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및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및 교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의 단계별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실재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선행 연구 및 교재에 나타난 교육과정 분석

1.1. 선행 연구에 나타난 교육과정 분석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교육 방송의 주된 수요자가 될 결혼 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연구들로는 설동훈 외(2005)와 왕한석·한건수·양명희(2005), 오성배(2005), 전만길(2005),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006), 이은주(2006), 이정옥(2006), 이순형 외(2006), 장수정(2006), 정희원(2006), 황선영·조선경(2006), 김선정(2007), 김

일란(2007) 등이 있다.

해외 사례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미국의 국립 가정 문식성 프로그램(National family literacy program), 캐나다의 이민자 프로그램인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http://www.cic.gc.ca/> 참조), 호주의 이민자 프로그램인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learn-english/> 참조) 등의 자료가 있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이들 논의를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요구분석

설동훈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과제를 거의 도와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21.1%에 달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를 차지하였다⁶³⁾. 보건복지부(2005, 장수정 2006 재인용)에 따르면 언어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쓰기, 읽기와 말하기, 듣기 순으로 서툴다고 평가하였다.⁶⁴⁾ 김일란(2007)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기술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만길(2005)에 의하면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읽기와 쓰기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일란(2007:59)에 따르면 언어 요소에 대한 요구가 ‘발음>문법>어휘’의 순으로 나타났다.

63) 다문화 가정 여성은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언어의 한계를 더 느끼며 자녀의 교육을 돌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나 자녀의 한국어 발달을 위한 긍정적인 언어 입력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입력의 자극이 말하기, 듣기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와 같은 문식능력 발달의 기본 전제가 되는데, 가정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영유아들의 한국어 발달 환경, 문식 환경 및 사고력 발달 환경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기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64) 보건복지부(2005) 자료(장수정, 2006 재인용).

(N)	전체 (945)	중국동포 (428)	중국한족 (150)	일본 (98)	필리핀 (72)	베트남 (58)	태국 (19)	몽골 (14)	구소련 (29)	기타 (26)	F값검정
전체	3.48	4.08	3.35	2.78	2.76	2.30	2.34	2.94	3.06	3.12	42.03***
말하기	3.50	4.26	3.24	2.81	2.74	2.20	2.39	3.24	3.10	3.17	45.58***
듣기	3.62	4.16	3.54	3.0	2.88	2.40	2.43	3.62	3.41	3.48	35.23***
읽기	3.50	4.05	3.45	2.83	2.89	2.34	2.42	2.89	3.10	3.18	27.97***
쓰기	3.29	3.99	3.10	2.30	2.59	2.23	2.14	2.11	2.72	2.67	41.94***

주: 1) 5점 척도로 “매우 서투르다”에 1점, “매우 능숙하다”에 5점을 줌. 2) *p<.10, *p<.05, **p<.01, ***p<.001

○ 상황 분석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006)의 사업운영 결과보고서에는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잘 보여 준다. 2006년에 전국 21개소에서 운영된 지원센터의 자료를 보면 총 이용자 수는 2,733명⁶⁵⁾에 달했다. 이는 2005년 한 해만 해도 4만 건의 결혼 건수를 고려할 때 이용자의 저변이 그리 넓지 않음을 보여 주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성이 뛰어난 원격지 교육, 특히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등급별 반배치는 대체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이나 적절성이 담보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반배치 기준은 주로 체류기간이나 구어 사용에 따른 한국어 능력의 추정에 근거한다.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반배치 기준은 초급이 기본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를 읽지 못하거나 읽을 수는 있지만 뜻을 모르는 경우이며, 중급은 초급을 마친 학생이나 기본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고 뜻을 이해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며, 고급은 중급을 마친 경우나 다른 기관에서 중급 이상을 마친 경우,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좀더 유창한 수준으로 대화를 원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장수정, 2006). 따라서 특화된 대상인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숙달도별 기준 및 목표의 설정이 요구된다.

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 시간은 대체로 일주일에 1~2회씩 2시간이며 초급, 중급, 고급별로 나누어서 학습은 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서로 진도만 다를 뿐 초급과 중급 학습자 모두가 초급 교재를 사용한다. 이주여성은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일주일에 2번 이상의 수업을 요구하였다.

○ 교수요목

결혼 이주여성용 한국어 교육 교수요목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초급 한국어 교재 단위 내용 구성 방안’(이은주, 2006), ‘국제이주여성을 위한 어휘교재 개발 연구’(장수정, 2006),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황선영·조선경,

65) 센터별 이용자는 제주(548명), 광주(371명), 충북 청주(183명), 전남 여수(179명), 경북 예천(163명) 순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1,007명), 중국(568명), 필리핀(261명), 일본(20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도농 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6), ‘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김일란, 2007)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체로 주제, 기능, 상황, 문법의 통합형 교수요목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의 연구물로 약식 교육과정이라고 할 교재 구성표 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교수요목 관련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으로 발음 교육과 문화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도입 논의가 있다. 김선정(2007)은 결혼 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이 별도로 실시되어, 언어예절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발음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거나 가정에서 듣고 따라하는 방법으로만 학습한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부정확한 발음이 화석화되는 경우가 많고, 조음 방법에 관한 이해가 없어서 발음을 교정하지도 못하는 실정이 지적되기도 한다.

○ 해외의 사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바탕으로 한 국외 자국어교육 프로그램 자료로 미국의 국립 가정 문식성 프로그램(National family literacy program), 캐나다의 이민자 프로그램인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http://www.cic.gc.ca/> 참조), 호주의 이민자 프로그램인 AMEP(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http://www.immi.gov.au/amep> 참조) 등이 있다.

특히 호주의 이민자 프로그램인 AMEP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면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민자를 위하여 통신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성인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언어의 사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다. 통신 교육의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5권의 학습자용 교재와 1~2개의 오디오테이프가 있다. 각 단계별로 참고서(Access Book)와 참고서용 오디오테이프가 있는데, 참고서와 오디오테이프는 17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통신교육의 방법은 학습자가 공부한 후, 2주~3주마다 소책자에 수록된 연습문제를 푼 것과 말하기 활동 녹음을 교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최소한 일주일에 5시간 통신 교육을 받으며 교사와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통신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피드백 방식은 방송 매체의 특성으로 인한 일방향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주목할 만하다.

1.2. 교재에 나타난 교육과정 분석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한국어 교재로는 2005년에 여성교육부에서 발행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초급), 2006년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재인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중급, 고급)와 2007년 여성가족부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교재인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중급), 2007년 농림부에서 출간한 한국어 초급 교재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판) 등 5종 10책이 있다.

(1)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 (초급)

- 발 행 처 : 여성교육부
- 발행년도 : 2005년
- 총 면 수 : 148쪽
- 속 달 도 : 초급
- 총 단 원 : 한글 단원과 본문 24단원
- 교수요목 : 주제·기능 중심의 다중 교수요목
- 구 성 : 대화 - 어휘 - 문법 - 연습 (- 읽기 - 쓰기)
- 번 역 : 없음
- 부 교 재 : 부교재·CD 없음
- 주요특징 : 결혼 이주여성의 일상생활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살림살이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포함하였음. 부록으로 법률 정보와 생활 정보 수록함.

2005년 1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초급)은 총 24과로 이루어진 교재이다. 대화문이 ‘인사, 가족, 마트, 과일가게, 교실, 전화, 버스, 지하철, 병원 식당, 우체국, 시장 부업’ 등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과 ‘국적 묻고 답하기, 가족 관계 말하기, 아이와 대화하기’ 등 결혼 이주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언어 기능이 수록되어 있다. 한 단원은 2시간 분량으로 기계적인 연습과 유의미한 연습이 있으나 좀더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연습책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어휘나 문법, 본문에 번역이 없고 CD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 독학이 어렵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8〉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초급)의 교재 구성표

단원	제목	기능	문법	어휘 및 표현
한글		한글 자음·모음·받침 익히기		
1과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자기 소개하기	-이에요/예요	여러 가지 인사말
2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 묻고 답하기	~은/는	세계 여러 나라 이름
3과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가족 관계 말하기	~의 이/그/저/어느(1)	가족의 명칭과 호칭
4과	얼마예요?	가격 묻고 답하기 물건 사기(2)	~하고	과일, 야채, 생선, 육류 숫자읽기1(일, 이, 삼)
5과	사과 세 개 주세요.	사물, 사람의 수 세기 물건 사기(2)	~에(1)	숫자읽기2(하나, 둘, 셋)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6과	지금 몇 시예요?	시간 묻고 답하기	~에	시간(시, 분)
7과	생일은 언제예요?	날짜 묻고 답하기	~이/가	날짜(년, 월, 일, 요일)
8과	한국어 공부를 해요.	하루 일과 이야기하기	~을/를 ~어/아/해요(1) 그리고	여러 가지 동사
9과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이야기하기 맛 표현하기	안	매일 먹는 음식 맛, 조미료, 조리기구
10과	책상 위에 있어요.	물건의 위치 말하기	~에(3) 이/그/저/어느(2) 위치	방, 가구, 가전제품
11과	검은색 바지를 사고 싶어요.	색, 크기 묘사하기	~고 싶어요 ~어/아/해요(2)	색, 여러 가지 형용사 날씨와 계절
12과	여보세요?	전화 걸기, 전화 받기	-(으)세요	전화
13과	읍내에서 얼마나 걸려요?	교통수단 이용하는 정보 얻기	~에(4) ~에서 ~까지	교통수단
14과	신설동 역에 어떻게 가요?	교통수단 이용하는 정보 얻기	이/그/저/어느(3)	교통수단 이용에 관련된 표현
15과	배가 아파요.	아픈 증상 이야기하기	~었/았/했어요 못	신체를 나타내는 어휘
16과	찬 것을 먹지 마세요.	금지하기, 이유 말하기	~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원
17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제안하기, 거절하기	~도 ~(으)ㄴ 수 있어요	경조사
18과	저는 갈국수를 먹을게요.	음식 주문하기	~(으)ㄴ게요	외식 메뉴
19과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주말 계획 이야기하기	~(으)ㄴ 거예요	취미
20과	필리핀으로 보내 주세요.	부탁하기	~어/아/해 주세요 ~(으)로	관공서 및 기타 시설
21과	동대문 시장에 가 봤어요?	경험 묻고 답하기	~어/아/해 봤어요 ~(으)ㄴ	날씨와 계절
22과	모자를 쓰고 있어요.	물건 혹은 사람 묘사하기	~고 있어요	의복 착용 관련 동사
23과	추석에 어떤 음식을 할까요?	상대방의 의향 묻기	~(으)ㄴ까요?	한국의 명절
24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아이와 대화하기	반말 표현	학교생활 관련 어휘

(2)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초급, 중급, 고급)

- 발 행 처 : 충청북도 교육청
- 발행년도 : 2006년
- 총 면 수 : 88쪽(초급), 96쪽(중급)
- 숙 달 도 : 초급, 중급, 고급
- 총 단 원 : 16 단원
- 교수요목 : 주제·기능 중심의 다중 교수요목
- 구 성 : 대화 - 어휘와 표현(*문법 항목 포함) - 연습 - 말하기
- 번 역 : 없음
- 부 교 재 : 부교재·CD 없음
- 주요특징 : 자녀를 둔 결혼 이주여성의 시점에서 일상생활 상황을 반영함.
충청도의 지명을 언급하는 등 지역적 특색을 약간 도입하였음.
정규 교육 제도의 학기를 반영하여 16단원으로 구성함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2006년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루어졌다. 책 표지에는 외국인 자녀와 이주여성을 위한 교재임을 표방하였으나 결혼 이주여성 시점의 대화만으로 구성되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자녀를 둔 결혼 이주여성이 접할 수 있는 자녀와 관련된 상황이 도입되어 있어서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 정규교육 제도의 학기를 고려하여 각 16과로 구성되어 있고, 일주일 1번 두 시간으로 총 4개월이 소요되는 교재이다. 일반 한국어 초급 교재에 제시된 상황, 기능과 유사한 교육 내용을 수록하면서도, 아빠와 집에서 대화하는 상황과 ‘반말로 대화하기’ 기능, 아이와 대화하는 상황과 ‘아이 교육하기, 금지하기’ 기능을 묶는 등 한국의 가정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과 언어 기능을 연결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명절, 요리를 다룬 과에서는 주부의 시점으로 대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아이 진학 문제나 귀화 문제 등 결혼 이주여성이 접할 법한 상황과 기능이 적절하게 수록되어 있다. 번역과 CD가 지원되지 않아서 독학이 불가능하다.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9〉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의 교재 구성표

단원	제목	기능	문법	어휘 및 표현
1과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하기		인사, 나라 어휘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2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	가족 소개하기		가족 어휘, 수 가족이 몇 명이에요? 몇 살이에요?
3과	어디 가요?	장소 묻고 대답하기	~도	장소 어휘 어디 가요?
4과	뭐 해요?	일상생활 이야기하기	~을/를 ~에서	뭐 해요? 어때요?
5과	계란 있어요?	물건 사기		물건 이름, 수량 명사 얼마예요?
6과	생일이 언제예요?	날짜와 시간 말하기		날짜, 생일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7과	여섯 시에 일어나요.	하루 일과 말하기	시간+~에 -고 -고 나서 -기 전에	시간(시, 분)
8과	시계가 어디에 있어요?	물건 위치 묻고 대답하기	~이/가 ~에 있다	집안 구조 어휘, 위치어
9과	어제 뭐 했어요?	일상생활 이야기하기	-(으)러 가다 안/못	뭐 했어요?
10과	주말에 시간 있어요?	약속하기	-(으)까요? -아/여요 -(으)비시다	
11과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길 묻기	-(으)세요 ~(으)로	
12과	다음 정거장에서 갈아타야 해요.	교통수단 이용하기	-아/어야 하다/되다	교통수단 어휘
13과	뭐 먹을래요?	식당 이용하기	-(으)르래요? -ㄴ데	음식 이름
14과	주말에 영화를 볼 거예요.	계획하기	-고 싶다 -(으)르 거예요	
15과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계절과 날씨 말하기	-아/어서 -지요? -지만	계절, 날씨 관련 어휘
16과	아버님께서는 방에서 주무세요.	가정생활 말하기	-(으)세요 -(으)셨어요 -(으)실거예요 ~께서/께서는	경어 어휘

〈표 50〉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중급)의 교재 구성표

단원	제목	기능	문법	어휘 및 표현
1과	한국에 온 지 2년 됐어요.	한국 생활 말하기	-(으)ㄴ 지 -아/어 보다	기간
2과	사진 찍는 게 제 취미예요.	취미 소개하기	-는 것 -(을)ㄴ 수 있다/없다	취미
3과	저기 요코 씨네 집이지요?	전화하기	-ㄴ데요 -(으)ㄴ데요	전화번호
4과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기	-(으)면 -아/어 주다	
5과	빨간색 티셔츠를 사고 싶은데요.	쇼핑하기	관형형 현재 :동사+는/형+(으)ㄴ	색, 옷
6과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근황 묻고 대답하기	-고 있다 -아/어지다	
7과	무슨 걱정 있어요?	상담 · 조언하기	관형형 과거 : -ㄴ/은 -아/어도 되다	
8과	아빠한테 물어보자	반말로 말하기	-아/어 -았/었어 -을까? -(이)야 -니? -아/어(라) -자	
9과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용모와 복장 설명하기	-ㄴ 편이다	탈착표현 관련 어휘
10과	단발머리로 잘라 주세요.	미용실 이용하기	-(으)면 되다 -(으)니까	머리 손질 관련 어휘
11과	집들이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의논하기	-(으)ㄴ 거예요 [추측] -(으)ㄴ까요?	
12과	소포를 부치려고 하는데요.	우체국 이용하기	-(으)려고 하다 -아/어서 [계기]	
13과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야지.	아이 교육하기	-아/어야지(요) -잖아 -지 말다	
14과	배탈이 난 것 같아요.	병원가기	-(으)면 안 되다	병 관련 어휘
15과	잡채 만들 줄 알아요?	요리 만들기	-(으)ㄴ 줄 알다/모르다 -(으)ㄴ 수 있다/없다	요리법
16과	토요일이 아주버님 생신이래요.	간접화법으로 말하기	-대요/래요 -래요/재요/내요	

〈표 51〉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고급)의 교재 구성표

단원	제목	기능	문법	어휘 및 표현
1과	어제는 출터니 오늘은 따뜻하네요.	일기예보 말하기	-다가 -터니	날씨 표현
2과	제주도 가는 비행기 좀 예약하려고요.	여행 예약하기	~(으)로	여행 관련 표현
3과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요.	은행 이용하기	-ㄴ 데에	은행 관련 어휘
4과	학교 급식 당번이에요.	학교 급식 당번하기	-게 되다 -지 않다/모르다	학교 활동 관련 표현
5과	호영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상담하기	-ㄴ 김에	성격 어휘
6과	너도 카페나 미니홈피 같은 거 있어?	컴퓨터, 인터넷 이용하기	~같은 -든지	
7과	요즘 많이 보는 드라마 있어요?	텔레비전 보기	-더라고요 -기는 -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련 어휘
8과	처음에는 문화가 달라서 힘들었어요.	문화 차이 이야기하기	-다 보니 -느라고	
9과	우리 따로 나가 살면 안 될까요?	결혼 생활의 어려운 점 말하기	-아/어서 그런지 -(으)ㄴ 테니까	
10과	전셋집 나온 거 있어요?	이사 갈 집 알아보기	-아/어 있다 -거든요	이사 관련 어휘
11과	보일러가 고장 났나 봐요.	집 내부 문제 해결하기	-나/ㄴ가 보다 -았/었다가	집안 시설 이용 관련 어휘
12과	요가 강좌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문화센터 신청하기	아무 ~(이)나 -는 대로	
13과	도둑이 들었다면서요?	사건, 사고 이야기하기	-다면서/라면서요? -아/어 놓다	사건, 사고 관련 어휘
14과	이번 추석에는 송편을 살까 해.	명절 이야기하기	-기는요 -(으)ㄴ까 하다	명절 관련 어휘
15과	어느 중학교에 배정 받았어?	아이 진학문제 상담하기	~(이)나 -줄 않다/모르다	
16과	귀화하지 그래요?	귀화문제에 대해 말하기	-지 그래요? -았/었더니	국적 취득(귀화) 안내

(3)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

- 발 행 처 : 여성교육부
- 발행년도 : 2007년
- 총 면 수 : 158쪽

- 속 달 도 : 한글과 기초 한국어 표현 수준
- 총 단 원 : 한글 자모 4단원과 본문 3단원
- 구 성 : 쓰기-읽기-듣기-받아쓰기
- 번 역 : 본문 3단원만 11개 외국어번역
- 부 교 재 : 부교재 · CD 없음
- 주요특징 : 한글 쓰기 연습책(설명 없음)

2007년 여성가족부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교재이다.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은 총 7과로 1과에서 4과까지의 자모 편, 5과에서 7과까지의 ‘인사, 감사, 도움 주고받기, 숫자’ 등 기초 한국어 표현, 총 11개 외국어 번역이 수록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 쓰기 부분에 설명이 발음기호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독학이 불가능하다.

(4)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 발 행 처 : 여성교육부
- 발행년도 : 2007년
- 총 면 수 : 158쪽
- 속 달 도 : TOPIK 2급 수준
- 교수요목 : 주제 · 기능 중심의 다중 교수요목
- 총 단 원 : 24단원(단원 당 3시간 분량)
- 구 성 : 대화 - 어휘 - 문법1 - 문법2 - 읽기 - 말하기
- 번 역 : 없음
- 부 교 재 : 부교재 · CD 없음
- 주요특징 :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상 상황과 언어 기능을 대폭 수록함.

한국 문화가 적극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실제적인 말하기 과제가 수록됨.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중급)은 3시간 수업 분량의 총 2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 설거지, 돌, 아이, 귀화, 집안일, 장보기’ 어휘 등이 포함되는 등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상 상황과 기능이 교재에 적극적으로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다. 어휘는

단원 당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문법은 설명과 함께 기계적 연습과 유의미한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기는 실제적인 과제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읽기에서는 다양한 한국 문화가 소개되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되어 있다.

〈표 5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중급)의 교재 구성표

단원	주제	단원명	어휘, 표현	목표문법	말하기	읽기
1	집안일	대청소 좀 해야겠다.	집안일 관련 어휘	-어/아야겠어요 -어/아도 돼요, -(으)면 안 돼요.	가장 재미있는 일과 재미없는 일	그릇에 따른 설거지 법
2	전화		전화, 통화 관련 어휘 및 표현	-지요 [추측] -(으)ㄴ 것이다	전화해서 상대방 바꿔 달라고 하기	이메일 읽기
3	물건사기		쇼핑, 단위, 상태 관련 어휘 및 표현	-(으)ㄴ 까요 -게	물건 사고 팔기	광고지 읽기
4	아버이날 어린이날	따뜻한 잠바가 좋겠어요.	시장 관련 용어 높임 표현	-는/은 어때요? -시- -이/가 좋겠어요 -는 게 좋겠어요	백화점 안내도를 보고 말하기	소풍 계획
5	생일	모레가 아기 돌인데	돌 관련 어휘 유아용품 관련 어휘	-ㄴ데/은데/는데/ 인데 -어/아 보이다	옛날과 요즘 무엇이 달라요?	돌과 환갑
6	수리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가전제품 종류 서비스 관련 어휘	[원인] -아서/어서 -은/ㄴ 지	전자제품이 고장났어요.	전자제품 사용법
7	환불	돈으로 돌려주었으며 좋겠어요.	환불 관련 용어 크기 아이, 아이 옷	-때문에 -기 때문에 -(으)면 좋겠어요	환불 받기	백화점과 시장
8	미용실	이 사진처럼 잘라주세요.	미용 관련 어휘	-처럼 -(으)ㄴ 적이 있다/없다	친구에게 어울릴 만한 머리 스타일 추천하기	얼굴형에 따른 머리 스타일
9	요리	10분쯤 끓이다가 파하고 마늘을 넣어라.	조리 관련 어휘	-고 (나서) -다가	한국친구에게 자신의 나라 요리 소개하기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한 요리책 읽기
10	명절	떡국 끓일 줄 알아요?	명절 관련 어휘	-아/어서(순서) -(으)ㄴ 줄 알다/모르다	고향의 명절 풍습 이야기하기	차례상 관련 신문기사 읽기
11	옷	이것보다 그걸 입는 게 좋겠어요.	의류(옷, 액세서리) 관련 어휘	-는(관형사형 어미) -보다	인터넷 쇼핑과 동대문 쇼핑 비교	맵시 있는 옷차림

단원	주제	단원명	어휘, 표현	목표문법	말하기	읽기
12	드라마		드라마, 감상 관련 표현	-느라고 -아/어/여지다	한국 드라마, 배우에 대해 말하기	TV 편성표
13	세탁소	언제 찾으러 올까요?	세탁 관련 어휘	-(으)러 가다/ 오다 -(으)니까	세탁 기호 보고 세탁 방법 말하기	얼룩별 세탁법
14	은행	필리핀에 돈을 보내려고 해요.	은행 관련 용어	-(으)려면 -(으)려고 해요	은행에서 할 일	돈을 모은다면...
15	우체국		편지, 소포 관련 어휘 및 표현	-니까/습니까, -니까/습니다 -았/었/였습니까, -았/었/였습니다 -(으)십시오	우체국에서 우편물 보내기	편지봉투 읽고 쓰기
16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이 한 통 필요한데요.	서류 관련 어휘 여러 민원서류 명칭	-(으)ㄴ/는데요 (종결) -어/아도(연결)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 떼기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읽기
17	감정, 성격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정, 성격 관련 어휘	-(으)ㄴ/는/-(으)ㄴ 것 같아요. -거든요.	아이의 선생님과 상담하기	잡지의 성격유형 테스트
18	산부인과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병원 관련 표현	-다고 해요 -도록 하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	짧은 글 읽기
19	소아과 (혹은 응급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요.	병명이나 증상과 관련한 어휘	사동사 -게 하다	친구에게 조언하기	응급 처치법
20	결혼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관련 어휘	-기로 하다 -아/어야 되다	청첩장 보고 말하기	신랑달기
21	외국인 상담소	수미 엄마만큼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복지 서비스 관련 어휘	-(으)ㄴ 때 -만큼 -잖아	콜센터에 전화하기	게시판 안내문 읽기
22	귀화 신청	필리핀 사람 다 됐어요.	귀화 신청 서류	-기 전에, -은/ㄴ 후에 -아도/어도 되다	귀화 심사 인터뷰 연습	결혼 귀화 안내문
23	이사	생각보다 가깝네요.	이사 관련 어휘 집 구조 관련 어휘	-이/가 어떻게 되죠? -네요	이사 후 주변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하기	지역정보지에 실린 '이사할 때 주의할 점' 읽기
24	이주민 축제	'결혼 이민 가족 한마당'을 한 대요.	공연 관련 어휘 전통문화 관련 어휘	-(느)ㄴ 대 -(으)면서	여러 나라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문화 행사 관련 포스터 읽기

(4)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

- 발 행 처 : 농림부
- 발행년도 : 2005년
- 총 면 수 : 233쪽
- 총 단 원 : 24단원(단원 당 2시간 분량)
- 숙 달 도 : 초급
- 교수요목 : 주제·기능 중심의 다중 교수요목
- 구 성 : 도입 - 대화 - 문법 및 표현 - 말하기 - 쓰기 - 듣기 - 인터뷰 과제
- 심화 어휘 및 표현 - 계절과 절기 - 우리고장 이모저모 - 듣기 지
문 - 불규칙동사
- 번 역 : 영어판, 베트남어판, 중국어판, 타갈로그어판
- 부 교 재 : 워크북, 교사 지침서, CD 제공
- 주요특징 : 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상황을 반영함. 특히 농촌생활 이해를 돕는 고장 정보와 농사 관련 절기 정보를 수록함.

2007년 5월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개발하고 농림부에서 발간한 이 교재는 영어판, 베트남어판, 중국어판, 타갈로그어판 등 총 4종, 24단원 233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워크북, 교사 지침서, CD가 제공된다. 이 교재의 특징은 농촌생활 위주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 생활언어를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다. 내용면에 결혼 이주여성의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부부 간, 가족 간, 이웃 간 대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장보기, 머리하기, 병원 가기 등 필수 의사소통 상황을 다수 채택하였다. 그리고 농촌 상황 주제인 고추 말리기, 새참 준비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능 교육면에서 이 교재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에는 관련 어휘와 문법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워크북에 문법적인 연습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교재는 농림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광장 (<http://woman.maf.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표 53〉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Language)』의 교재 구성표

과	단원명	기 능		문 법	어휘 및 표현
		말하기	듣 기		
1과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인사하기	여러 가지 인사 듣기	인사 표현	식사했어요? 잘 가요, 안녕히 가세요, 동네 아저씨
2과	베트남에서 왔어요.	처음 만나 소개하기	첫 만남의 인사와 소개하는 대화 듣기	-에서 왔어요 저는 -입니다	남편, 이장님, 제 아내,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디, 베트남
3과	호미 어디 있어요?	찾는 물건의 장소 가르쳐 주기	장소를 묻는 대화 듣기	-이/가 -아요/어요/여요 -니다/습니다	어디, 텃밭, -에 가다, 걸레 어딴어요?, 빨래줄, 호미, 거기, 헛간, -에 있다, 여기
4과	이게 뭐예요?	반찬과 양념 등 이름 묻기	식사 준비에 대한 대화 듣기	-예요/이에요 이것, 저것, 그것, 무엇	아침, -에, 반찬, 뭐해요? 글썄, 시래기 국, -하고, 콩나물, 어머니, 그런데, 된장이야, 얼마나, 넣다, 한 숟가락, -만
5과	김치 맛이 어때요?	음식 맛에 대해 이야기하기	느낌 표현하는 대화 듣기	안 -아요/어요/여요 형(으) + 명	김치, 맛, 어때요?, 싱거워, 소금, 더, 아니, 짠 음식, 안 좋아, 매워, 아니
6과	이 배는 얼마예요?	장보면서 물건값 알아보기	물건 사는 대화 듣기, 제사 상차림에 대한 대화 듣기	-을/를, -(으)세요, -개(단위명사)	제사, 시장, 과일, 놓다, 숫자
7과	버스가 몇 시부터 있어요?	버스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버스 시간에 대한 대화 듣기	시간, -부터 -까지, -마다	시내 버스, -시 -분, -마다, 마지막, 얼마나, 걸리다, -쯤
8과	여보세요.	걸려온 전화 받아서 다른 사람 바꿔주기	전화를 받고 어떤 사람을 바꿔줘야 하는지 파악하기	과거 표현, -(으)세요?	여보세요, -네 집, 잠깐만, 전화 받다, 누구 등
9과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보건소에 전화해서 알고 싶은 정보 묻기	전화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 파악하기	-셨어요, -시-, -을 수 있어요	보건소, 아프다, 물리치료, 성함
10과	아버님 생신은 언제예요?	집안 행사 날짜에 대해 묻기	날짜를 묻는 대화 듣기	-고, -도	달력, 표시하다, 월, 일, 며칠, 제삿날
11과	새참은 뭘 준비할까요?	음식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요리법을 설명하는 대화 듣기	-(으) 까요? -(으) 다음에	새참음식 요리 방법
12과	집에서 이불을 빨 거예요.	미래 계획 이야기하기	미래 일(장보기)에 대해 제안하는 대화 듣기	-에서 -(으) 거예요	집안일 외출/이불 장보러 가다

과	단원명	기 능		문 법	어휘 및 표현
		말하기	듣 기		
13과	내일 고구마를 캐려고 해요	농사일(고구마 캐기)에 대한 이야기하기	농사일(배추 뽑기)에 대한 대화 듣기	-(으)려고 하다 -게	농사일, 채소
14과	계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계모임에 대해 정보 주기, 정보 얻기	동창 모임에 대한 대화 듣기	-에 -(으)러 가다/오다	모임(동창모임, 가족모임 등), 모임 관련 어휘(회식, 회비 등)
15과	현금카드로 만드시겠어요?	은행에서 통장 만들기	은행에서 환전하는 대화 듣기	-어/아/여 주다 -(으)시겠어요?	은행 업무(저금하다, 돈을 찾다 등), 은행 관련 어휘(통장, 도장 등)
16과	파마하고 싶어요	미용실에서 머리하기	미용실에서 머리하는 대화 듣기	-고 싶어요 -(은/는) 어때요?	머리, 파마, 머리 손질, 어렵다, 편하다
17과	배고프니까 뭐 먹읍시다.	시장 보기	슈퍼에서 장보는 대화 듣기	-(으)니까 -(으) 시다	장 봤어요, 고추씨, 남다, 나오다, 배 고프다, 목 마르다
18과	미역국에 파는 넣지 마세요.	출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아이 보기에 대한 대화 듣기	-지 마세요 -아/어/여 보다	출산예정일, 미역국, 끓이다
19과	농사 시작하기 전에 갔다 와도 돼요?	남편에게 고마움 표현하기	남편과 저녁 식사 중의 대화 듣기	-기 전에 -아/어/여도 돼요 -(으)면 안돼요	힘들다, 결혼기념일, 사랑하다, 감동하다, 농사, 갔다 오다, 잊다
20과	무과 고추를 말려야 해요	고추 말리기에 대해 말하기	참깨 말리기에 대한 대화 듣기	-아서 -야 해요	무, 고추, 말리다, 마당, 비닐자리, 줌, 깔다, 비닐하우스, 널다, 밧, 뒤집다, 괜찮다, 오전, 오후
21과	비가 많이 와서 고추 농사가 큰일이네요.	날씨에 대해 말하기	날씨와 과일 농사에 대한 대화 듣기	-네요 -(으)면	날씨, 밖, 올해, 고추농사, 많이, 탄저병, 수확, 준비해야
22과	상차림을 도와 드릴게요.	돌잔치에 대해 의논하기	모내기에 대한 대화 듣기	-아/어 드리다 -이나	농사철, 회의, 참석, 마을, 여러분, 감사, 경모잔치, 의논(하다), 부녀회장, 청년회장, -에서는, -에서도
23과	감기인 것 같아요	배탈에 대해 말하기	보건소에서의 대화 듣기	-인 것 같아요 -지요?	불편하다, 췌셔요, 기침, 감기, 이틀 치, 하루 치, 처방하다
24과	빨간색 바지를 입었어요.	옷차림에 대해 말하기	옷차림을 표현하는 대화 듣기	-는데 -고 있-	노란색, 점퍼, 빨간색, 바지, 티모자, 쓰다, 학교, 막, 나오다

1.3. 선행 연구 및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 교육과정의 시사점

○ 교육목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숙달도 수준

한국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고려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 방송이나 교재 구성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1급 ~ 3급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교수요목

현재까지 개발된 교재들은 주제·기능 중심의 혼합 교수요목이 대부분이다. 실생활 상황이 고려되었으며 관련 문법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교수요목에서 발음, 문화, 문법 항목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문법

문법 설명이나 연습이 부족하여 독학이 불가능한 교재가 많았다. 교재 또는 부교재를 통해 충분한 연습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 발음

발음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성 및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발음 교육에 발음의 조음 방법을 쉽게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발음교정 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문화

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문화 능력을 함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 언어 기능

현재까지 개발된 교재는 말하기, 듣기 중심의 교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식성 제

고를 위하여 쓰기와 읽기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실생활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어 능력에 비해 문어 능력이 취약한 편이며, 본인의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점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담당해야 하므로 유창성과 정확성을 함께 갖추도록 언어 기능 통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번역

독학이 가능하도록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다.

○ 상황·주제, 기능 등의 내용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경우,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를 반영하여 도시에서 이웃과의 교류 상황을 포함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 역할이 강조되지 않도록 취미나 여가 활동 등의 개인생활 상황을 포함하며, 자녀 교육 관련 주제나 상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상황으로는 집, 학교, 동네, 가게(슈퍼마켓, 옷가게, 신발가게), 병원(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식당(뷔페식당), 음식점, 우체국, 은행, 길거리, 시장, 버스정류장, 택시, 지하철역, 기차역, 이주여성 센터, 놀이동산, 관광지(유적지) 등을 제시한다.

주제로는 국적, 나이, 신체, 가족, 집, 하루 일과, 취미, 옷, 음식, 쇼핑, 교통 등(1급), 집안일, 요리, 옷, 이웃, 마을, 쇼핑, 병원, 공공시설, 드라마 등(2급), 공공시설, 문화생활, 직장, 교육, 종교, 운전 등(3급) 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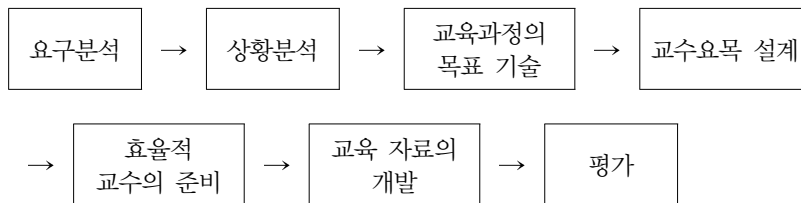
의사소통 기능은 인사하기(처음 만나서 인사하기, 남편 출·퇴근 할 때 인사하기, 시부모님께 아침·저녁 문안 인사하기 등), 자기 소개하기, 가족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남편과 시부모님 생신 등), 음식 이름 및 요리법 알기, 슈퍼마켓에서 계산하기, 옷가게에서 옷 치수 묻고 답하기, 소아과와 산부인과에서 증상 설명하기, 우체국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집들이 및 행사에 초대하기/초대받기, 호칭을 알고 존칭으로 부르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자녀 학교에 전화하기 또는 상담하기, 구직 활동하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자로는 남편과 아내, 시부모와 며느리, 엄마와 자녀, 교사와 학습자, 이웃과 이웃, 낯선 사람과 낯선 사람, 기사와 승객, 점원과 고객, 의사와 환자, 의사와 보호자, 시아주머니와 제수, 시누이와 올케, 학부모와 교사, 면접관과 구직자 등을 제시한다.

2.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

2.1.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Richards, 2001).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요구분석 :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인터뷰, 관찰 등)를 통해 조사, 분석
- 상황분석 : 사회적 요인, 기관 관련 요인, 교사 요인, 학습자 요인 분석
- 교육목적 및 목표 설정⁶⁶⁾
- 교수요목 설계 : 교수 내용의 선정과 배열
- 효율적 교수의 준비 : 특정 수업의 표준화와 수업 간 연계
- 수업 자료의 구비 : 교육 방송의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활용
- 평가 내용과 절차 설계 : 교수·학습 결과 확인

2.2. 교육과정 개발 시의 주요 쟁점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단계별로 주요 쟁점들은 파악하고, 다문화 가정 및 교육 방송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의 단계별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6)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목적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 예를 들어 사회적 재구조화로 두느냐 문화적 다원주의에 두느냐 등과 관련된다.

(1) 요구분석⁶⁷⁾

- 쟁점

- ✓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목적은 무엇인가?
- ✓ 한국어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숙달도를 갖추기를 희망하는가?
- ✓ 희망하는 교수·학습 방법, 매체 등은 무엇인가?
- ✓ 어떠한 언어 기능, 내용을 학습하기를 희망하는가?

- 요구분석의 실제

본 연구 과정에서 학습자 요구 조사 실시 결과를 앞 장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 내용 중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몇몇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목적은 <그림 9>와 같이 자녀교육(26%) > 한국 사회 적응(27%) > 취직(16%) > 한국인과의 대화(13%)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주제, 기능, 대화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 학습을 통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자녀 교육, 더 나아가서는 취업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1급~3급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분석된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그림 10>과 같이 한국어 학습 방법으로 기관, 학교를 통합 집합 교육(39%)을 가장 선호했으며, 방문교육(23%), 교육 방송(18%), 온라인교육(19%)을 희망하였다. 본 연구 과제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이지만 실제로 교육 방송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 방송을 통한 학습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학습자도 다수를 차지하겠지만 교육 방송에 대한 인지도 및 경험 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교육 방송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림 11>과 같이 경험자는 27%에 지나지 않으며, 73%는 무경험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 방법은 집합

67) Nunan(1999: 149-150)은 요구분석에서 다룰 요구를 내용에 관한 요구(content needs)와 과정에 관한 요구(process needs)로 나눈 바 있다. 흔히 기관에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습자들을 면담하거나 설문지를 통하여 (1) 인구 조사 (2) 학습 동기 및 활용도에 대한 조사 (3) 언어의 네 가지 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4) 언어 재료, 즉 어휘나 문법,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5) 학습자에게 유용한 의사소통 장면, 주제 및 기능에 대한 조사 (6) 학습 전략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한다.

교육을 기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되 그 요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 교육과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요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학습자가 교육 방송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 기능은 김일란(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문법, 발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42>와 같이 문법 및 표현 학습(26%) > 발음(19%) > 읽기와 쓰기(19%) > 말하기, 듣기(1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상생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말하기, 듣기에 치중한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대화 상황, 대화 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실생활을 파악해야 한다. 요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표 43>과 같이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대화 상대자는 남편(62%) > 자녀(51%) > 다른 나라 친구(48%) > 한국어 선생님(38%)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대화 상황으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상황은 <표 44>와 같이 가게, 시장(57%) > 집(56%) > 은행(50%) > 약국, 병원(4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한 요구조사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 중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순서를 절대적으로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요구 분석결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 및 선행 집필된 교재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상황분석

• 쟁점

✓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은 어떠한가?

-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 국가,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게는 어떤 교육 체계가 채택되어 있으며, 어떤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가?

✓ 교육관련 기관 요인은 어떠한가?

- 교육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 교육을 담당할 교사 요인은 어떠한가?

- 교사의 언어 숙달도, 교육 경력, 전문성, 교육 철학 등은 어떠한가?
- ✓ 학습자 요인은 어떠한가?
 - 한국어 학습 경험, 학습 동기, 가용 학습 시간, 요구하는 교수 스타일 등은 무엇인가?

• 상황 분석 결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가·사회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전국에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비단 본인의 개인적인 불편이나 사회 부적응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과 사고력 저하, 학교 교육 부적응으로 이어지며 동시에 미래의 한국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는 가능한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 방송이 이른 새벽에 방영되는 등 현실적으로 학습자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수익성보다도 국가·사회적인 필요성과 의무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면대면이 아닌 일방적인 교수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게시판의 활용이나 방문 도우미 제도의 활용, 호주의 통신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원격 교육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방송의 특성상 6개월 단위의 편성을 고려해야 하며, 프로그램 개발자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 방송의 진행자를 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어 권 외국인으로 할 경우 진행 교사의 발음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 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낳는다. 또한 한국어 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학습자의 모국어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어 교사를 주진행자로 하고, 모국어 화자를 보조 진행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요인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가용 학습 시간이 길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1회에 1시간 이내로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학습자의 한국 거주 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 학습보다는 장기로 설계하여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교육 방송의 교육 시수가 짧을지라도 실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한국인과 교류의 기회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비하여 진도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교수요목 설계

- 쟁점

- ✓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해 적합한 교수요목은 무엇인가?
- ✓ 교육 내용의 목록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하여 배열할 것인가?

- 설계 방향

선행 연구 및 교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가 접하는 상황, 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문법, 어휘, 발음 등이 적절하게 연계된 주제(상황)·기능 중심의 다중 교수요목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내용에 포함될 주제, 상황, 어휘, 문법 등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최근까지 개발된 다양한 교육 자료를 1차 분석 자료로 삼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재의 교육 내용을 2차 분석 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어휘나 문법은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인 한국어능력시험 1급 ~ 3급을 고려하여 이에 준하는 정도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정확성을 기르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인과 생활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어휘를 어느 정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휘 목록도 다문화 가정이 접한 실생활에 근거하여 구성해야 한다.

(4) 효율적인 교수의 준비

- 쟁점

- ✓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일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가?

- 설계 방향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교육기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 2~3회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교육 시간으로는 집체교육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방송은 학습자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어려운 학습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과 교육은 집체교육을 통해 일부 보완, 점검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교육 방송이 집체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방송용 교재를 함께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집체교육에서 동일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집체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 2~3회 교육 방송을 시청하고, 주 1회 집체교육으로 주간 학습 내용을 보완, 점검한다면 교육 효과 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방송과 집체교육의 일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5) 수업 자료의 구비 및 평가

- 쟁점

✓ 교육 방송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교수·학습 결과의 평가를 위한 내용 및 절차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설계 방향

방송 매체의 멀티미디어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구성한다. 특히 한국의 실생활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과제의 도입 단계에서 비디오 클립 장치를 활용하며, 문화 교육의 내용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방향성이라는 방송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게시판 활용, 집합 교육을 통한 일대일 피드백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방송의 매차시마다 퀴즈를 통한 간단한 평가 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방송용 교재에 일부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이끄는 자기 점검 방식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가능하다면 집체 교육이나 호주의 통신 교육에서 사용하는 원격 피드백 방식, 방문 도우미 등의 활용도 바람직할 것이다.

3.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실제

3.1. 교육과정의 개요

앞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논의를 종합하여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 교육 목표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결혼 이주여성)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갖추게 한다. 최종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숙달도 등급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은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총 3개의 등급으로 설정하여 교육한다. 등급별 교육 목표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등급 설정

등급	목 표
1급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2급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기초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3급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 등급별 교육 시간

등급	방송 상의 교육기간	방송 상의 교육 횟수	방송 상의 교육 시간
1급	6개월(25주)	75회 (1주 3회×25주)	1주 90분, 총2250분 (1회 30분×75회)
2급	6개월(25주)	75회 (1주 3회×25주)	1주 90분, 총2250분 (1회 30분×75회)
3급	6개월(25주)	75회 (1주 3회×25주)	1주 90분, 총2250분 (1회 30분×75회)

○ 교육 내용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언어 기능, 언어 범주별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내용
주제-상황, 기능	·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내용 · 기초적인 사회생활 관련 내용 · 일상적인 사회생활 관련 내용
언어 기능	· 4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 · 말하기-듣기 구어학습 · 읽기-쓰기 문어학습
문 화	·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 ·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양식
발 음	· 기초 음운체계의 발음 및 기본적인 음운 법 · 실생활의 구어 발음
어 휘	· 등급별 새로운 학습 어휘 수 1급: 700~800 어휘 2급: 1000~1100 어휘 3급: 1000~1100 어휘
문 법	· 등급별 새로운 학습 문법 수 1급: 100 항목 이내 2급: 100 항목 이내 3급: 100 항목 이내

○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은 최신 언어교육 이론을 따르되, 다문화 가정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울러 교육 방송의 형태로 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방송의 교수-학습법을 최대로 활용한다.

-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근거한 교수-학습법
- 다문화 가정의 특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수-학습법
-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법

○ 교육 자료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교육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용 교재를 함께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 방송용 교재는 교육 방송의 보조 자료이며, 동시에 집체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이다.

- 교육 방송 프로그램
- 교육 방송용 교재

○ 평가

자기 점검 방식이나 원격 피드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교육 방송 제작 시, 교재 제작 시에 반영한다.

- 자기 점검 방식에 의한 평가
- 원격 피드백, 집체교육과 방문도우미를 활용한 면대면 피드백 방법의 모색

3.2.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

(1) 교육 목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갖추게 한다.

-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정확하고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다.
- 가족과 친지와 의사소통을 하고,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도모하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및 문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 한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갖추게 한다.

(2) 숙달도별 목표

○ 1급의 목표

한국에서의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능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기본 어휘, 문법, 발음, 문장구조 등에 익숙하게 하여 암기한 표현을 활용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2급의 목표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확장된 어휘와 문법을 다양한 기능 및 상황에서 활용함으로써 기본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한다.

○ 3급의 목표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확장된 어휘와 문법을 실용적인 텍스트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체의 표현을 학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하게 한다.

(3) 기능별 목표

기능별 목표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의 숙달도별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듣기

〈표 54〉 1급의 듣기 목표

1급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들을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대화나 실용적인 텍스트를 들을 수 있다. 방해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느린 속도의 표준어를 들을 수 있다.	
	소 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전화, 병원 등
	기 능	· 기본적인 문장 듣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듣기 · 매우 간단한 안내 듣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의 텍스트를 듣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1-2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 4-8문장 내외의 문장의 연쇄 · 대화문, 서술문

〈표 55〉 2급의 듣기 목표

2급	자주 쓰이는 문장의 종결형과 연결형을 사용한 간단한 문장을 들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대화나 간단한 실용적 대화나 안내를 들을 수 있다. 방해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 느린 속도의 표준어를 들을 수 있다.	
	소 재	· 자신, 가정, 일상생활, 물건, 장소, 방향,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날씨, 직업, 쇼핑, 집, 약속, 편지, 옷, 전화, 우체국, 은행, 계획, 감정, 학교 등
	기 능	· 간단한 문장 듣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듣기 · 간단한 실용 텍스트와 설명 텍스트 듣기 · 묻고 대답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허가하기, 추측하여 표현하기, 메모하기의 텍스트를 듣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2-3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의 연쇄, 1-2개 문단의 글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표 56〉 3급의 듣기 목표

3급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에 대한 텍스트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들을 수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소재에 대한 텍스트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 설명, 비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텍스트를 들을 수 있으며, 문단 단위의 텍스트를 들을 수 있다. 방해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보통 속도의 표준어를 들을 수 있다.	
	소 재	· 가족, 가정, 직업, 쇼핑, 근황, 여행, 계획, 친구, 이웃, 학교, 직장 생활, 사건, 사고, 모양, 외모, 복장, 성격, 집안일 등
	기 능	· 문단 듣기 · 일상생활 관련 대화 텍스트나 실용 텍스트를 듣기 · 친숙한 사회적 소재로 된 대화 텍스트나 실용 텍스트를 듣기 · 설명하기, 기술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후회 표현하기, 가정 표기하기, 우려 표현하기 등의 텍스트를 듣기
	텍스트 유형	·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한 문장 · 문장의 연쇄, 2-3 문단의 글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 말하기

〈표 57〉 1급의 말하기 목표

1급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대화나 설명 텍스트를 말할 수 있다. 개별음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하고, 기본적인 음운 규칙에 따라 발음할 수 있다.	
	소 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전화, 병원 등
	기 능	· 기본적인 문장 말하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말하기 · 매우 간단한 안내 텍스트 말하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의 텍스트를 말하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1-2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 4-8문장 내외의 문장의 연쇄 · 대화문, 서술문

〈표 58〉 2급의 말하기 목표

2급	자주 쓰이는 문장의 종결형과 연결형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대화나 생활 텍스트를 말할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실용 텍스트를 말할 수 있다. 한국어의 음운 규칙에 따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	
	소 재	· 자신, 가정, 일상생활, 물건, 장소, 방향,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날씨, 직업, 쇼핑, 집, 약속, 편지, 옷, 전화, 우체국, 은행, 계획, 감정, 학교, 집안일 등
	기 능	· 간단한 문장 말하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말하기 · 간단한 실용 텍스트와 설명 텍스트 말하기 · 묻고 대답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허가하기, 추측하여 표현하기 등의 텍스트를 말하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2-3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의 연쇄, 1-2개 문단의 글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메모, 편지, 서식, 안내문, 광고문

〈표 59〉 3급의 말하기 목표

3급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에 대한 텍스트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소재에 대한 텍스트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 설명, 비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텍스트를 말할 수 있으며, 문단 단위의 텍스트를 말할 수 있다. 한국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을 듣고 조금 비슷하게 따라 말할 수 있다.	
	소 재	· 가족, 가정, 직업, 쇼핑, 근황, 여행, 계획, 친구, 이웃, 학교, 직장 생활, 사건, 사고, 모양, 외모, 복장, 성격, 집안일 등
	기 능	· 문단 말하기 · 일상생활 관련 대화 텍스트나 실용 텍스트를 말하기 · 친숙한 사회적 소재로 된 대화 텍스트나 실용 텍스트를 말하기 · 설명하기, 기술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후회 표현하기, 가정 표기하기, 우려 표현하기, 인용하기 등의 텍스트를 말하기
	텍스트 유형	·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한 문장 · 문장의 연쇄, 2-3 문단의 텍스트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 읽기

〈표 60〉 1급의 읽기 목표

1급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대화나 생활문을 읽을 수 있다. 사전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소 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전화, 병원 등
	기 능	· 기본적인 문장 읽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읽기 · 매우 간단한 실용 텍스트 읽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의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1-2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 4-8문장 내외의 문장의 연쇄 · 대화문, 서술문

〈표 61〉 2급의 읽기 목표

2급	자주 쓰이는 문장의 종결형과 연결형을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대화 텍스트나 생활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실용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사전의 도움을 받아 문단을 읽을 수 있다.	
	소 재	· 자신, 가정, 일상생활, 물건, 장소, 방향,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날씨, 직업, 쇼핑, 집, 약속, 편지, 옷, 전화, 우체국, 은행, 계획, 감정, 학교, 집안일 등
	기 능	· 간단한 문장 읽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읽기 · 간단한 실용 텍스트와 설명 텍스트 읽기 · 묻고 대답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허가하기, 추측하여 표현하기, 메모하기 등의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2-3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의 연쇄, 1-2개 문단의 글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메모, 편지, 서식, 안내문, 광고문

〈표 62〉 3급의 읽기 목표

3급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에 대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을 수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소재에 대한 글을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수 있다. 설명, 비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글을 읽을 수 있으며, 문단 단위의 글을 읽을 수 있다. 사전의 도움을 받아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소 재	· 가족, 가정, 직업, 쇼핑, 근황, 여행, 계획, 친구, 이웃, 학교, 직장 생활, 사건, 사고, 모양, 외모, 복장, 성격, 집안일 등
	기 능	· 문단 읽기 · 일상생활 관련 대화 텍스트나 실용 텍스트를 읽기 · 친숙한 사회적 소재로 된 대화 텍스트나 실용 텍스트를 읽기 · 설명하기, 기술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후회 표현하기, 가정 표기하기, 우려 표현하기 등의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 유형	·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한 문장 · 문장의 연쇄, 2-3 문단의 글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메모, 편지, 서식, 안내문, 광고문

○ 쓰기

〈표 63〉 1급의 쓰기 목표

1급		외운 문장을 이용하거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대화 텍스트나 실용 텍스트를 쓸 수 있다.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맞춰 글자를 쓸 수 있다.
	소 재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위치,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쇼핑, 날씨, 전화, 병원 등
	기 능	· 기본적인 문장 쓰기 · 간단한 대화 텍스트 쓰기 · 매우 간단한 텍스트를 쓰기 ·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주문하기, 위치 표현하기, 시간 표현하기, 일상생활 표현하기, 요청하기, 명령하기 등의 텍스트를 쓰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1-2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 4-8문장 내외의 문장의 연쇄 · 대화문, 서술문

〈표 64〉 2급의 쓰기 목표

2급	자주 쓰이는 문장의 종결형과 연결형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대화나 생활문을 쓸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실용문을 쓸 수 있다. 학습한 어휘의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알아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다.	
	소 재	· 자신, 가정, 일상생활, 물건, 장소, 방향,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날씨, 직업, 쇼핑, 집, 약속, 편지, 옷, 전화, 우체국, 은행, 계획, 감정, 학교 등
	기 능	· 간단한 문장 구성하기 · 간단한 대화문 구성하기 · 간단한 실용문과 설명문 쓰기 · 묻고 대답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허가하기, 추측하여 표현하기, 메모하기 등의 텍스트를 쓰기
	텍스트 유형	· 연결어미(2-3개)가 사용된 문장. · 문장의 연쇄, 1-2개 문단의 글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메모, 편지, 서식, 안내문, 광고문

〈표 65〉 3급의 쓰기 목표

3급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에 관하여 정확하고 유창하게 글을 쓸 수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소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다. 설명, 비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문단 단위로 글을 쓸 수 있다. 음운 규칙을 이해하고 문장을 받아쓸 수 있다.	
	소 재	· 가족, 가정, 직업, 쇼핑, 근황, 여행, 계획, 친구, 학교, 직장 생활, 사건, 사고, 모양, 외모, 복장, 성격 등
	기 능	· 문단 구성하기 · 일상생활 관련 대화나 실용문을 쓰기 · 친숙한 사회적 소재로 대화 구성하거나 글 쓰기 · 설명하기, 기술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후회 표현하기, 가정 표기하기, 우려 표현하기 등의 텍스트를 쓰기
	텍스트 유형	· 다양한 연결어미를 사용한 문장 · 문장의 연쇄, 2-3 문단의 글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메모, 편지, 서식, 안내문, 광고문

3.3. 교육 내용

(1) 문법 항목

문법 항목은 한국어 교육계에서 현재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기초로 하고,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문법항목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 목록을 선정하였다.⁶⁸⁾ 급별 교육 내용은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및 등급별 시수를 고려하여 1차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주요 품사의 배열

	1급	2급	3급
수사	고유어 수사 한자어 수사		
명사	단위 명사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관형사	수관형사 이, 그, 저		

○ 조사

	1급	2급	3급
주격	이/가 께서(는)		
대격	을/를		
속격	의		
처격	에 에서		
여격	에게 께		
구격	(으)로(방향, 수단)		
공동격	와/과 하고		

68) 문법 사항의 분류는 기존 국어 문법서인 고영근(1985)의 「표준 국어문법론」, 이익섭·임홍빈(1983)의 「국어 문법론」 체계를 따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교육과정에 근거했다. 그리고 급별 문법 항목 선정은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결과물이다.

	1급	2급	3급
특수조사	은/는 도 부터 까지 마다 만 (이)나	처럼 밖에	에다가 (이)라도 뿐

○ 어말어미

① 전성어미

	1급	2급	3급
관형사형	-(으)ㄴ -는 -(을)ㄴ		-던 -았/었던
명사형	-기		
부사형		-게	

② 연결어미

	1급	2급	3급
의도	-려고 (하다)	-려고 -(으)려면	-고자
목적	-(으)러		
배경		-(으)ㄴ/는데	
이유	-(으)니까 -아/어서	-(이)라서 -이어/여서 -(으)ㄴ테니까	-느라고
지속	-아/어서		
나열	-고	-아/어(서)	
동시	-(으)면서	-(으)며	
상반	-지만	-거나	
필요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다)	-아/어야
조건, 가정	-(으)면		
전환		-다가 -(으)ㄴ텐데	-았/었다가

	1급	2급	3급
도급		-도록 (하다)	-도록
선택			-든지
익심			-(으)면 -(으)르수록
연발			-자(마자)
설명			-았/었는데도 -는데도 -더니 -았/었더니 -다니
사실	-아/어도 (되다)		-아/어도
반복			

③ 종결어미

	1급	2급	3급
평서형	-ㅂ/습니다 -아/어요 -아/어	-겁니다 -다	-거든요 -잖아요 -(으)걸요
감탄형	-네(요)	-(는)군요	-네 -(는)구나
의문형	-ㅂ/습니까 -아/어요 -(으)르까요 -아/어	-건가요 -나요 -냐 -니 -인가요 -지	-다지요 -(이)라지요 -(으)라고요 -(으)르까말까 (하다)
명령형	-(으)십시오 -(으)세요 -아/어		-지 못해(요)
청유형	-아/어 -(으)십시오	-자	-지 그래요

○ 불규칙활용

	1급	2급	3급
ㄴ	○		
으	○		
ㄷ	○		
ㄹ	○		
르	○		
ㅅ		○	
ㅎ		○	

○ 부정문

	1급	2급	3급
안 V	○		
못 V	○		
-지 않다	○		
-지 말다	○		

○ 시제

	1급	2급	3급
현재	-는 N -(으)ㄴ N		
과거	-았/었-		
미래	-겠- -ㄹ 것이다 -ㄹ게요 -(으)ㄹ N		
회상			-더- -던 N -았/었던 N

○ 경어법

		1급	2급	3급
주체경어법		-(으)시-		
상대경어법	해라체		-다 -니 -냐 -지 -자 -라	-(는)구나
	해체 반말	-아/어		-네
	하계체		-나	
	해요체	-아/어요		
	합쇼체	-ㅁ/습니다 -(으)ㅁ시다 -ㅁ/습니까 -(으)십시오		
특수어휘에 의한 경어법		계시다 드리다 잡수시다 댁 께(서) -님 주무시다 생신 성함	연세 여쭙다[여쭙다] 편찮다 뵙다[뵈다] 돌아가시다 죄송하다	

○ 피동과 사동

	1급	2급	3급
접미사적 피동			-이/히/리/기-
통사적 피동			-아/어지다
단형 사동			-이/히/리/기/우/구/추-
장형 사동			-게 하다

○ 간접인용문

	1급	2급	3급
평서형		-다고 하다 -(이)라고 하다	-(으)ㄴ 것이라고 /거라고 하다 -대요 -(이)래요 -다/라고 듣다 -다/라고 그랬다 -다/라고 하던데요
의문형		-냐고 묻다[하다]	
명령형		-라고 하다	
청유형		-자고 하다	

○ 접미사

	1급	2급	3급
파생접사			-답다 -아/어하다(기빠하다, 슬퍼하다)

○ 활용어미에 의한 표현⁶⁹⁾

	1급	2급	3급
명사류		-기 때문에 -기 전에 -(으)ㄴ/는 데다가 -(으)ㄴ 때 -(으)ㄴ 후에	-았/었을 때 (내가) -기에는 -는 대신 -(으)ㄴ 대로
명사+서술격 조사류			-(으)ㄴ 지(가) 걱정이다 -(으)ㄴ/는 편이다 -(으)ㄴ/는/(으)ㄴ 모양이다 -는 중이다 -(으)ㄴ 생각이다

69) 표현은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못했으며, 주요 표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1급	2급	3급
동사류	-(으)면 안 되다	-(으)리지 모르다 -았/었는지 모르겠다 -(으)리 줄 알다[모르다] -로 하다 -(으)면 되다 -려고만 들다	-(으)ㄴ/는/(으)ㄴ 줄 몰랐대[알았다] -는 법을 알다[모르다] -아/어야겠다 -기를 바라다 -(으)ㄴ까 하다 -(으)ㄴ 생각도 못하다 -기는 틀렸다 -(으)ㄴ/는 척하다
형용사류	-(으)ㄴ 수 있다[없다] -(으)ㄴ 것 같다	-(으)ㄴ 적이 있다 -아/어서 그래요 -아/어도 괜찮다 -(으)ㄴ 게 뻔하다	
부사류			-기 위해서 -이가 이렇게[그렇게, 저렇게]
보조용언류	-고 싶다 -아/어 주다 -아/어야 하다 -아/어 보다 -(으)려고 하다	-아/어 버리다 -게 되다 -아/어야 되다	-나 보다 -(으)ㄴ가 보다 -고 있다(상태) -아/어 오다[가다] -고 말다 -아/어 놓다[두다] -(으)ㄴ 뻔하다 -(으)ㄴ 만하다
연결어미류			-아/어 보니까 -아/어야 할 텐데 아무리 -아/어도 하도 -아/어서 -았/었어야 하는데 -기는 -지만 -(으)ㄴ까 봐 얼마나 -(으)ㄴ/는데 만약에 -다면 -(으)ㄴ 뿐만 아니라 -는데도 불구하고 -고 보니

(2) 어휘

○ 1급

-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단어를 익힌다.
- 6개월(25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총 700~800어휘를 학습하도록 한다.
- 주 3회 교육 실시할 경우, 1회에 10개 이내의 어휘를 학습하도록 한다.

○ 2급

- 일상생활 및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휘를 익힌다.
- 6개월(25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총 1000~1100어휘를 학습하도록 한다.
- 주 3회 교육 실시할 경우, 1회에 15개 이내의 어휘를 학습하도록 한다.

○ 3급

-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휘를 익힌다.
- 6개월(25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총 1000~1100어휘를 학습하도록 한다.
- 주 3회 교육 실시할 경우, 1회에 15개 이내의 어휘를 학습하도록 한다.

VII.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교수요목 개발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에서 선정한 교육 내용을 조합하고 교육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교수요목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교수요목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교육할 것인지를 담고 있으므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 장에서는 교수요목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에 적합한 교수요목 유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3단계로 설계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에 맞추어 각각의 교수요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수요목의 유형과 특성

교수요목은 크게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과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으로 나눌 수 있다. 결과 지향적 교수요목에는 구조 중심 교수요목, 상황 중심 교수요목, 개념-기능 중심 교수요목이 있다. 과정 지향적 교수요목에는 과정 중심 교수요목과 과제 중심 교수요목이 있다. 교수요목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조 중심 교수요목

구조 중심 교수요목은 문법 중심의 교수요목이라고도 하는데, 목표 언어의 문법이나 구조를 강조하여 설계하는 교수요목이다. 따라서 구조 중심 교수요목은 우선 목표 문법 항목을 난이도,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에 순서를 정하여 제시하여 설계한다.

문법 중심의 교수요목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교수기법이나 전문성이 없어도 가르칠 수 있고, 문법이 언어 학습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는 학습자들에게 호응을 받는 교수요목이다. 그러나 이 요목은 교수 내용이 언어 형식(즉, 문법)에 머무르고 의미(즉, 언어 사용)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상황 중심 교수요목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먼저 의사소통 장면 즉, 거리, 버스 정류장, 시장, 집, 가게, 식당, 학교, 우체국, 은행, 지하철, 택시, 문방구, 세탁소, 백화점, 휴게소, 직장, 슈퍼마켓 등 특정한 언어 상황을 선정하여 배열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문법, 어휘 등)를 단위마다 배치하여 설계하는 교수요목이다. 이 교수요목은 상황에 맞게 언어(문법, 어휘 등)를 결합시키므로 언어의 사용 측면을 강조한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은 언어 학습이 사용 상황과 유리될 수 없다는 특징으로 볼 때 언어 학습을 통해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선정하고 배열할 것인지에 일관성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어 수행이 반드시 발화 목적 내지 발화 의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어 교육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3) 기능 중심 교수요목

기능 중심 교수요목에서 교수 항목의 단위는 요청하기, 설명하기, 인사하기, 거절하기, 감사하기, 제안하기, 설득하기 등과 같은 언어 기능이다. 이 교수요목은 기능적인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을 언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삼기 때문에, 먼저 학습해야 할 기능을 단위마다 적절하게 배열한 후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는 관련 문법, 표현이나 어휘를 배열하여 완성한다.

기능 중심 교수요목은 위의 두 교수요목에 비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교수요목에서 기능도 또한 항목의 축적에 불과하므로 언어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기능 교수요목은 언어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지만 언어의 전체는 아닐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고 있다. 기능 교수요목이 비생성적이어서 언어의 창조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4) 개념 중심 교수요목

개념 중심 교수요목에서 교육의 단위는 시간, 수량, 공간, 거리, 위치 등과 같은 개념 범주이다. 이 교수요목도 기능 중심 교수요목과 같이 언어 학습에서 필요한 개념을 선정하여 단위마다 배열한 후, 이와 관련된 언어 형태(문법, 표현, 어휘 등)를 선정하여 단원을 구성한다.

이 교수요목은 언어 학습의 최종 목표를 언어 형식을 학습하여 개념을 표현하는 능

력에 두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념이라는 것이 언어의 중요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전체는 아니므로, 개념이라는 특정 언어 항목의 축적으로 이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5) 내용 중심 교수요목

내용 중심 교수요목은 주제 중심 교수요목이라고도 불리는데, 학습자에게 관심이 있는 내용이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설계하는 교수요목이다. 주제 또는 내용을 선정하여 배열한 후, 관련된 언어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이때 주제나 내용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배열한다.

(6) 과정 중심 교수요목

과정 중심 교수요목은 교수요목이 수업에서 교사나 학습자에 의하여 계속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교수요목은 수업 이전에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만을 계획한다. 그리고 실제 교육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언어 요소들이 교육된다. 즉, 이 교수요목은 수업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게 된다. 과정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교수요목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습자의 창의적 활동에 주목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수요목이라고 할 수 있다.

(7) 과제 중심 교수요목

과제 중심 교수요목에서 설계의 기본 단위는 주문하기, 물건 사기, 집 구하기 등 특정 목적을 갖는 과제 활동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과제로 유형화하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언어의 종류와 양, 필요한 자료, 문제 해결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제 배열 순서를 정한다. 결국 학습자는 언어 학습으로 통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8) 기술 중심 교수요목

기술 교수요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기술이 설계의 기본 단위이다. 기술 중심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특히 필요로 하는 언어 기술들을 학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추론하여 듣기, 중심 생각 파악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특정 정보 듣기, 맥

락에서 추측하기, 훑어 읽기 등의 언어 기술이 교수요목의 주요 내용이 된다.

(9) 혼합 교수요목

혼합 교수요목은 두 개 이상의 교수요목이 통합되어 설계되는 교수요목이다. 예를 들어 상황-기능-구조 교수요목과 같이 여러 교수요목의 장점을 살려 설계하는 복합 교수요목이다. 상황-기능 교수요목을 설계할 때는 먼저 언어 사용 상황을 배열하고 관련 기능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조, 어휘 등을 적절히 배열하여 설계한다. 이 교수요목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을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작업이 1차로 이루어지지만, 관련 기능의 난이도에 따라 배열 순서가 조정되기도 하므로 상황을 절대적인 요소로 삼지는 않는다.

이 교수요목은 특정한 상황, 기능, 과제 등과 함께 언어 요소(구조, 어휘 등)를 연관 지어 설계하기 때문에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으로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는 혼합 교수요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상황(주제)-기능 중심의 교수요목 설계

(1) 교수요목 선정 이유 및 설계 방향

교육과정의 뼈대에 해당되는 교수요목이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 필요에 맞게 구성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이 직면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고, 교육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 특히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에서 한국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환경에 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동시에 한국 가족, 친척과 함께 원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환경적 요소인 문화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일란(2007)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에게 그들을 위한 교수요목을 구성할 때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 가족과 원만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확한 한국어 발음과 문법에 대한 학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들이 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표현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 상황을 중심으로 하고, 상황과 관련된 유용한 표현을 연결하여 교수하는 상황(주제) 중심 교수요목과 과제의 기능을 중심으로 교수하는 기능 중심 교수요목을 아우르는 다중 교수요목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사 대상의 요구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V 교육 방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상황-기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연습활동 중심’이 10%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여성을 교육하는 그리고 교육하고자 하는 교사들도 상황을 중심으로 문법이나 표현을 교육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상황(주제) 중심 교수요목은 상황이나 대화의 주제에 따라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실제로 교실 밖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선정해 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어휘, 표현 등을 교육시킨다. 기능 교수요목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어휘, 표현을 중심으로 교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의사소통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표현을 가르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이 두 교수요목의 장점을 부각시킨 혼합 교수요목을 통해 정확성 훈련을 위해 발음, 문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유창성 확보를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를 기능 중심으로 가르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수요목을 실제로 구성할 때 상황은 도시와 농촌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미(2006)에서 연구한 2005년 말 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거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와 농어촌의 결혼 이주여성의 거주 비율이 도시가 75%, 농촌이 25%로 도시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그러므로 도시 상황과 농촌 상황을 7:3 정도로 배분하여 도시의 일상적인 상황을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시골의 일상적인 상황보다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0) 이성미(2006)에서 제시한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보고한 “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대책”을 참조한 것이다.

(2) 내용 선정과 배열

등급별 필수적인 일상 대화 상황(주제)과 기능에 대한 교수 내용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들과 각 대학교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상황(주제), 기능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교재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시중에 출판된 교재 총3종, 5권과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 총7종, 15권이다. 서명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중급), 『관심, 사랑,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관심, 사랑,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중급), 『우리 엄마의 한국어』, 경희대학교 『한국어』(1,2,중급1), 서울대학교 『한국어』(1,2), 서강대학교 『한국어』(1A,1B),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1,2,3), 선문대학교 『초급 한국어』, 성균관대학교 『말하기 쉬운 한국어』(1,2), 연세대학교 『한국어』(1,2)이다.

① 상황(주제) 선정

초급, 중급의 등급별 교수요목에 필요한 상황과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본 자료가 되는 총10종, 20권의 책을 대상으로 각 등급별로 나타난 상황, 주제를 검토해 그 중복 출현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 초급

초급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재 3종, 3권에서 나타난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6〉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급 교재의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

중복 출현 빈도수(회)	주제 및 상황
5	시장
4	음식
3	교통수단, 날짜, 병원, 인사
2	계획, 가족, 농사일, 물건, 소개, 옷차림, 위치, 일상생활, 시간, 전화, 주말
1	가정생활, 경험, 계모임, 계절, 길 찾기, 날씨, 돌잔치, 명절, 미장원, 보건소 부탁, 사람 묘사, 식당, 은행, 장소, 지하철역, 초대, 출산, 한국어 공부, 허락

다음은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 중 7종, 13권에 나타난 상황(주제)을 검토해 그 중복 출현 빈도수(회)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 교재들은 어학 연수생이나 유학생, 한국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교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전문 교재로 각 대학 기관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교재이다.

〈표 67〉 어학 연수생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

중복 출현 빈도수(회)	주제 및 상황
14	쇼핑
12	교통
11	전화
9	계획, 위치/장소
8	교실, 초대, 여행
7	식당
6	집, 취미
5	가게, 날씨, 가족, 약국, 커피숍, 우체국
4	하루일과, 계절, 자기소개, 설날, 병원, 소개, 편지, 이메일, 음식
3	학교, 인사, 영화, 약속, 날짜, 길 찾기, 시간, 어제 한 일, 직업
2	만남, 시험, 미용실, 주말, 좋아하는 것, 생일
1	옛날이야기, 예약, 능력, 하고 싶은 일, 일상생활, 한국 생활, 한국어, 도움, 도시, 수, 사회생활, 옷, 운동, 일기, 시내, 공공장소, 능력, 사무실, 경험, 건강, 주문, 가격, 집안일, 책, 첫 출근, 추석, 출입국사무소, 자동차, 비교, 방문

○ 중급

중급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재 2종, 2권에서 나타난 상황(주제)의 중복 출현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8〉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급 교재의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

중복 출현 빈도수(회)	주제 및 상황
3	아이 교육, 병원
2	가족행사, 귀화, 명절, 미용실, 드라마 시청, 쇼핑, 우체국, 옷차림, 은행, 이사, 전화, 집들이
1	걱정, 결혼 생활, 근황, 돌잔치, 동사무소, 문화센터, 문화 차이, 반말, 부탁, 사건, 성격, 세탁소, 수리, 여행, 외국인상담소, 요리, 음식, 이주민 축제, 일기예보, 집수리, 집안일, 취미, 컴퓨터, 학교 급식, 한국 생활, 환불

다음은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한국어 교재 중 2종, 2권에 나타난 상황(주제)을 검토해 그 중복 출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중급 교재는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중급 1>과 이화여자대학교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을 대상으로 상황(주제)의 중복 출현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표 69〉 어학 연수생을 위한 한국어 중급 교재의 상황(주제) 중복 출현 빈도수

중복 출현 빈도수(회)	주제 및 상황
4	쇼핑(환불 포함)
3	직장 생활(취직, 면접 포함)
2	여행, 도시생활
1	첫인상, 취미, 날씨와 생활, 정보, 편지, 감정, 병원, 식당, 보고, 이웃, 사건, 회상, 대인관계, 규칙 위반, 금연, 돌잔치, 카센터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면 초급의 교수요목에서는 공히 시장, 음식, 옷차림, 전화 등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 가족, 친척과 같은 친숙한 주제와 상황이 대부분 제시된 반면에 중급에서는 이와 더불어 대상 학습자의 주변 환경과 밀접한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학 연수생을 위한 교재에서는 학교생활이나 직장 생활, 도시생활에 대한 내용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주제나 상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이주여성을 위한 교재에서는 아이 학교, 미용실, 문화센터, 외국인 상담소, 귀화, 이주민 문제 등과 관련된 상황이 새롭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중급에서는 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한 후에 느끼는 실제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의 반경도 넓혔음을 알 수 있다.

② 기능 선정

○ 초급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재 중 초급 교재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관심, 사랑,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초급)>, <우리 엄마의 한국어> 3권에 나타난 기능의 중복 출현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0〉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급 교재의 기능 중복 출현 빈도수

중복 출현 빈도수(회)	기능
5	소개하기
4	교통수단 이용하기
3	계획하기, 음식에 대해 말하기, 물건 사기
2	계절과 날씨 말하기, 농사일에 대해 말하기, 사람과 물건 묘사하기, 시장보기, 위치 말하기, 인사하기, 장소 말하기, 전화하기, 증상 말하기, 하루일과 말하기
1	가정생활 말하기, 거절하기, 경험 말하기, 계모임 말하기, 과거 일상생활 말하기, 금지 말하기, 길 묻기, 고마움 말하기, 돌잔치 의논하기, 명절에 대해 말하기, 미용실 이용하기, 보건소 이용하기, 부탁하기, 식당 이용하기, 아이와 대화하기, 약속하기, 옷차림 말하기, 은행 이용하기, 음식 주문하기, 이유말하기, 일상생활 말하기, 제안하기,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집안 행사에 대해 말하기, 출산에 대해 말하기

다음에서는 어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초급 교재에 나타난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 나와 있는 한국어 초급 교재 중 경희대학교 <한국어 1,2>, 서울대학교 <한국어 1,2> 서강대학교 <한국어 1A,1B>,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1,2>, 선문대학교 <초급 한국어>, 성균관대학교 <말하기 쉬운 한국어 1,2>, 연세대학교 <한국어 1,2> 총 7종, 13권에 나타난 기능을 검토해 그 중복 출현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1〉 어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초급 교재의 기능 중복 출현 빈도수

중복 횟수	기능
18	계획 말하기
17	물건사기 (쇼핑관련 표현하기, 상품 주문하기)
16	조연구하기/조언하기
15	제안하기
14	길 찾기, 부탁/요청하기, 긍정/부정 표현하기
13	이유 말하기
12	과거 표현하기/ 역사적 사건 말하기, 비교하기, 교통수단 관련 정보 묻기/대답하기
11	정보 얻기/구하기, 개인정보 말하기 (가족/나이/직업 묻고 답하기), 허락하기/거절하기, 추측하기
10	위치 표현하기, 전화하기
9	약속하기, 소개하기, 수 말하기, 의도 말하기/묻기, 음식 주문하기
8	가격 말하기, 경험 말하기, 순서 표현하기
7	계절/날씨 말하기, 은행 이용하기, 의문사 말하기, 초대/방문하기, 인사하기/안부 묻기, 사실 확인하기, 우체국 이용하기, 시간 말하기
6	증상 말하기, 희망/하고 싶은 것 말하기, 편지 관련 표현하기, 경어법 말하기, 날짜/요일 말하기
5	여가활동 말하기, 여행관련 표현하기, 외모 묘사하기(옷차림, 머리모양), 비격식체 말하기, 하루일과 말하기, 취향 말하기, 주문하기, 상황 묘사하기, 병원 이용하기
4	당위/의무 표현하기, 감탄 말하기, 반말하기
3	의견 묻기/확인하기, 물건에 대해 묻고 답하기, 화제 전환하기, 선택하기, 일상생활 말하기, 미래형 말하기/미래 표현하기, 목적 말하기, 메모하기/전하기, 능력 말하기, 금지 말하기, 건강과 관련한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말하기, 사과/변명하기
2	교실 용어 익히기, 기본 문장 말하기, 동시상황 표현하기, 의논하기, 불규칙 용언 말하기, 성격 묘사하기, 동작 표현하기, 음식 특성 말하기, 일기 쓰기, 겸손하기 표현하기, 관형형 말하기, 조건 제시하기, 조사 활용하기, 지시대명사 말하기, 직업 말하기, 집구하기, 취미 말하기, 칭찬하기/답례하기, 풍경 묘사하기, 형용사로 표현하기, 회사에서 업무 말하기, 격식체 말하기, 걱정 표현하기, 간접 화법 말하기, 간략하게 말하기, 가족 관계 말하기, 가정 사실 표현하기, 잃어버린 물건/사람 찾기, 동의하기, 명령 표현 말하기, 일기 쓰기

중복 횟수	기능
1	시간 경과 표현하기, 회상하기, 행위 전환하기, 행동 묘사하기, 최상급으로 표현하기, 초대장 쓰기, 차 관련 표현하기, 준말 익히기, 좋아하는 것 묻기, 종류 말하기, 조리법 설명하기, 정의하기, 접속사로 말하기, 자세히 설명하기, 이야기 읽고 감상하기, 의성어 익히기, 위로하기, 완료되지 않은 사실 표현하기, 예약하기, 영화 표사기, 양해 구하기, 양보문 만들기, 약속 확인하기, 시도 표현하기, 감사 표현하기, 소식의 출처 알아내기, 설문 조사하기, 서술문 쓰기, 색 이름 말하기, 상황 변화 표현하기, 상대방 이야기 정정하기, 사동 말하기,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불발 사건 말하기, 부정의문문 말하기, 변화의 결과 말하기, 물건 교환하기, 명명하기, 대조하여 말하기, 나라의 특징 기술하기, 기원하기, 기분/느낌 말하기, 권유하기, 구어체 표현하기, 공공 기관 업무 보기, 계획 변경하기, 경향 말하기, 경로/경유지 확인하기, 거짓 행위 표현하기

○ 중급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급 교재인 <관심, 사랑, 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중급)>,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한국어 중급)> 2권에 나타난 기능의 중복 출현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2〉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급 교재의 기능 중복 출현 빈도수

중복 출현 빈도수(회)	기능
2	귀화 문제 말하기, 아이 선생님과 상담하기, 명절 풍습 이야기하기, 우체국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1	근황 묻고 대답하기, 들은 이야기 전하기, 결혼 생활의 어려운 점 말하기, 동사무소에서 일 처리하기, 문화 차이 이야기하기, 미용실 이용하기, 반말로 말하기, 백화점 안내도를 보고 가게 찾기, 병원가기, 세탁 표지 보고 세탁 방법 말하기, 쇼핑하기, 아이 교육하기, 아이 진학 문제 상담하기, 어울리는 머리모양 추천하기, 여러 나라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여행 예약하기, 옛날과 달라진 것 말하기, 옷차림 설명하기, 의논하기, 이사 갈 집과 어린이집 알아보기, 인터넷 쇼핑과 동대문 쇼핑 비교하기, 일기예보 말하기, 전자제품 고장 수리 부탁하기, 전화로 물건 사고팔기, 청첩장 보고 말하기, 조언하기, 컴퓨터/인터넷 이용하기, 콜센터에 전화하기, 텔레비전 시청하기, 아이 학교 급식 당번에 대해 말하기, 드라마 보고 이야기하기, 자신의 나라 요리 소개하기, 환불 받기

어학 연수생을 위한 한국어 중급 교재는 경희대학교의 <한국어 중급1>과 이화여자 대학교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을 대상으로 기능의 중복 출현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3〉 어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중급 교재의 기능 중복 출현 빈도수

중복 출현 빈도수(회)	기능
7	일상생활에 관련된 기능(충고 및 조언하기, 부탁 거절하기, 도움 요청하기, 늦은 이유 추측하기, 두고 온 물건 말하기, 돌잔치 조언하기, 축하 카드 쓰기)
6	- 인물 소개에 관련된 기능(인물 묘사하기, 자기 소개하기, 친구 소개하기, 성격 설명하기, 장래 설계하기, 취미 소개하기) - 쇼핑에 관련된 기능(교환 및 환불하기, 쇼핑에 대한 정보 주기, 쇼핑에 대해 비교 추천하기, 시장 추천하기, 옷 가게에서 옷에 대해 조언 구하기, 옷에 대한 조언하기)
5	- 회사 생활에 관련된 기능(동료 고민 듣고 위로하기, 회사 면접에 대해 조언 구하기, 동호회 가입 거절하기, 취직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 위로하기, 회사 동료 위로하기) - 의견 이해 및 제시에 관련된 기능(반말로 이야기하기, 안내 방송 이해하기, 설문 조사 결과 발표하기, 인터넷 정보 찾기, 일의 목적 서술하기)
4	- 학교생활에 관련된 기능(도서 대출하기, 시험 불참에 대해 사죄하기, 학창시절 회상하기, 기숙사 방 친구에 대해 불평하기) - 여행에 관련된 기능(가볼만한 곳 추천하기, 광고 보고 여행지 결정하기, 여행에 관한 보고서 작성하기, 일기 예보 보고 계획 세우기)
3	- 건강에 관련된 기능(금연 조언하기, 불면증 조언하기, 증상 말하기) - 비교, 대조에 관련된 기능(도시생활 비교하기, 우편 배달 방법 비교·대조하기, 정보 전달 매체의 장단점 주장하기) - 전달에 관련된 기능(신문기사 내용 전하기, 전화로 메모 전달하기, 인용문을 이용하여 들은 내용 전하기)
2	- 음식에 관련된 기능(음식 주문하기, 음식 추천하기) - 이웃에 관련된 기능(새 이웃에게 조언하기, 이웃에게 부탁하기)

이상에서 등급별 교재에 나타난 기능을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급에서는 ‘소개하기, 정보 구하기, 계획 말하기, 약속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음식에 대해 말하기, 물건 사기, 근황 묻고 대답하기, 은행 이용하기, 우체국 이용하기’ 등과 같은 일상적이고 평이한 기능이 주로 연습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급으로 올라가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늦은 이유 말하기, 두고 온 물건 말하기, 돌잔치 조언하기’ 등과 같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이 상황에 맞는 기능을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행에 관련된 상황에도 ‘가 볼 만한 곳 추천하기, 광고 보고 여행지 결정하기, 여행에 관한 보고서 쓰기, 일기 예보 보고 계획 세우기’ 등 다양하고 세부적인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여성을 위한 중급 교재에서는 이들의 상황과 관련된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귀화 문제 말하기, 명절 풍습 이야기하기, 아이 선생님과 상담하기, 아이 진학 문제 상담하기, 이사 갈 집과 어린이집 알아보기’ 등 외국인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주부로서의 영역으로 넓혀 그들이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다양한 언어 기능을 학습하고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수요목의 실제

이 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을 위한 초급, 중급, 고급의 실제 교수요목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이 교수요목은 앞에서 살펴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초급, 중급 교재와 어학 연수생 및 예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급, 중급 교재에서 나타난 상황(주제)과 기능의 중복 출현 빈도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상황과 주제가 다양하게 선정되었는지, 통합적인 활동인지,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방송 매체를 활용한 교육 현장 요구에 적절한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상황과 주제를 등급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일상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기본틀로 하여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그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내용이 보완, 가미되어 특색 있게 구성되었다.

(1) 초급 교수요목

초급은 6개월을 단위로 하여 총 24~25주(24~25개 단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1개 단원은 3개 과로, 총 75과로 구성한다. 1개 단원은 1주일 3회의 방송 분량에 적당하도록 구성하여 1개 단원은 30분씩 주3회, 총90분 방송 분량 나누어 학습이 진행된다. 제1주는 한글 자모를 익히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단원으로 한글 자음과 모음의 발음,

연음 현상, 문장의 기본 구조 등을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주부터 제25주까지는 일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문법과 표현을 상황과 주제에 맞게 학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4〉 초급 교수요목

단원/주	상황/주제	기능
1	한글	자모 익히기, 음절 구성하기, 단어 읽고 쓰기, 받침 발음하기, 문장 구성하기
2	소개	인사하기, 국적 묻고 답하기, 자기소개의 글 읽고 쓰기
3	집	집 안의 물건 이름 말하기, 집 안의 물건 위치 설명하기, 집을 묘사하는 글 읽고 쓰기
4	가족	가족 관계 말하기, 가족 소개하기, 가족 소개의 글 읽고 쓰기
5	날짜	날짜 말하기, 요일 말하기, 계시문 읽고 쓰기
6	시간	시간 말하기, 약속하기, 메모 읽고 쓰기
7	하루 일과	하루 일과 말하기, 과거 사실 말하기, 일기문 읽고 쓰기
8	시장	물건 가격 묻기, 물건 사기, 광고지 읽기
9	음식	음식의 맛 말하기, 먹고 싶은 음식 말하기, 한국 음식 소개의 글 읽고 쓰기
10	주말	미래 사실 말하기, 주말 계획 말하기, 주말 계획 읽고 쓰기
11	가정생활	가정생활 말하기, 높임말로 말하기, 편지글 읽고 쓰기
12	계절과 날씨	좋아하는 계절 말하기, 날씨 말하기, 일기예보 읽기
13	우체국과 은행	우체국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안내문 읽기
14	전화	도움 요청하기, 정보 확인하기, 전화 메모 읽고 쓰기
15	교통	교통수단 이용하기, 가는 방법 설명하기, 가는 방법 설명하는 글 읽고 쓰기
16	식당	음식 주문하기, 음식의 기호 설명하기, 식당 소개의 글 읽고 쓰기
17	길 찾기	길 묻기, 위치 설명하기, 장소 안내하는 글 읽고 쓰기
18	병원	증상 말하기, 금지 표현하기, 건강 관련 글 읽고 쓰기
19	초대	제안하기, 부탁하기, 초대장 읽고 쓰기
20	취미	자신의 능력 말하기, 취미 말하기, 취미 소개의 글 읽고 쓰기
21	허락	이유 말하기, 허락 구하기/받기, 체육관 시설 이용 안내문 읽기
22	집안일	집안일의 어려움 말하기, 집안일에 대한 금지 표현하기, 생활 정보 읽고 쓰기
23	한국어 공부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기, 자신의 의지 말하기, 이메일 읽고 답장 쓰기
24	옷차림	감탄 표현하기, 옷차림에 대해 조언하기, 광고문 읽기
25	계획	미래 계획 말하기, 추측하여 말하기, 계획 관련 글 읽고 쓰기

(2) 중급 교수요목

중급도 초급과 동일하게 6개월 간 총 24~25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1개 단원은 3개 과로 구성하며, 1개 단원을 1주일 3회의 방송 분량에 적당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1개 단원은 총 90분 방송 분량으로 한 부분은 1회 방송 분량(30분)으로 주3회에 나누어 1개 단원을 학습하게 된다. 1과와 2과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한 강의 내용이며, 3과는 읽기를 중심으로 말하기, 쓰기 활동으로 확장된다. 중급의 교수요목은 초급의 교수요목에서 다룬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에 아이 교육,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 이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 소개, 문화 차이 설명하기, 한국 문화, 풍습과 관련된 집들이, 돌잔치, 부모님 생신, 명절 등과 같은 학습자 문화와 한국 문화와 연관된 내용을 보충하여 한국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75〉 중급 교수요목

단원/주	상황/주제	기능
1	장보기	물건 값 흥정하기, 물건 교환하기, 장보기 좋은 곳에 대한 소개의 글 읽고 말하기
2	첫인상	인상착의 설명하기,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바로 알려주기, 인물 비교하는 글 읽고 쓰기
3	만남	반말하기, 늦는 이유 추측하기, 즐거웠던 약속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4	이사	집 구하기, 집의 장단점 말하기, 이삿집센터 광고 읽고 문의하기
5	성격	성격 표현하기, 성격 비교해서 말하기, 자신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글 읽고 쓰기
6	경험	좋았던 경험 조언하기, 개인적 경험 말하기, 한국에서 경험의 글 읽고 말하기
7	건강	증상 설명하기, 건강에 대한 조언하기,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한 글 읽고 쓰기
8	예약	기차표 시간 문의하기, 순서대로 말하기, 인터넷의 숙소 소개 글 읽고 예약하는 글쓰기
9	돌잔치	돌잔치 의미 묻기, 돌잔치에 대해 의논하기, 돌잔치 초대장 읽고 쓰기
10	이웃	이웃과 사귀기, 도움 요청하기, 이웃사촌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11	여행	여행지 조언하기, 경유지 말하기, 여행 상품 안내문 읽고 문의하기
12	아이 학교	학교 방문하기, 학교 급식에 대해 문의하기, 아이 선생님에게 보내는 메모 읽고 쓰기

단원/주	상황/주제	기능
13	집들이	집들이 초대하기, 집들이 선물 조언하기, 음식 조리법 읽고 말하기
14	취미 생활	할 줄 아는 것에 대해 말하기, 아이와 같이 하는 취미 활동 조언 구하기, 문화센터 신청서 읽고 쓰기
15	세탁	세탁소 이용하기, 세탁과 관련된 표현 익히기, 세탁 표지 읽고 말하기
16	걱정	걱정 말하기, 위로하기, 해결 방안에 대한 글 읽고 의견 말하기
17	명절	한국의 명절 익히기, 상대방에게 의향 묻기, 명절에 관련된 풍습의 글 읽고 쓰기
18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동사무소에서 일 처리하기, 동사무소에 보낸 건의 엽서 읽고 쓰기
19	부모님 생신	생신 상에 대해 가족과 의논하기, 좋은 선물 제안하기, 생신 축하 카드 읽고 쓰기
20	환불	환불 요청하기, 물건 하자 설명하기, 환불 조건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21	아이 교육	아이에게 결심이나 각오 묻기, 아이의 고민 듣고 이야기하기, 아이 훈육에 대한 글 읽고 쓰기
22	결혼 생활	출산에 대해 말하기, 아이 돌보는 방법 조연구하기, 남편에게 보낸 고마움의 편지글 읽고 쓰기
23	회상	추억 회상하기, 자신의 희망 말하기, 과거를 회상하는 글 읽고 쓰기
24	수리	고장 난 부분 설명하기, 서비스 센터에 수리 부탁하기, 서비스 센터 설문 조사 읽고 작성하기
25	드라마	드라마 보고 의견 말하기, 내용 추측하기, 드라마 소개의 글 읽고 말하기

(3) 고급 교수요목

고급도 초급, 중급과 동일하게 6개월 간 총 24~25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1개 단원은 3개 과로 구성하여 총 75과로 이루어진다. 1개 단원(3과)은 1주일 3회의 방송 분량에 적당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1개 단원은 총 90분 방송 분량으로 한 부분은 1회 방송 분량(30분)으로 주 3회에 나누어 1개 단원을 학습하게 된다. 1과와 2과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한 강의 내용이며, 3과는 읽기를 중심으로 말하기, 쓰기 활동으로 확장된다. 고급의 교수요목은 중급의 교수요목에서 다룬 사회생활과 연관되거나 한국 문화, 자국의 문화와 연관된 내용을 더 강화하여 한국 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와 상황으로 접근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급에서 언급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고급에서도 출현하지만 고급에서는 그 내용과 범위가 더 구체적이고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하였다.

〈표 76〉 고급 교수요목

단원/주	상황/주제	기능
1	영화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말하기, 좋은 영화 추천하기, 비디오와 영화의 차이점 비교하는 글 읽고 말하기
2	감정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불평하기, 감사의 글 읽고 쓰기
3	유행	유행하는 옷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울리는 옷 조언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한 설명의 글 읽고 쓰기
4	주문	홈쇼핑 주문하기, 전화로 물건 사고팔기, 택배 신청서 읽고 작성하기
5	나들이	남편에게 나들이 제안하기,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곳 묻고 계획 세우기,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곳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6	미래	소망 말하기, 가정해서 말하기, 미래 계획에 대한 글 읽고 쓰기
7	도시생활	도시생활의 장단점 비교해서 말하기, 은행 대출 조건 알아보기,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한 글 읽고 편리한 점 말하기
8	아이 상담	아이 선생님과 상담하기, 아이 문제에 대해 의견 말하기, 가정통신문 읽고 쓰기
9	모임	모임 장소 예약하기, 모임에서 자기 의견 말하기, 계모임에 대한 소개의 글 읽고 말하기
10	학창시절	과거에 자주 했던 일 말하기, 후회되는 일 말하기, 과거를 회상하는 글 읽고 쓰기
11	여가 생활	자신에게 맞는 운동 조언 구하기, 여가 생활을 못하는 이유 변명하기, 여러 가지 여가 방법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12	이웃 관계	새로운 이웃과 인사 나누기, 이웃의 부탁 정중하게 거절하기, 이웃과의 마찰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13	육아	육아 방법 조언 구하기, 어린이집 알아보기, 육아용품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14	외국인 상담소	외국인 상담소의 역할 알아보기, 자신의 고민 말하기, 상담 신청서 읽고 쓰기
15	가족과 대화	친척의 근황 묻기, 섭섭한 점 공손하게 말하기, 들은 내용 메모로 전달하는 글 읽고 확인하기
16	건강 음식	가족 건강 걱정하기(금연), 건강에 좋은 식사법 문의하기, 건강식품의 효과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17	부탁	아이 돌보기 부탁하기, 식성에 맞는 음식 부탁하기, 부탁의 글 읽고 쓰기
18	실수	불발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윗사람에게 사죄하기, 실수담 읽고 사죄메일 쓰기
19	요리	가족이 좋아하는 요리법 알아보기, 요리 프로그램 참여 전화로 신청하기, 자국 요리 소개하는 글 읽고 쓰기,
20	도움	도움 요청하기, 도울 수 있는 일 묻기, 자원 봉사 찾는 광고 읽고 말하기
21	소식	한국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인터넷 사용법에 대해 문의하기, 청첩장 읽기
22	방송	방송 일시 묻고 답하기, 드라마 보고 비판하기, 프로그램 게시판의 글 읽고 쓰기
23	이주민 축제	여러 나라의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축제 참여 소감 말하기, 이주민 축제에 대한 정보 읽고 말하기
24	집	근처의 가볼 만한 곳 추천하기, 변경된 버스 노선 말하기, 자신의 방 묘사하는 글 읽고 쓰기
25	풍습	자국의 풍습과 비교해서 말하기, 한국 풍습 익히기,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 풍습에 대한 글 읽고 말하기

VIII. 결론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국가 사회적인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국어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 집합 교육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장에서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특성을 다문화 가정의 형성 배경, 실태, 특성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방송 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 현재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 방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 방송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방송에 대한 결혼 이주여성의 요구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6장, 7장에서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제안한 것은 국내의 다문화 가정이 도시와 농촌에 광범위 하게 흩어져 있어서 집합 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와 교육 자료 구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비전문성, 교재의 부족,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의 부재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집체 교육과 함께 중앙에서 설계한 교육 방송을 통해 질 좋은 교육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각각 6개월의 교육 방송 과정을 제안하였으며, 주 3회, 30분씩 방송이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교수요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 방송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주 1회(주말 1회)의 집합 교육을 병행한다면 개인 학습 내용을 주마다 점검받을 수 있으므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주 3회의 교육 방송이 실시되지 못한다고 해도, 주 1 - 2회의 교육 방송과 주 1회의 집합 교육이 동시에 실시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연구 결

과물에는 주 1회의 집합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연구로 교육 방송용 교재를 개발한다면 그 교재를 통해 집합 교육의 교육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도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한다면 국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빠른 시기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 방송을 설계하고, 교육 방송용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어 교육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경(1980), 「방송영어 강의의 내용과 방법-KBS 생활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20, 영어교육학회. pp.137-145.
- 고야나기 가오루(2004), 『언어습득개론(김지선 역. 2006.)』, 한국문화사.
- 곽숙정(1995), 『교육 방송 TV의 일반인 대상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 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통계)』,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국어원(2005),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 전라북도 임실군 (및 순창군, 남원시) 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원.
- 권성호 · 서운경(2005), 『교육공학적 관점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 김삼준(2007),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및 관리정책」 『2007년 8월 17일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제3차 총회 및 하계워크숍 발표 자료』,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pp. 34-44.
- 김선정(2006),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재외동포와 이주외국인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중언어학회, pp.125-130.
- 김우정(2006),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 한국어상답소 · 국어국문학과, pp.51-53.
- 김유정(1999),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본 한국어학습자들의 인식」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9-60.
- 김일란(2007),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웅 · 정인성(2002), 『원격교육활용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85-100.
- 김현주(1998), 『텔레비전 유아대상 프로그램 제작진의 ‘교육성’과 ‘오락성’에 대한 정의와 실현 방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동(2006), 이주여성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외국 사례의 국내 적용 방안,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pp.213.
- 노마 히데키 · 김진아(2006), 「NHK(일본방송협회) 텔레비전 교육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95-134.

- 농림부(2007), 『우리 엄마의 한국어(My MoM's Korean)』, 농림부.
- 목지연(2005), 『교육방송 영어 수업과 교실 영어 수업에 관한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성(2004), 『미디어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민현식(2003), 「국내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7-48.
- 박경자(2004), 『원거리 교육과 언어 학습』, 경진문화사.
- 박경자·장복명(2002), 『영어교재론』, 박영사.
- 박영순(2006), 『다문화사회의 언어문화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방성원·김현진(2007), 「공중파 방송을 통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실시 방안」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7-43.
- 배두본(1999), 『영어 교재론 개관』, 한국문화사.
- 배영주(2005), 『자기주도학습과 구성주의』, 도서출판 원미사.
-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11-31.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Arirang Korean Basics』 1, DARAKWON.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Arirang Korean Basics』 2, DARAKWON.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보건복지부.
- 설진아(2007), 『방송기획 제작의 기초』,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67-84.
- 안경화(2003),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조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0차 학술대회 발표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53-86.
- 안경화(2007a.), 『한국어 교육의 연구』, 한국문화사.
- 안경화(2007b),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와 실제」 『제4차 남아시아 한국어교육자 현지 워크숍 발표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한국국제교류재단, pp.4-19.
- 여성가족부(2005).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6), 『2006 사업운영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6),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7),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첫걸음)』, 여성가족부·국립국어원.

- 여성가족부(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중급)』, 여성가족부.
- 왕한석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유태영·김영수(1988), 『교육방송론』, 도서출판 나남.
- 윤인진(2006),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육정책」,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pp.3-15.
- 李建亥(2001), 『TV 방송 영어 프로그램 분석 척도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2007a),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실시 방법론 및 전반적인 체계의 개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7-26.
- 이미혜(2007b), 「한국 내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세종학당의 역할」 『중국어해양대학 세종학당 개원 기념 세종학당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중국해양대학, pp.51-67.
- 이성미(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한국어상담소·국어국문학과, pp.26-47.
- 이성연·최유(2006), 『다문화 가정 도래를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성현 외(2006),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순애(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구성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식(2006), 「한국어교육과정론」 『제3차 동남아/서남아 한국어교육자 초청연수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한국국제교류재단, pp.283-308.
- 이정옥(2006), 「경상북도 결혼이주여성 현황 및 적응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한국어상담소·국어국문학과, pp.72-84.
- 이진영(2006), 「국제결혼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GK대학특성화사업단 제 1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75-494.
- 이혜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99-232.
- 이화여대 교육공학과(2004),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 임철일(2003),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 활용의 이해』, 교육과학사.
- 장수정(2006), 『국제이주여성을 위한 어휘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상희(2003), 『영어 학습을 위한 TV 교육 방송과 인터넷의 활용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희(2002), 『교육방송 TV 영어 프로그램의 교실수업 활용 방안-말하기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성·나일주(2004), 『원격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 정일선(2006), 『국제결혼가족 및 아동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일선·박은미(2007), 『경상북도 여성이민자 가족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지선(2002), 『중학교 영어 교육에서의 TV 교육 방송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원(2006), 「다문화 시대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방안 -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보급 계획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20주년 기념 한국어의 미래를 위한 제 2차 토론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한국어상담소·국어국문학과, pp.54-59.
- 조선경(2007),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항록·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의 개발(1)」,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91-510.
- 조항록(2006),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한국학」 『제3차 동남아/서남아 한국어교육자 초청연수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한국국제교류재단, pp.245-270.
- 조항록(2007),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재와 과제」 『2007년 가을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사회언어학회, pp.51-65.
- 천병기(1992), 『방송에 의한 학습의 실제』, 영남대학교 출판부.
- 천병기(1993), 『방송 학습의 지도 원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은규·장은아·김은아·채숙희(2005), 「한국어 교육용 TV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77-298.
- 충청북도 교육청(2006),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 한국국제노동재단(200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한국국제노동재단.
- 한국국제노동재단(200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2』, 한국국제노동재단.
- 한국방송개발원(1995),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한국방송개발원.
- 한국방송공사(1992), 『교양 프로그램 제작 편람』, 한국방송공사.
- 한국어세계화재단(2005),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실태 및 한국어 교육 요구 조사』,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국임(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 황선영·조선경(2006), 「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1-118.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pp.287-329.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 Celce-Murcia, M.(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 Cunningsworth, A.(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Heinemann.
- Lafayette, R. C.(ed.)(1996), *National standards*, National textbook company.
- Nunan, D.(1999),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Heinle & Heinle.
- Nunan, D.(2003), Task-based syllabus design, Curriculum and syllabu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e proceeding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AKLE.
- Omaggio Hadley, A.(2001),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Heinle & Heinle.
- Richards, J. C. and Renandya, W. A.(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and Temperley, M. S.(1981),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Ur, Penny. (1996),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기타 자료>

- 통계청 자료(06.12.31), 홈페이지 및 16개 시,도청 홈페이지.
- 통계청 자료(07. 3),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호적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2006. 1. 1. ~ 12. 31.) 전국의 읍·면사무소 및 시·구청(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의 인구동태 항목을 집계한 결과임.
- 행자부(2007. 8. 2),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여성자료실(<http://www.wmigrant.org/> 2007.12.2)
- 법무부 자료(07.08.24), 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재한외국인 관련 통계).
- 법무부 자료(07.08.24),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재한외국인 관련 통계).

[부록] 1.71)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설문지 [학습자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방송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의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개인 정보, 한국어 학습 정보, 교육 현장 정보, 교사 개인 정보, 사용 교재 정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교육 방송 내용 및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연구위원회 드림

I. 개인 정보

(1) 국적 () 모국어 ()

(2) 나이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3) 한국 내 거주지

① 서울시 ② 부산시 ③ 인천시 ④ 대구시 ⑤ 울산시
⑥ 대전시 ⑦ 경기도 ⑧ 강원도 ⑨ 충청남도 ⑩ 충청북도
⑪ 경상남도 ⑫ 경상북도 ⑬ 전라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제주도

(4) 한국 체류 기간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5년 ⑤ 5년 이상

(5) 한국 체류 이유

① 결혼 때문에 ② 직장 때문에 ③ 학업 때문에 ④ 기타 ()

71) 지면 관계상 학습자용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만을 제시함.

- (2) 위 질문에 ①로 대답한 경우, 어떤 교육 방송을 이용했습니까?
(프로그램 이름 또는 요일이나 시간을 써 주십시오.)
- (3) 위 질문에 ②로 대답한 경우, 교육 방송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 방송이 있는지 몰라서
② 교육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어려워서
⑤ 재미가 없어서
⑥ 기타 ()
- (4) TV 교육 방송을 통한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IV. 한국어 교육 방송의 내용 구성

- (1) 한국어 TV 교육 방송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부터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 |
|--------------|--------------------------|
| ① 말하기, 듣기 연습 | () |
| ② 읽기, 쓰기 연습 | () |
| ③ 한국어 문화 이해 | () |
| ④ 발음 연습 | () |
| ⑤ 문법 및 표현 학습 | () |
| ⑥ 어휘 학습 | () |
| ⑦ 기타 | () |

[부록] 2.

A Surve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Multi-communications [Self-learner]

Greetings,

With sup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is survey is a part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Use of Multi-Communications” project. With the information gathered from this survey, we hope to create a Korean Language Education TV program.

We appreciate if you could take time from your busy schedule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elow, there are sections concerning personal background, Korean language background, location of Korean language study, Korean language materials, perceptions of exis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al Broadcasts, the cont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 and the instituting of a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

Sincerely,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Use of Multi-Communications

I . Personal Information

(1) Nationality () Native Language ()

(2) Age

① 10-19 ② 20-29 ③ 30-39 ④ 40-49 ⑤ 50-59

(3) Residence in Korea

① Seoul	② Busan	③ Incheon
④ Daegu	⑤ Ulsan	⑥ Daejeon
⑦ Gyeonggi-do	⑧ Gangwon-do	⑨ Chungcheong-do
⑩ Chungcheongbuk-do	⑪ Gyeongsangnam-do	⑫ Gyeongsangbuk-do
⑬ Jeollanam-do	⑭ Jeollabuk-do	⑮ Jeju-do

(4) Length of Stay in Korea

- ① less than one year ② 1-2 years ③ 2-3 years
④ 3-5 years ⑤ more than 5 years

(5) Reason for Residence in Korea

- ① marriage ② job ③ school ④ other ()

II. Korean Language Study

(1) Where are you currently studying Korean?

- ① A language program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② A family support center for non-Korean spouses
③ A center for the support of female migrants' human rights.
④ A class established by a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⑤ other ()

(2) How many hours a week do you spend studying Korean?

_____ hour(s)

(3) What are your main reasons for studying Korean? (Please choose all that apply.)

- ① in order to educate your children
② in order to find a job
③ in order to speak fluently with fellow Korean co-workers
④ in order to speak fluently with your family
⑤ in order to adjust to life in Korea and Korean culture
⑥ other ()

- (4) How would you like to learn Korean? (Please only select one.)
- ① at home from family
 - ② at home through the internet
 - ③ at home watching a television program
 - ④ at home from a Korean language tutor
 - ⑤ at a language center run by a university, private organization, etc . . .
 - ⑥ other ()

III. Percep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s

- (1) Have you ever studied Korean by watching a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
- ① Yes
 - ② No
- (2) If you answered yes to question (1), which TV program did you watch?
(Please include the name of the program, and the day and time that the program broadcasts)
- (3) If you answered no to question (1), why do you not watch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s? (Please choose the most appropriate statement.)
- ① Because I did not know such broadcasts existed.
 - ② Because I do not know how to use these broadcasts.
 - ③ Because I do not have time.
 - ④ Because it is too difficult.
 - ⑤ Because these broadcasts are not fun.
 - ⑥ other ()
- (4) Do you believe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study of Korean through an educational TV program?
- ① a big need
 - ② a little need
 - ③ an average need
 - ④ not much need
 - ⑤ no need

IV. The Cont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

- (1) What should be included in a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

Please rank from the most to least important. (Please use 1 to represent the most important.)

- | | | |
|---|---|---|
| ① speaking and listening practice | (|) |
| ② reading and writing practice | (|) |
| ③ to understand Korean language culture | (|) |
| ④ pronunciation practice | (|) |
| ⑤ grammar and expression practice | (|) |
| ⑥ vocabulary practice | (|) |
| ⑦ other | (|) |

- (2) The following is necessary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ntent of an educational Korean language program. Please rate how often you use Korean when speaking with the people on the chart below.

5=very often, 4=often, 3=regularly, 2=sometimes, 1=almost never

husband	5	4	3	2	1
father-in-law	5	4	3	2	1
mother-in-law	5	4	3	2	1
children	5	4	3	2	1
husband's brothers and sisters	5	4	3	2	1
husband's extended family	5	4	3	2	1
neighbors	5	4	3	2	1
friends (other foreigners)	5	4	3	2	1
Korean language teacher, advisor at a center	5	4	3	2	1
children's teacher	5	4	3	2	1
other ()					

- (3)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s situation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materials for an introductory Korean language class. Please rate how often you use Korean at the following locations.

5=very often, 4=often, 3=regularly, 2=sometimes, 1=almost never

home	5	4	3	2	1
store, market	5	4	3	2	1
restaurant	5	4	3	2	1
beauty parlor, hairdresser	5	4	3	2	1
bank	5	4	3	2	1
post-office	5	4	3	2	1
pharmacy, hospital	5	4	3	2	1
public transportation (bus/taxi/subway)	5	4	3	2	1
public center/local office/religious organization	5	4	3	2	1
children's school	5	4	3	2	1
other ()					

- (4) In what language should a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 be taught?

- ① Korean ② English
③ Your own native language ④ other ()

- (5) In what form should a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 be taught?

- ① like a Korean language class with both a teacher and students
② in many different settings according to realistic situations
③ a lecture given by a Korean language instructor
④ other ()

V. Instituting a Korean Language Educational TV Program

- (1) Are you able to easily watch a TV program aimed at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 ① yes ② no

[부록] 3.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설문지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방송 매체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방송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선생님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교육 현장 정보, 교사 개인 정보, 사용 교재 정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교육 방송 내용 및 구성 등에 대한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연구위원회 드림

I. 교육 현장 정보

- (1) 현재 교육하는 지역 ()
- (2) 현재 교육하는 기관
- ① 대학 부설 기관 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③ 이주여성인권센터
- ④ 지방자치단체 개설 한국어 교실 (지방자치단체명:)
- ⑤ 기타 ()
- (3) 교사 유형
- ① 자원봉사 ② 유급 교사: 시간 당 ()원
- (4) 주간 교육 시간
- 주 ()회 ()시간

IV. 현재 방영되는 한국어 교육 방송에 대한 인식

(1) 다음 중 학습자에게 소개해 주거나 수업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EBS 한국말 쉬워요
- ② EBS 2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초급)
- ③ EBS 2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중급)
- ④ 기타 ()
- ⑤ 본 경험이 전혀 없음

(2) 학습자에게 소개해 주거나 수업에 활용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V.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의 효과

(1) 다문화 가정 여성에게 TV 교육 방송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없다 ⑤ 전혀 필요없다

(2) 한국어 TV 교육 방송의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① 한국어 사용 능력 향상 ② 한국어 문화 이해 ③ 학습의 편의성 제공
- ④ 발음 능력 향상 ⑤ 기타 ()

VI. 한국어 교육 방송의 내용

(1) 한국어 TV 교육 방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되는 언어 기능은 무엇입니까?

-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2) TV 교육 방송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 ① 상황-기능 중심으로 ② 문법 중심으로
- ③ 연습 활동 중심으로 ④ 기타()

- (2) 프로그램 진행자로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나운서 ② 한국어 전문 강사 ③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연예인 포함)
 ④ 한국어 교수법을 전공한 외국인 ⑤ 기타()
- (3) TV 교육 방송은 어떤 언어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① 한국어 ② 영어
 ③ 학습자 모국어 ④ 기타()
- (4) TV 교육 방송의 진행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진행함 (교사, 학생 출현)
 ② 다양한 장면 상황으로 연출함 (실제적인 상황으로 제시)
 ③ 설명 형식으로 진행함(학생, 외국인 등이 출현하지 않음)
 ④ 기타()

VIII. 한국어 교육 방송 편성 및 부가 서비스

- (1) 다문화 가정 여성을 위한 TV 교육 방송은 어느 시간에 방송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오전 8시 이전 ② 오전 8시~12시 ③ 12시~오후 3시
 ④ 오후 3시~6시 ⑤ 오후 6시~9시 ⑥ 오후 9시 이후
 ⑦ 기타 ()
- (2) TV 교육 방송은 1주일에 어느 정도 방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⑥ 기타 ()
- (3) 1회 방송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③ 1시간~1시간 30분 ④ 기타 ()
- (4) 방송용 프로그램을 비디오(CD, DVD 등)로 제작하여 제공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5) TV 방송 프로그램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 | | | |
|---------|----------|-------------------------------|
| ① 인쇄 교재 | ② 비디오테이프 | ③ CD |
| ④ DVD | ⑤ 웹 서비스 | ⑥ 기타 () |

※ TV 교육 방송에 대해 건의할 사항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주요저서

현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①, ②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 V

**공동연구원 : 강현화 (경희대), 김현진 (이화여대), 방성원 (경희사이버대),
안경화 (서울대), 최주열 (선문대)**

보조연구원 : 이수행 (이화여대)

**방송 매체를 이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재 개발**

발 행 인 이 상 규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 쇄 일 2007년 11월 28일

발 행 일 2007년 11월 30일

인 쇄 도서출판 새로문화
전화 : 02-313-1431(代)
팩스 : 02-313-1434
